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조선후기 제주지역 서적간행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김 우 리

2018년 2월

조선후기 제주지역 서적간행 연구

지도교수 김 동 전

김 우 리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김우리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

위 원 _____ ㉠

위 원 _____ ㉠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7년 12월

A Study on Book Publication in Jeju Region
in the Late Joseon Period

Kim Woo-Ri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ong-J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8. 2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Abstract

I. 서론	1
II. 조선시대 제주의 서적보급	4
III. 조선후기 제주의 시기별 책판목록 내용	14
1. 16~17세기 책판목록의 내용과 분류	15
2. 18~19세기 책판목록의 내용과 분류	21
IV. 조선후기 제주지역 서적간행의 특징	33
1. 제주지역 출판서적의 유형별 특징	34
2. 책판고의 운영과 출판관련 활동	62
V. 결론	75
참고문헌	80

<표 목차>

<표 1>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제주지역 서적관련 기사	13
<표 2> 제주지역 책판목록이 수록된 사료	15
<표 3> 『攷事撮要』(1585)에 수록된 제주지역 책판목록	16
<표 4> 『耽羅志』(1653)에 수록된 제주지역 책판목록	17
<표 5> 『知瀛錄』(1696)에 나타난 제주지역 책판목록	20
<표 6> 『增補耽羅誌』(1765)에 나타난 제주지역 책판목록	21
<표 7> 『古冊板有處攷』(1776년 이전)에 나타난 제주지역 책판목록	23
<표 8> 『濟州邑誌』(1780~1789년 사이)에 나타난 제주지역 책판목록	24
<표 9> 『濟州大靜旌義邑誌』(1793년)에 나타난 제주지역 책판목록	25
<표 10> 『林園十六志 京外鏤板』(1796년 이전)에 나타난 제주지역 책판목록	26
<표 11> 『鏤板考』(1796년)에 나타난 제주지역 책판목록	27
<표 12> 『耽羅誌草本』(1841)에 나타난 제주지역 책판목록	28
<표 13> 『耽羅志』(미상)에 나타난 제주지역 책판목록	29
<표 14> 『耽羅錄』(1843)에 나타난 제주지역 책판목록	30
<표 15> 『耽羅觀風案』(1916)에 나타난 제주지역 책판목록	31
<표 16> 『耽羅紀年』(1918)에 나타난 제주지역 책판목록	32
<표 17> 조선시대 제주지역 유학관련 서적·책판목록	35
<표 18> 현전하는 제주간행 유학서적	41
<표 19> 역사관련 책판목록	43
<표 20> 병학관련 책판목록	43
<표 21> 현전하는 제주간행 병학서적	47
<표 22> 의학관련 책판목록	50
<표 23> 문집관련 책판목록	53
<표 24> 현전하는 제주간행 문집	59

<표 25> 예술관련 책판목록	60
<표 26> 제주 책판고 위치	63
<표 27> 대정현·정의현 책판에 대한 기록	66
<표 28> 제주에서 간행한 현전본	70
<표 29> 『경국대전』 京·外紙匠의 지역별 분포	71
<표 30> 『增補耽羅誌』 장인 中 인쇄관련 장인기록	71
<표 31> 제주에서 간행한 책판 목록	72

<그림 목차>

<그림 1> 태종 18년(1418), 숙종 31년(1706) 제주에서 간행한 『예기천견록』	36
<그림 2> 선조 41년(1608) 제주에서 간행한 『중용언해』	37
<그림 3> 인조 22년(1664) 제주에서 간행한 『성리대전서』	38
<그림 4> 숙종 11년(1685) 제주에서 간행한 『소학언해』	39
<그림 5> 숙종 21년(1695)에 제주에서 간행한 『상례비요』	39
<그림 6> 숙종 44년(1718) 제주에서 간행한 『옥당리정자의운률해편심경』	39
<그림 7> (연대미상) 제주에서 간행한 『소학서도』	40
<그림 8> 헌종 11년(1845) 제주에서 간행한 『소학규범』	40
<그림 9> 태종 4년(1404)~태종 6년(1406) 제주에서 간행한 『황석공소서』	46
<그림 10> 인조 18년(1640)에 제주에서 간행한 『오자직해』	47
<그림 11> 조선후기 제주도 목장분포도	51
<그림 12> 인조 11년(1633) 제주에서 간행한 『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	52
<그림 13> 선조 5년(1572) 제주에서 간행한 『석천선생시집』	54
<그림 14> 숙종 27년(1701)제주에서 간행한 『초암집』	55
<그림 15> 숙종 28년(1702) 제주에서 간행한 『영해창수록』	57
<그림 16> 영조 16년(1740) 제주에서 간행한 『근재선생집』	58
<그림 17> 인조 5년(1627) 제주에서 간행한 『삼국지연의』	62

A Study on Book Publication in Jeju Region in the Late Joseon Period

This study analyzed the catalogs of wood printing blocks for each period in Jeju region and the characteristics by the types of books published in Jeju in the Joseon period, and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books published in Jeju through the operation of wood printing block archive and publication-related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to perform an analysis that simply lists wood printing block catalogs, but to confirm that, although Jeju region had a somewhat poor publication environment, it did not fall behind in the capabilities and trends of book publication at that time,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fic book publication and Jeju region.

First, the records of distributing books or ordering wood printing block-making in Jeju, focusing o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historical geographies of Joseon counties, were organized for each period.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Jeju region requested book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s it lacked books, and the ones that they requested were mostly Confucian books. Although the central government sometimes ordered other provincial offices to print books to be sent to Jeju region, it made Jeju region to directly engrave and print 「autopsy report format」 in the 21st year of King Sejong's reign, and this suggests that Jeju had the publication technology at that time.

The catalogs of books and wood printing blocks in Jeju region of the Joseon period included in approximately ten literatures were analyzed by period and type. The result shows that, in Jeju region of the Joseon period, there were various types of wood printing blocks during the 16th to 19th centuries, and those were mostly related to

Confucianism. Jeju region received Confucian books such as the Four Books in the 17th year of King Sejong's reig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15th century, and continued to receive them until the 17th century. Over the 16th to 19th centuries,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books on Confucianism in Jeju region. In the 18th to 19th centuries, the number of wood printing blocks and extant editions of publications increased compared to the 15th to 17th centuries. This seems to have been related to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of spreading Confucianism in the 18th to 19th century and the process that the order of Neo-Confucianism was established in Jeju region at that time.

Various types of wood printing blocks about military strategy, medicine, and literature are found together with wood printing blocks about Confucianism. There remain 10 Jeju wood printing block catalogs about military strategy. Among them, the extant edition of the 「Huang Shigong Sushu (military strategy book written by Huang Shigong during the Qing Dynasty period)」 is the oldest of the military strategy books published the Joseon period. The fact that the oldest military strategy book remains in Jeju region and multiple wood printing blocks and books about military strategy are found suggests that military strategy books were deemed important in Jeju region at that time. There is 『Sinpyeonjibseong Mauibang Uuibang (newly compiled veterinary manual regarding the diseases of cattle and horses』, an extant edition of a medical book published in Jeju region, suggesting that Jeju region also printed the book by itself. Although this book is a professional medical book, when examining the purpose of the publication of the book at the time, it indicates the military importance of cattle and horses in Jeju region. There are 10 wood printing blocks regarding a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and there remain three cases of the provincial governor's publication of a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They are the publications of a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focusing on people involved in a private relationship with the provincial governor, rather than a preferential selection of a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written by figures from the region under his jurisdiction.

Finally,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book publication in Jeju region in the

late Joseon period through the operation of wood printing block archive and publication-related activities. When judging from the location and status of wood printing block archive in Jeju region of the Joseon period, the storage environment for wood printing blocks was not very good. However, the level of publication technology can be assumed based on the operation of wood printing block archive, its own production of paper, and the existence of paper craftsmen and wood printing block craftsmen. It is also found that wood printing blocks of diverse characteristics such as military strategy, medicine, literary works, and divination as well as Confucianism were constantly engraved for specific purposes during the 15th to 19th centuries.

As mentioned above, this study examined the catalogs of wood printing blocks recorded during the 15th to 19th centuries, the colophon and text of the extant edition published in Jeju region, the operation of wood printing block archive, its own production of paper, and the existence of paper craftsmen and wood printing block craftsmen. In conclusion, it can be assumed that the publication activities in Jeju region of the Joseon period were steadily conducted reflecting the trends, despite a somewhat poor publication environment.

I. 서론

조선시대는 유학숭상과 학문장려정책으로 유교경전을 비롯한 이와 관련된 서적들을 보급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서적은 학문진흥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에는 서적을 편찬하는 일이 국가의 중요사업이었으며, 통치 수단이기도 하였다. 전국에서 필요한 서적을 국가가 주관하여 간행하고, 보급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택했고 이에 따라 국가가 스스로 어떤 책을 얼마나 간행할지, 어느 곳에서 출판할지를 결정하여 해당 관청에 그 일을 부과했다. 그 관청은 중앙관청이 될 수도 있고, 지방의 감영이 될 수도 있었다.¹⁾

중앙의 도서보급정책은 주로 유학서에 관한 것이었고 성리학이념의 보급과 관련된다. 하지만 관찰사 및 지방관이 자신의 관직을 이용하여 사적으로 선조나 스승의 문집을 간행하기도 했고, 특정지역에서만 일부 서적이 개간되기도 했다. 때문에 각 지역의 출판물은 시대적,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조선시대 각 지역에 관한 출판문화 연구는 1980년대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지방에서 이루어진 출판활동에 관한 연구로는 전라도나 경상도 등 서적간행이 활발했던 지역에서 서원이나 사찰의 간행본, 지방의 목활자에 관한 연구나 각 지방 소재의 책판목록 조사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다.²⁾

- 1) 이재정, 『조선출판주식회사』, 안티쿠스, 2010, 14쪽.
- 2) 강혜영, 「조선조 전주지방의 목판인쇄문화고」, 『국회도서관보』 167호, 국회도서관, 1983.
윤병태, 「경상감영과 대구지방의 출판문화」, 『출판학연구』 제31호, 한국출판학회, 1989.
_____, 「조선시대 평양의 인쇄문화」, 『고인쇄문화』 창간호, 청주고인쇄박물관, 1993.
조정화, 「조선조 후기 영남 관판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6.
_____, 「제주도 간행의 서적과 기록류」, 『고인쇄문화』 제8집, 청주고인쇄박물관, 2001.
배현숙, 「조선시대 책판고」, 『서지학연구』 제25집, 한국서지학회, 2003.
강혜영, 「남원지역 인쇄문화에 관한 연구-조선조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제32호, 서지학회, 2005.
배현숙, 「책판목록을 통해 본 조선시대 善山地域의 목판인쇄문화 연구」, 『서지학연구』 제34호, 서지학회, 2006.
윤동원, 「안동지방 인쇄문화에 관한 연구」, 『고인쇄문화』 제15집, 청주고인쇄박물관, 2007.
배현숙, 「조선시대 태인지역의 인쇄문화에 관한 연구」, 『서지학보』 제30집, 2007.
_____, 「조선시대 완영의 고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조선시대 지방감영의 인쇄출판 활동』, 청주고인쇄박물관, 2009.
김성수, 「충청감영의 간행도서에 관한 분석」, 『조선시대 지방감영의 인쇄출판 활동』, 청주고인쇄박물관,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제주지역 출판에 관하여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 제주도에서 개간된 책판 중 현전하는 책판이나 간인본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탐라문화연구원의 「조사보고: 제주도 典籍類 종합조사보고」³⁾를 시작으로 남권희의 「제주도 간행의 서적과 기록류」⁴⁾와 윤봉택의 「제주목에서 개간된 17세기 책판 연구」⁵⁾,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⁶⁾가 선행연구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선, 탐라문화연구원의 「조사보고: 제주도 典籍類 종합조사보고」는 문화재청의 ‘한국전적종합조사계획’에 따라 1983년 8~9월 동안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이 제주도내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전적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이 조사로 제주에서 개간한 간인본으로 『耽羅志』, 『婚禮笏記』 등 2종을 확인하였다. 이 조사는 당시 판각본 2종만을 확인했지만 제주지역의 전적류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처음 시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필사본을 포함한 모든 전적류의 목록만을 나열하는 실태분석만이 이루어져 있다.

남권희의 「제주도 간행의 서적과 기록류」는 제주의 서적 간행기록을 입란 전과 입란 후로 구분하여 제주간행서적을 조사했다. 책판목록이 수록된 『攷事撮要』, 『古冊板有處攷』, 『林園十六志 京外鏤板』, 『鏤板考』, 『耽羅志』, 『濟州大靜旌義邑誌』을 중심으로 제주책판목록을 정리했다. 또한 책판목록에 기록되지 않은 제주간행본 『中庸諺解』, 『吳子直解』를 새롭게 발견했다. 이처럼 제주책판목록 정리와 제주와 관련된 서적류에 대해 논하면서, 제주 간행서적에 대하여 개괄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윤봉택의 「제주목에서 개간된 17세기 책판 연구」(노기춘 공저)와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는, 남권희가 사료로 포함시키지 않은 『南槎日錄』, 『知瀛錄』, 『耽羅誌草本』, 『濟州邑誌』, 『耽羅誌』(미상)를 추가해 제주책판목록을 정리했다. 더욱이 현존 책판과 간인본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최경훈, 「조선시대 원주 지역의 인쇄 문화 연구」, 『조선시대 지방감영의 인쇄출판 활동』, 청주고인쇄박물관, 2009.

원미경, 「조선시대 강원지역의 서적간행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3.

김소희, 「조선전기 전라도의 출판문화 연구」, 『서지학연구』 제62집, 한국서지학회, 2015.

3) 탐라문화연구원, 「조사보고: 제주도 典籍類 종합조사보고」, 『탐라문화』 제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84.

4) 남권희, 「제주도 간행의 서적과 기록류」, 『고인쇄문화』 8집, 청주고인쇄박물관, 2001.

5) 윤봉택, 노기춘, 「제주목에서 개간된 17세기 책판 연구」, 『서지학연구』 제34집, 서지학회, 2006.

6) 윤봉택,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출판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조선시대 제주에서 책판이 개간된 시기를 조선개국~1435년, 1436년~1677년, 1678~1899년까지 3기로 나누어 구분했고 중국의 經史子集의 四分法으로 유형을 구분했다. 하지만 『耽羅錄』과 『增補耽羅誌』 등의 사료를 활용하지 않았고 몇 종의 책판명 수정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책판종수의 수정도 필요하다.

본고는 이렇게 선행되어진 연구들에 유의하면서,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책판목록과 간행본을 시기별·주제별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출판문화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책판목록 파악을 위한 사료로서 『朝鮮王朝實錄』, 『攷事撮要』, 『耽羅志』(1653), 『南槎日錄』, 『知瀛錄』, 『古冊板有處攷』, 『林園十六志 京外鏤板』, 『鏤板考』, 『耽羅誌草本』, 『濟州邑誌』,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 『耽羅誌』(미상)을 중심으로 참고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누락된 『增補耽羅誌』와 『耽羅錄』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개인소장본 간기 등의 기록을 이용해 책판종수를 새롭게 산정했다.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책판종수는 총 99종이고 간행현전본은 11종이다. 이들 중 동일서적이지만 다른 종으로 분류된 서적도 있고, 책판목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후 개인소장본의 발굴 등으로 책판 종수가 변경됐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책판 수는 총 93종이고 제주간행 현전본은 23종이다. 조사 대상은 필사본을 제외한 목판본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조선 후기에 서양에서 들어온 인쇄기의 활자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우선 II장에서는 『조선왕조실록』과 읍지류를 중심으로 제주에서 중앙정부에서 서적을 요청하는 기록과 중앙정부에서 제주에 보급한 서적관련 기록을 시기별로 정리하겠다. 이 과정에서 제주에 보급된 서적의 성격을 확인하고 제한적이거나 유학진흥을 위한 정부의 관심도 지속되고 있음을 살펴보겠다. III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누락된 사료와 현전간행본을 추가해 제주의 시기별 책판목록에 대해 분석하겠다. IV장에서는 제주 출판서적의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고 책판고의 운영과 출판관련활동을 통해 제주의 서적간행특징을 살펴보겠다.

본고는 책판목록만을 나열하는 단선적 실태분석이 아니라, 출판환경이 열악함에도 자체 출판능력과 당시 서적간행 흐름에 뒤쳐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특정 서적 간행과 제주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겠다.

II. 조선시대 제주의 서적보급

서적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정치·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내용이나 형식, 출판방법에 있어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성을 갖는다. 또한 서적을 인쇄한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물적 요소를 갖추고 있었음을 말해준다.⁷⁾ 조선 초기에는 국왕이 중심이 되어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유교국가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로서 서적의 간행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유교이념과 관련된 서적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번각하거나 활자를 이용하여 간행하여 보급하였다. 활자인쇄는 인출 부수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부수가 필요하거나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서적은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중앙관서에서의 목판인쇄는 태종이 국초에 두었던 敎書監과 書籍院을 합쳐 만든 校書館과 그 명칭을 고친 典校署가 담당하였으며, 그 밖에도 鑄字所 그리고 정조 때 奎章閣이 설치된 이후는 본원인 內閣이 각각 맡아왔다. 지방관서의 목판인쇄는 세종 이후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며, 중앙관서가 요구하는 책판과 지방관서 자체에서 필요한 책판을 판각했다.⁸⁾

본 장에서는 『조선왕조실록』과 읍지류를 중심으로 제주에 서적을 보급하거나 판각을 명한 기록을 시기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조선초기에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유교국가의 건설에 필수적인 성리학 서적의 편찬과 생산·보급 및 교육이 당면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세종대에는 유교정치와 유학의 진흥을 위해 사서오경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였고, 지방에서도 유학서적을 활발히 간행하였다.⁹⁾ 이와 관련하여 제주지역 역시 세종 17년(1435) 제주향교에 『대학』, 『중용』, 『소학』 등을 받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 ① 『대학』·『중용』·『논어』·『맹자』·『시경』·『서경』·『예기』·『역경』·『춘추』·『성리대전』 각 2질과 『소학』 10질을 제주의 향교에 내렸다.¹⁰⁾

7) 이중연, 『책의 운명』, 해안, 2001, 16쪽.

8) 천혜봉, 『韓國書誌學』, 민음사, 1999, 153쪽.

9) 남권희, 『조선전기 목판인쇄술과 출판문화』, 『조선전기 기록문화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2013, 9쪽.

당시 제주가 『소학』 외 다수의 유학서적을 받은 이유는, 세종 16년(1434) 안무사 최해산 때 화재로 제주목 관아의 건물과 문적이 일시에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이 관부의 재건과 함께 소실문적의 보완을 위해 서적을 내린 것이고 이 내용은 『耽羅志』의 관아 건치연혁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세종 17년 안무사 최해산때 관부의 실화로 문적이 소실됐으니 애석하다.¹¹⁾

세종 16년(1434) 대화재로 관아건물과 문적이 소실되자 당시 제주목사인 최해산은 관아재건을 시작했다. 향교를 중창함에 따라 유학교육의 입문서적들이 필요했고, 이러한 이유로 중앙에서 제주에 다수의 유학서적을 내려보낸 것임을 『新增東國輿地勝覽』 제주목 학교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 김처례가 지은 비문에, “우리 태조 원년 임신에 성균관이 이루어지고 세종 17년 을묘에 향교가 지어졌다. 성화 병술년 봄에 완산 이유의가 제주의 목사로 임명되어 맨 처음 문묘에 참배하고 그 집이 퇴락한 것을 애통하게 여겨 개연히 새롭게 하려 하여, 판관 장흥 이인충과 의논하여, 드디어 영졸에게 명을 내려 순번에 따라 일에 종사하게 하고, 교수관 문소조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니, 선비는 학업을 던져두고 분주하고 목공은 재주를 다하여 경영하였다. 목사가 매번 공사의 여가에 친히 임하여 지휘하니, 이에 묘무와 재사와 문장과 당옥과 변두와 보궤와 궤안과 위판과, 부엌·창고·마구·변소·뜰·도로까지 수십 일이 못 되어 빛나게 새로워졌다.

고을의 부로들과 학생·아이·어른이 듣고 보고 다투어 하례하고 학업으로 서로 권하며 또 말하기를, ‘목사의 공은 이 고을의 전에 없던 것이니, 어찌 돌에 새겨 후세에 보이지 않으리요.’ 하고, 처례에게 축탁하여 銘을 짓게 하였다. 처례가 말하기를, ‘학교의 흥하고 폐하는 것이 정치의 성하고 쇠함에 크게 관련된다. 학교가 이미 수리되었으니, 학교의 규칙도 마땅히 새로워져야 하겠다.

스승된 자가 진실로 능히 세종께서 특별히 내려주신 서적을 받들고 성

10) 『세종실록』 권69, 17년 9월 21일 기축조, ‘賜大學中庸論語孟子詩書禮記易春秋性理大全各二件 小學十件, 于濟州鄉校’

11) 이원진, 『耽羅志』 建置沿革, ‘…世宗十七年 按撫使崔海山時 官府失火 文籍盡爲灰燼 惜哉.’

현이 지으신 경전을 가지고서, 학생들로 하여금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생각하며, 아침에 배우고 저녁에 익히도록 하며, 회옹의 백록동 규칙을 게시하여 우리르고 사모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목사가 중수한 아름다운 뜻을 살펴 물 뿌리고 쓸기를 싫어함이 없어서, 知와 行이 아울러 나아가면 성현되기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 12)

기록을 확인하면 세종때 관아재건과 향교를 중창하여 유학을 장려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특히 세종이 보낸 서책을 중심으로 고전과 함께 홍학을 권장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조선초부터 제주의 학문장려에 관심을 두었다는 세종의 의지도 같이 읽을 수 있다. 제주목사의 관아재건은 당시의 화재로 인한 것이었지만 군주로서 지방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종 24년(1493)에는 제주가 서책을 얻기 힘들다는 이유로 제주목사 이종윤에게 <사서>, 『모시』, 『소학』을 하사하여 인재양성에 힘쓰게 했다.

- ④ 제주 목사 이종윤에게 下書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군자가 도를 배우면 사람을 사랑하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부리기가 쉽다.’ 하였으니, 학문의 공이 크다. 本州는 정의·대정 등 세 읍과 더불어 멀리 바다 가운데에 처해 있어 학문에 힘쓰는 자가 대개 적은데, 이는 오직 가르치고 인도할 방도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서책도 또한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 제수한 판관 김익겸은 비록 출신이 무과이나 일찍이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므로, 제생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다. 이제 <사서>와 『모시』, 『소학』 각 3권을 보내니 그대는 김익겸 및 3읍의 교수·훈도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장려하고 권면하여 인재를 양성하라.” 하였다.13)

12) 『新增東國輿地勝覽』 제주목 학교조 ‘... 金處禮碑我 太祖元年 壬申學校成 世宗十七年乙卯 鄉校再造 成化丙戌春 完山李公由義 膺節制之命 首謁文廟 痛其樑壞 慨然欲新 謀諸判官長與李仁忠 遂下營卒 隨番供事 令教授官文紹祖董之 士投業而奔走 工殫巧以經營 使相每於公暇 親臨指揮 於是廟廡齋舍門墻堂屋躡豆簞簋几案位版廚庫廡廁庭除道路 不出數旬 煥然一新 鄉人父老學生冠童 耳目爭賀 學業相勸 且曰 使相之功 州之所無 盍刊諸石 以示于後 囑處禮銘之 處禮爲之言曰 學校興廢 大關治道之盛衰 覺舍旣修 學規當新 爲師者 誠能奉世宗特賜之書籍 將聖賢折中之經典 使諸生口誦心惟 朝益暮習 揭晦翁白鹿洞規 景仰不已 察使相重修美意 灑掃無斁 知行並進 聖賢可期 ... ’

13) 『성종실록』 권282, 24년 9월 8일 기해조, ‘下書濟州牧使李從允曰: 古人云, ‘君子學道則愛人, 小人學道則易使.’ 學問之功大矣. 本州與旌義, 大靜等三邑, 邈處海中, 務學者蓋寡, 非唯訓迪之無方, 書冊亦不易得. 新授判官金益謙, 雖出身武科, 曾中生員, 可以訓誨諸生者也. 今付四書, 《毛詩》, 《小學》 各三件以送, 爾其與益謙及三邑教授, 訓導, 協心獎勸, 養育人才.’

앞에서 언급한 세종조의 사료와 함께 생각해 보면 제주의 지형적 특징과 유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즉, 원거리라는 지리적 소외가 학문의 파급을 막는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이에 더불어 서책의 확보에도 상당한 장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육지나 조정에서의 서책 보급은 제주의 흥학에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한 자극도 읽을 수 있겠다.

중종 12년(1517)에는 제주 목사 문계창이 『효경』, 『소학』, <사서>를 요청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제주 목사 문계창이 아뢰기를, “들으니, 本州는 수년간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 하오니, 전라도 미곡을 운반해서 구제하기를 청합니다. 또 본주는 비록 학교가 설치되었으나 서책이 오래되어서 떨어졌다 하오니, 『효경』, 『소학』, <사서>를 가지고 가서 가르치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또 본주 민간에는 질병이 많다 하오니, 당약재를 가지고 가서 구료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곡식을 운반해서 백성을 구제하는 일은 該曹에 말하라. 학교를 일으키는 일은 내가 이미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본주는 외딴 섬이라 비록 교수와 훈도를 둔다 하더라도, 누가 성의를 다해서 가르치려고 하겠는가? 지금 서책을 싸가지고 가서 가르치려 하는 것은 나의 마음에 일치되는 일이니, 가서 힘을 다해라. 의약의 일도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¹⁴⁾

이 기사는 문계창 목사가 제주에서 벌어진 기근과 역병을 보고하면서 전라도의 미곡 및 당약재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더불어 향교의 서책이 오래되었으므로 『효경』, 『소학』, <사서>를 보내 가르치길 요청했다. 시급했던 당시의 정황을 정부에 보고한 것이며, 흉년대책 외에도 서책요구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회답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방의 성리학 이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14) 『중종실록』 권31, 중종 12년 윤12월 7일 무인조, ‘濟州牧使文繼昌啓曰: 聞本州數年失農, 民庶乏食. 請運全羅道米穀以濟之. 且本州雖設學校, 書冊年久剝弊. 請齎持 <孝經>, <小學>, 四書而往, 以教之. 且本州民間, 多有疾病. 請齎唐藥材以救之. “傳曰: 移粟賑民事, 當言于該曹. 興學校事, 予意已欲言之. 本州絕島也, 雖置教授, 訓導, 孰肯致意而教之乎? 今欲齎書冊而教之, 允副予心, 往哉盡力. 醫藥事, 亦依啓.’

었다고 할 수 있다. 현종 13년(1672)에는 호남감사에게 명하여 <경서>를 인쇄해 제주에 보내게 하였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 ⑥ 호남 감사에게 명하여 <경서>를 인쇄해서 제주에 들여보내게 하였다. 이에 앞서 조정이 어사 李夏를 제주에 보내 수령을 염찰하고 풍속을 알아보게 하였는데, 이하가 돌아와 말하기를 ‘외딴 곳이라서 서적이 많지 않으니 <경서>를 인쇄해 보내 선비 기풍을 진작시키자.’고 하였으므로 이때 와서 들여보냈다.¹⁵⁾

기록을 확인하면 제주가 외딴 곳이라 서적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호남감사에게 명하여 <경서>를 인쇄해 제주에 보내게 한 내용이다. 중앙정부는 사전에 李夏를 제주宣諭御使로 삼아¹⁶⁾ 제주의 상황을 보고하게 해서, 제주의 사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는 제주가 잉류지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매우 제한적이지만 서적과 출판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앙의 지방에 대한 관심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보급한 서적은 대부분이 유학서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의약서로는 세조 12년(1466) 8도에 『救急方』을 보급한 사례가 있다.

- ⑦ 8도에 『구급방』을 각기 2건씩 하사하였다.¹⁷⁾

『구급방』은 초간본이 전하지 않으며 국내에는 완질이 없고 상권 1책만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그 내용은 총 36가지의 구급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⁸⁾ 당시 제주는 전라도 소속이었지만 8도에 『구급방』을 2건씩 하사할 때 제주 역시 보급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시대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耽羅志』(1653)의 책판목록에 『구급방』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제주 역시 세조 12

15) 『현종실록』 권20, 현종 13년 윤7월 17일 경인조, ‘命湖南道臣印經書, 入送濟州. 先是, 朝廷送御史李夏于濟州, 廉察牧守, 咨訪風俗, 夏還言: “別區, 書籍不多, 請印送經書, 以振土風.” 至是, 入送.’

16) 『현종실록』 권19, 현종 12년 8월 11일 기축조, ‘以李夏爲濟州宣諭御史.’

17) 『세조실록』 권39, 세조 12년 6월 13일 임자조, ‘賜八道救急方各二件.’

18) 최미화, ‘조선시대 『救急方』과 『診解救急方』 비교 연구’, 동국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8쪽.

년에 보급받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재판제도와 범죄수사가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행해졌을 것이라고 치부되지만 조선시대에도 나름의 엄격한 법집행을 위한 절차와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조선시대 사법제도 개혁의 움직임은 영·정 조대에 이르러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18세기에 활발한 법전 편찬과 법률 서적의 보급으로 이루어졌다.¹⁹⁾ 세종 21년(1439)에 대표 법의학서이자 檢屍지침서인 『無冤錄』을 인쇄하여 널리 반포하게 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⑧ 대저 『무원록』은 刑獄을 다스리는 자의 指南이다. 만일 초,복검이 한번 失錯하면 비록 고요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더라도 반드시 그 요령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刑獄의 어그러짐이 대개 이로 말미암는 것이다. 오직 우리 전하께서 이를 깊이 생각하시고 문신들에게 명하여 『註釋無冤錄』을 가져다가 다시 살피고 訓釋을 가하도록 하고 또 檢屍格例와 屍狀式을 추출하여 별도의 표로 간행하였다. 그렇게 한 연후에 비로소 책을 열어 보니 일목요연하기가 손바닥을 보는 것 같았다. 때는 기미년 봄, 강원도 감사 유효통에게 명하여 이를 인쇄하여 널리 반포하도록 하므로 工匠과 목재를 모아들여 장차 원주에서 간행하려고 했으나 당시에 農務가 점차 많아지므로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遞職되었다.

신 최만리가 이를 계승하여 늦은 가을에 일을 시작하여 늦겨울에 일을 마치게 되었다, 오호라. 이 책이 원래 元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제 조선에서 주해를 달자 명백해지게 된 것이다. 刑獄을 다스리는 자들이 진심을 다해 이에 근거하여 검험한다면 거의 적중하고 백성들이 원통함이 없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임금의 백성을 사랑하고 형률을 신중하게 하려는 뜻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다.²⁰⁾

위 기록은 『新註無冤錄』의 최만리 발문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무원록』은 원에서 수입된 서적으로 법의학의 지침서이지만 독해가 어려웠고 중국의 법의학 제도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조선에서 활용되기 불편했다. 때문에 세종은 『무원록』

19) 심재우, 「조선후기 人命 사건의 처리와 檢案」, 『역사와 현실』 23호, 한국역사연구회, 1997, 219 쪽.

20) 『新註無冤錄』, 『跋文』(서울대학교 규장각 <규 2216> 본 참조)

의 조선관 간행과 주석작업을 명하게 되었다. 위 사료에서 ‘『註釋無冤錄』을 가져다가 다시 살피고 訓釋을 가하도록 하고 또 檢屍格例와 屍狀式을 추출하여 별도의 표로 간행’하도록 했는데 이 별도의 표는 바로 「검시장식」을 의미한다. 『무원록』과 별도로 만들어진 검시장식이 단지 간단한 표였다면 「檢屍狀式」은 검시내용을 한 종이에 정리한 공문서, 즉 屍帳이다.²¹⁾ 『新註無冤錄』의 간행 도중에 곧바로 「檢屍狀式」을 인쇄하여 배포하게 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⑨ 한성부에 명하여 「檢屍狀式」을 간행하게 하고, 또 각도 관찰사와 제주 안무사에게 전지하여 板을 새겨서 인쇄하여 도내 각 고을에 반포하게 하였다.²²⁾

위 기록은 세종 21년(1439)에 「검시장식」을 한성부에서 간행한 후, 제주에서 직접 간행하게 한 사례이다. 「검시장식」은 실제 檢屍 현장에 가지고 나가서 사체의 손상부위 등을 직접 기록하는 공문서이다. 『무원록』에 근거하여 검시절차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문서 양식이다. 이 기록에서 주목할 점은 「검시장식」을 제주에서 직접 판각해 인쇄하게 한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사료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주는 중앙정부에서 서적을 보급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세종 21년(1439)에는 제주에서 직접 판을 새기도록 명한 것을 보면, 당시 제주지역 역시 인쇄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숙종 26년(1700)년에는 『大典續錄』과 『무원록』을 중앙정부에 청하고 서책을 제주에 보관하도록 한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⑩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이때 제주 목사가 비국에 급히 장계를 올리고, 『大典續錄』과 『無冤錄』 등 올문에 관한 책을 얻으려고 요청하였는데, 영의정 서문중이 책판이 있는 곳에 시켜서 인쇄해 보내도록 청하고, 이어 아뢰기를, “제주에 곧 병화가 미치지 않는 곳이므로 옛날부터 공사의 서적을 간수해 두었는데, 중간에 폐지되어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1) 김호, 「『新註無冤錄』과 조선전기의 檢屍」, 『법사학연구』 제27호, 한국법사학회, 2003, 221쪽.

22) 『세종실록』 권84, 21년 2월 6일 을묘조, ‘命漢城府刊行檢屍狀式, 又傳旨各道觀察使及濟州安撫使刊板撰印頒諸道內各官’

지금부터는 서책을 인출할 때마다 도서관에서 1권씩 인쇄해 보내어서 간수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하니, 임금의 옳게 여겼다.²³⁾

위 기록을 살펴보면, 숙종 26년(1700)년에 법전인 『大典續錄』과 법의학서인 『무원록』을 제주목사가 중앙정부에 요청하자, 책판이 있는 지역에 시켜 인쇄해 보내도록 명했다. 또한 영의정 서문중이 도서관에서 서책을 인출할 때마다 병화가 미치지 않는 제주에 보관하도록 청하는 내용이다. 당시 제주목사는 남지훈으로 급하게 『大典續錄』과 『무원록』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당시 그 서적의 중요도를 짐작할 수 있다. 『大典續錄』은 『經國大典』 이후 성종 22년(1491)까지의 현행 법령을 수집해 편찬한 공법전이다. 『經國大典』 시행 후 새 법령들이 제정되었지만 법의 시행에 차질을 가져왔기 때문에 영구히 시행할 만한 법령을 뽑아 다듬고 증감한 것이다.

위 기록에서 제주목사가 서책을 요청하자 책판이 있는 지역에서 인쇄를 하도록 명한 것을 봐서 당시 중앙정부와 지방과의 서적간행 관계체제를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사료 ⑧ 『新註無冤錄』의 최만리 발문에서도 강원도 감사 유효통에게 명하여 서적인쇄를 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듯이, 중앙정부는 전국에 반포할 서적이 있으면 지방에 책판인쇄를 명하기도 했다.

영조 24년(1748)에는 『무원록』을 重刊하여 팔도에 반포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無冤錄』을 重刊하여 팔도에 반포하였다. 처음 각 도 각 고을에 모두 『무원록』이 있어 殺獄의 檢驗에 憑考했었는데, 字句가 어긋난 것이 많아서 중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좌의정 조현명이 건청하기를, “『洗冤錄』·『平冤錄』과 『未信編』 등의 책을 가지고 참고하고 釐正하여 諸道에 刊布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²⁴⁾

23) 『숙종실록』 권34, 숙종 26년 2월 17일 임오조, ‘引見大臣, 備局諸臣. 時, 濟州牧使馳狀備局, 請得《大典續錄》, 《無冤錄》律文等書, 領議政徐文重請令有冊板處印送, 仍言: “濟州, 乃兵火所不及之地, 公私書籍, 自古藏置, 而中廢不行. 自今每於書冊印出時, 自校書館印送一件, 藏置之似宜.” 上可之.’

24) 『숙종실록』 권68, 영조 24년 9월 9일 경신조, ‘重刊《無冤錄》, 頒布八道. 初各道, 各邑皆有《無冤錄》, 憑考於殺獄檢驗, 而字句多舛誤, 間多難解. 左議政趙顯命建請: “以《洗冤錄》, 《平冤錄》及《未信編》諸書, 參互釐正, 刊布諸道.” 上從之.’

위 기록과 같이 법의학서인 『무원록』은 여러번 개정되고 팔도에 반포되었다. 당시 전라도 소속이었던 제주지역도 『무원록』을 보급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각 도 각 고을에 있었다는 점과 숙종 26년(1700)년에 제주목사가 『무원록』을 청한 점으로 보아 필수서적임에는 틀림없다.

정조 5년(1781)에는 『明義錄』의 속편인 『續明義錄』을 제주목에 반포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⑫ 『續明義錄』을 제주목에 반포하였다. 하교하기를, “이번에 어사가 내려갈 때에 가지고 갈 宣諭文은 마땅히 御製로 지어 내리겠다. 지어 내리기를 기다려, 眞書와 諺文으로 번역 謄書하여 閣臣 가운데 奉敎가 有旨를 써서 호남의 도백과 御史에게 하송하게 하되, 그날로 入刻하게 함으로써 어사가 가는 길에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라는 내용으로 분부하라.”하였다. 조금 있다가 연교가 있었는데, 『續明義錄』 50건, 언해 1백 건, 『原明義錄』은 언해를 갖추어 3건으로 하되, 또한 御寶를 찍어 有旨를 만들어 어사에게 내려 보내게 하였다.²⁵⁾

『明義錄』 4종(元集·元集諺解·續集·續集諺解)은 정조 즉위년(1776)에 정조의 대리청정을 반대하던 홍인한, 정후겸 등을 賜死한 일을 기록한 책이다. 역모사건을 진압하면서 충역시비를 明辯하고자 편찬한 것이며 국왕의 정통성을 천명하는 왕실역사서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했다. 이미 『명의록』을 두 차례나 간행할 즈음에는 더이상 왕권에 대한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명의록』의 위상을 우리나라의 『春秋』로 격상시켰다.²⁶⁾ 더욱이 속편인 『續明義錄』을 제주목까지 반포한 사례는, 서적반포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중앙정부는 15세기에 제주를 포함한 팔도에 다량의 유학관련서적을 보급했고 18세기까지도 특정목적에 의해 서적을 꾸준히 보급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제주 지역 서적관련 기사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

25) 『정조실록』 권11, 정조 5년 6월 20일 신묘조, ‘頒 <續明義錄> 于濟州牧. 敎曰: “今番御史下去時, 宣諭文, 當以御製製下. 待製下, 眞諺翻謄, 閣臣中奉敎書, 以有旨下送完伯及御史處, 使之即日入刻, 御史行中賚去之意, 分付.” 俄有筵敎, <續明義錄> 五十件, 諺解一百件, <原明義錄> 具諺解三件, 亦爲安寶成, 有旨下送于御史處.’

26) 김백철, 「정조 초반 『명의록』과 왕권의 위상 - 만들어진 이미지와 실상의 경계」, 『대동문화연구』 95호, 2016, 177쪽.

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제주지역 서적관련 기사

일시	서책명	분류	서적하사 이유	수령대상	간행자
1 세종 17년(1435)	『대학』	經部	화재로 문적 소실	제주향교	
	『중용』	經部			
	『논어』	經部			
	『맹자』	經部			
	『시경』	經部			
	『서경』	經部			
	『예기』	經部			
	『역경』	經部			
	『춘추』	經部			
	『성리대전』	史部			
	『소학』	經部			
2 세종 21년(1439)	「검시장식」	-			각도 관찰사, 제주 안무사
3 세조 12년(1466)	『구급방』	子部		8도	
4 성종 24년(1493)	<사서>	經部	서책구하기 힘듦, 인재 양성	제주목사 이종윤	
	『모시』	經部			
	『소학』	經部			
5 중종 12년(1517)	『효경』	經部	서책 낡고 부족	제주목사 문계창	
	『소학』	經部			
	<사서>	經部			
6 현종 13년(1672)	<경서>	經部	서적 부족		호남감사
7 숙종 26년(1700)	『대전속록』	史部	제주목사 (남지훈) 요청		책판소장지역
	『무원록』	子部			
8 정조 5년(1781)	『속명의록』	史部	왕권 정통성	제주목	
	『속명의록언해』	史部			
	『원명의록·언해』	史部			

<표 1>의 내용과 같이 제주는 서적부족의 이유로 중앙정부에 서적을 요청했고 대부분이 經部인 유학서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적요청과 수령대상은 대부분 제주목사이다. 현종 13년(1672)에 호남감사에게 명하여 <경서>를 인쇄해서 제주에 들여보내게 하거나, 숙종 26년(1700)에 책판이 있는 곳에 명해 『대전속록』과 『무원록』을 인쇄해 제주에 보내도록 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는 다른 지역 감영에 인쇄를 명해 제주에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세종 21년(1439)에 제주에 직접 판을 새겨 「검시장식」을 인쇄하도록 한 사례가 있어 당시 제주가 출판기술을 보유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Ⅲ. 조선 후기 제주의 시기별 책판목록 내용

조선시대 조정에서는 목판본을 인출하는 책판을 관리하기 위해서 역대의 판목을 조사하여 책판목록을 작성하였다. 책판에 관한 기록은 책판을 소장하고 있는 고을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보다도 조정에서 각 도의 감영으로, 그리고 각 감영에서 각 고을로 연락하여 보고하게 한 경우가 더 많았다.

책판목록이 남아있는 자료 중에는 지지나 읍지도 있다. 이는 각 고을에서 과거로부터 이어온 전통에 따라 작성한 그 고을의 지지 또는 읍지의 일부 항목으로 책판의 소장기록을 남긴 것이다. 주로 책자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그 관아에서 소장한 책판이나 그 밖의 판목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이 전사되어서 여러 가지 책판목록을 편찬하는데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²⁷⁾ 책판목록은 각 지방의 출판활동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대부분 조선후기의 지지류에 수록되어 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주 역시 조선후기의 읍지류에 대부분 책판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제주의 책판목록을 분석하기 위해, 8도 책판목록이 수록된 『攷事撮要』, 『古冊板有處攷』, 『林園十六志 京外鏤板』, 『鏤板考』를 활용했다. 제주읍지류로는 제주책판고가 수록된 『耽羅志』(1653, 이원진), 『耽羅誌』(미상, 일본동경대학소장), 『濟州邑誌』, 『濟州大靜旌義邑誌』, 『耽羅誌草本』을 활용했다. 이 외 책판목록이 수록되어있진 않지만 책판간행에 관한 기록은 『南槎日錄』, 『知瀛錄』, 『濟州郡邑誌·大靜郡邑誌·旌義郡邑誌』를 참고했다. 제주의 책판목록분석은 선행연구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료를 재확인했고, 선행연구에서 누락된 『增補耽羅誌』, 『耽羅錄』, 『耽羅觀風案』, 『耽羅紀年』을 추가해 목록을 재정리했다. 또한 앞선 연구에서 착오로 여겨지는 책판명과 책판종수를 수정했다.

우선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책판목록이 수록된 사료는 아래 <표 2>와 같다.²⁸⁾

27) 옥영정, 「조선시대 후기 책판에 대한 공식기록 -서유구 외, 누판고-,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2006, 216~217쪽.

28) 본 표는 ‘윤봉택,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48쪽’을 참고하여 목록을 추가·재정리했다.

<표 2> 제주지역 책판목록이 수록된 사료

	사료명	저자	편찬시기	책판종수
1	『攷事撮要』	어숙권	선조 18년(1585)	2종
2	『耽羅志』	이원진	효종 4년(1653)	41종
3	『耽羅誌』	미상	미상, 일본동경대학소장	41종
4	『南槎日錄』	이증	1680년대	-
5	『知瀛錄』	이익태	숙종 22년(1696)	10종
6	『增補耽羅誌』	윤시동	영조 41년~42년(1765~1766)	38종
7	『古冊板有處攷』	미상	영조 52년(1776) 이전	35종
8	『濟州邑誌』	미상	정조4년~13년(1780~1789)	35종
9	『濟州大靜旌義邑誌』	미상	1793년 추정	29종
10	『林園十六志 京外鏤板』	서유구	정조 20년(1796) 이전	17종
11	『鏤板考』	서유구	정조 20년(1796)	20종
12	『耽羅誌草本』	이원조	헌종 7년(1841)	36종
13	『耽羅錄』	이원조	1843	8종
14	『濟州郡邑誌·大靜郡邑誌·旌義郡邑誌』	미상	1899	-
15	『耽羅觀風案』	김석익	1916	-
16	『耽羅紀年』	김석익	1918	-

<표 2>와 같이 16~17세기의 책판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 『攷事撮要』, 『耽羅志』가 있고 18~19세기 책판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 『增補耽羅誌』, 『古冊板有處攷』, 『濟州邑誌』, 『濟州大靜旌義邑誌』, 『林園十六志 京外鏤板』, 『鏤板考』, 『耽羅誌草本』이 있다. 이 외 책판목록이 수록되어있진 않지만 책판간행에 관한 기록은 『南槎日錄』, 『知瀛錄』, 『濟州郡邑誌·大靜郡邑誌·旌義郡邑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 16~17세기 책판목록의 내용과 분류

1) 『攷事撮要』(1585) 책판목록

『고사촬요』 책판목록은 조선 最古의 책판목록이다. 이 책판목록은 조선 최초의 도서 목록으로 여기에 수록된 책판은 모두 989종이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전 각 지방에서 발간된 도서의 간행지와 간행 연도를 추정하고 散佚된 도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개관기술은 八道程途에서 경기도, 충청도, 황해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함경도 순으로 구분하고, 그 아래에 각 지방별로 세분해서 그 지방까지의 距離數, 別號를 개재한 다음, 책판의 서명을 간략하게 나열하고 있다. 배열에는 별다른 체계가 없다.²⁹⁾

임진왜란 이전의 책판을 수록하고 있는 현전 유일의 자료지만, 국가적으로 간행이 허용된 서적에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사찰 소장 책판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고 책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선 전기 목활자로 인출된 서적은 확인할 수 없다. 『고사촬요』에 수록된 제주지역 책판은 <표 3>과 같이 『浣花流水』, 『東國史畧』 2종이 수록되어 있다.³⁰⁾

<표 3> 『放事撮要』(1585)에 수록된 제주지역 책판목록

	구분	책판명	분류 ³¹⁾	
1	서관	『완화유수』	子部	藝術類
2	책판	『동국사략』	史部	編年類

『완화유수』는 이후 『탐라지』(1653)에 서판류로 분류된 것으로 보아 글귀를 새긴 서판으로 보인다. 『동국사략』은 권근 등이 편찬한 역사서이다. 1402년 6월에 왕명으로 착수되어 이듬 해 8월에 완성되었다. 하륜·권근·이첨 등이 편찬에 참여했고, 권근이 그 주역을 담당하였다. 이 책은 편년체 사서로 주자의 綱目法에 따라 서술하고 그 세목을 작은 글씨로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로써 이 책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강목법을 따른 효시이기도 하다. 이 책에 나타난 역사의식은 태종대의 정치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태종과 그를 보좌한 권근·하륜 등은 성리학적 명분론을 강하게 표방함으로써 왕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³²⁾

29) 서지학개론편찬위원회, 『서지학개론』, 한울아카데미, 2004, 206쪽.

30) 『放事撮要』의 영인본은 ‘정형우, 윤병태, 『한국의 책판목록 上』, 보경문화사, 1995, 105쪽’에서 확인함. “八道程途 全羅道 十一日半程 濟州 ; … 冊板東國史畧 浣花流水”

31) 본고에서 책판분류는 중국의 서지학분류법인 經史子集의 四分法을 따라 분류했다.

32) 정구복, 「동국사략에 대한 사학사적고찰」, 『역사학보』 제68호, 1975 참조.

2) 『耽羅志』(1653) 책판목록

『탐라지』는 이원진이 1651년 제주목사로 부임 후, 『동국여지승람』을 참고로 하여 제주목의 제반 자료를 조사해 정리한 책이다. 『탐라지』 또한 제주목 개간의 목판본으로 개간과정이 간략히 기록되어 있다. 『탐라지』 창고조 책판고에는 소장책판을 책판류와 서판류로 구분하여, 총 41종의 책판이 수록되어 있고 그 내용은 <표 4>와 같다.³³⁾

<표 4> 『耽羅志』(1653)에 수록된 제주지역 책판목록

구분	책판명	분류	구분	책판명	분류
1	책판 『서전대문』	經部 書類	22	책판 『충암집』	集部 別集類
2	책판 『시전대문』	經部 詩類	23	책판 『동명집』	集部 別集類
3	책판 『논어』	經部 論語類	24	책판 『속칭구풍아초』	集部 總集類
4	책판 『맹자』	經部 孟子類	25	책판 『가례』	經部 禮類
5	책판 『중용』	經部 中庸類	26	책판 『동자습』	經部 小學類
6	책판 『대학』	經部 大學類	27	책판 『동몽선습』	經部 小學類
7	책판 『소학』	子部 小學類	28	책판 『유합』	經部 小學類
8	책판 『효경』	經部 孝經類	29	책판 『정속』	子部 小學類
9	책판 『중용언해』	經部 中庸類	30	책판 『격몽요결』	子部 小學類
10	책판 『대학언해』	經部 大學類	31	책판 『구급방』	子部 儒家類
11	책판 『소학언해』	子部 小學類	32	책판 『경험방』	子部 醫家類
12	책판 『십구사략』	史部 別史類	33	책판 『마우방』	子部 醫家類
13	책판 『당시절구』	集部 總集類	34	책판 『탐라지』	史部 地理類
14	책판 『삼운통고』	經部 小學類	35	서판 『춘중』	子部 藝術類
15	책판 『장감박의』	子部 兵家類	36	서판 『적벽부』	子部 藝術類
16	책판 『옥호빙』	集部 總集類	37	서판 『등왕각서』	子部 藝術類
17	책판 『목민심감』	史部 職官類	38	서판 『안화유수』	子部 藝術類
18	책판 『병학지남』	子部 兵家類	39	서판 『초천자』	子部 藝術類
19	책판 『전등신화』	集部 小說類	40	서판 『퇴계서』	子部 藝術類
20	책판 『천자』	經部 小學類	41	서판 『청선서』	子部 藝術類
21	책판 『포은집』	集部 別集類			

<표 4>의 내용과 같이 『耽羅志』(1653)에 수록된 제주지역 책판목록은 총 41종으로 經部가 총 15종, 史部는 3종, 子部은 16종, 集部는 7종이다. 책판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650년대 제주목에는 지방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유학관련 책판이 주

33) 이원진, 『탐라지』, 倉庫, ‘冊板庫 在鄉校 書傳大文 詩傳大文 論語 孟子 中庸 大學 小學 孝經 中庸諺解 大學諺解 小學諺解 十九史略 唐詩絕句 三韻通考 將鑑博議 玉壺水 牧民心鑑 兵學指南 剪燈新話 千字 圃隱集 冲庵集 東溟集 續靑丘風雅抄 家禮 童子習 童蒙先習 類合 正俗 擊蒙要訣 救急方 經驗方 馬牛方 耽羅志 書板 春種 赤壁賦 藤王閣序 浣花流水 草千字 退溪書 聽蟬書.’

를 이루고 있다. 이 외 문집, 의학, 병학, 예술 등 다양한 책판류도 확인된다. 또한 글씨를 판각한 서판이 여러 종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탐라지』는 당시 제주의 책판목록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제한된 책판이 많아 수록목록이 적었던 『고사촬요』보다 다양한 책판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유학정책으로, 經部인 사서 및 『효경』 그리고 언해본 등의 유학류 책판이 가장 많고 『천자』, 『동자습』, 『동몽선습』, 『정속』, 『격몽요결』 같은 입문서의 책판 종도 다수가 있다. 史部로는 중국의 太古에서부터 元까지의 19사를 요약한 사서인 『십구사략』과 읍지인 『탐라지』가 있다. 子部로는, 앞서 실록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구급방』, 『경험방』, 『마우방』과 같은 의학류가 있다. 그리고 예술류로 『춘중』, 『적벽부』, 『등왕각서』, 『완화유수』, 『초천자』, 『퇴계서』, 『칭선서』가 있는데 글씨를 판각한 서판이다. 集部로는 문집류로 『포은집』, 『충암집』, 『동명집』이 확인된다. 이 외 몇가지 책판의 내용³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운통고』는 金의 王文都이 지은 『禮部韻略』을 우리나라 사람이 이용하기 편하게 개편한 것으로, 편자와 연대는 알 수 없다. 내용은 평·상·거·입성 등 四聲 순으로 한자를 배열한 106운계 『禮部韻略』에서 같은 운을 가진 평·상·거성 한자들을 한 데 모아 3계단으로 나열하고, 입성자만 책 끝에 따로 모아 나열했다. 이 책은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 운학자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³⁵⁾

『장감박의』는 중국 전국 시대의 병법가이자 전략가인 손무로부터 시작하여 五代의 곽송도에 이르기까지 역대의 명장에 대하여 그들의 재주의 고하, 전략 및 지략의 장단 등을 논한 책이다. 무장들의 필독서로 이용되었으며, 세종 때에는 이를 주석하여 변경의 장수들에게 널리 반포하기도 하였다.

『옥호빙』은 명나라 문신·학자인 도목이 31종의 서적에서 高士들에 얽힌 기록을 중심으로 글 65조목을 발췌해 수록한 책이다. 조선에는 선조 39년(1606) 사신으로 왔던 朱之蕃이 遠接使 유근의 종사관이었던 허균에게 선물하면서 처음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목민심감』은 태종때 명나라로부터 전래되어 온 수령들의 지침서이다. 수령이 부

34) 앞으로 나열한 서책 해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해제검색”을 주로 활용했다. 각주를 달지 않은 해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해제”출처이다.

35) 강신항, 「한국 운서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 『성균관대학교 논문집』 14호, 성균관대학교, 1969년. 참조.

임지에 도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수령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대민업무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령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서술했다. 이 『목민심감』은 조선 초에 守令七事가 정착되면서 ‘治民切要之書’로 각광을 받아 국내에 유포하게 되었다.³⁶⁾

『병학지남』은 임진왜란 이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군대 조련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16세기 명나라 장수 척계광이 지은 『紀效新書』를 요약하여 편찬한 병서이다. 군대의 조련, 진을 치는 법, 행군하는 법, 호령에 따라 움직이는 법 등에 대한 규정이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있어 17세기 이후로 조선 練兵의 기본 지침서로 사용되었으며, 각 병영에서 복각되어 많은 이본이 전한다.

『전등신화』는 명나라 瞿佑의 단편 전기소설집으로 당나라 때의 소설을 본떠 고금의 괴담기문을 엮어서 쓴 전기소설로서 명대의 유일한 문어체 소설집이다. 이 책은 일찍이 조선에 들어와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 대표적인 소설이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있다.

『속청구풍아초』는 조선 중기에 유근이 편찬한 시선집으로 정확한 간행연도는 알 수 없다. 성종 때에 김종직이 편찬한 『靑丘風雅』를 속선한 것으로 우리 나라 명시를 모아 비평과 주석을 곁들인 책이다.

『유합』은 아동용 한자입문서로서, 조선 초기부터 널리 읽혀 왔고 편저자와 편찬연대가 미상이다. 후에 미진한 것을 보완하면서 유희춘이 재편집하여 선조 9년(1576)에 서문을 곁들여서 『신증유합』이라는 이름으로 官板을 냈다.

3) 『知瀛錄』(1696) 책판목록

『지영록』은 이익태가 제주목사에 제수를 받고 난 후 임기를 다하고 체거될 때까지 2년동안의 기록을 1696년에 필사한 것이다. 『지영록』에는 구체적 책판목록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화재 후 새로 조성한 몇 종의 책판과 책판제작과정을 간략히 기록했다. 앞서 본 『탐라지』에 기록된 책판 수에 비해 책판이 적은 이유는 숙종 3년(1677) 화재로 대부분의 책판이 소실됐기 때문이다.³⁷⁾ 『지영록』에 기

36) 김성준, 『『牧民心鑑』과 『居官要覽』의 비교연구』, 『동방학지』 62권,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1989, 6쪽.

37) 이증, 『南槎日錄』, 公廨, ‘冊板庫 丁巳失火諸冊板□燒云.’

록된 책판목록³⁸⁾은 아래 <표 5>와 같다.³⁹⁾

<표 5> 『知瀛錄』(1696)에 나타난 제주지역 책판목록

	구분	책판명	분류		비고
1	책판	『대학언해』	經部	大學類	책판 보관할 장각이 없어 제주향교 동재에 보관
2	책판	『중용언해』	經部	中庸類	
3	책판	『논어언해』	經部	論語類	
4	책판	『맹자언해』	經部	孟子類	
5	책판	『의례문해』	經部	禮類	
6	책판	『전등신화』	集部	小說類	
7	책판	『사략』	史部	別史類	향교교생요청으로 인쇄. 3질씩 찍어 삼읍향교에 나누어줌
8	책판	『소학언해』	子部	小學類	
9	책판	『상례비요』	經部	禮類	
10	서판	『선묘어필대자초서』	子部	藝術類	

『지영록』에 나타난 제주지역 책판목록은 10종으로 經部 6종, 史部 1종, 子部 2종, 集部 1종이다. 『지영록』은 이전 『탐라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책판들이 1677년 화재로 모두 소실된 후 이익태가 제주목사로 부임한 1694년 이후에 판각되었다. 역시 <사서> 및 『대학』의 언해와 같은 유학류 책판이 다수인데 제주향교 교생들의 요청에 의해 판각된 것이다. 이 외 몇가지 책판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례문해』는 김장생이 문인 및 친구와 예에 대하여 문답한 것을 481개 항목으로 수집 정리한 禮書이다. 김장생이 찬술하고, 그의 사후에 아들 김집이 교정하고 편집하여 인조 24년(1646)에 간행하였다

『상례비요』는 제주향교 교생들의 요청으로 판각했다. 조선 중기학자 신의경이 『家禮』의 원문을 위주로 하고 고금의 諸家禮說을 참고하여 만든 喪禮書이다. 김장생이 신의경의 원본을 증보하고 그 뒤 김집이 다시 교정을 가하여 간행했다.

38) ‘윤봉택,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연구에서는 四書, 『診解疑禮問解』, 『小學』, 『診解喪禮備要』 등으로 책판명을 기록했는데, 본고에서는 四書診解, 『疑禮問解』, 『小學診解』, 『喪禮備要』 등의 책판명으로 수정했다.

39) 이익태, 『知瀛錄』, 增減十事, ‘… 四書俱診解疑禮問解剪燈新話史略等板而無藏閣權 置於鄉校東齋 … 一立欲刊小學及診解喪禮備要等 … 宜廟御筆大字草書八帖入梓而新刊小學及喪禮印 出三件粧冊分上三邑鄉校.’

2. 18 ~ 19세기 책판목록의 내용과 분류

1) 『增補耽羅誌』(1765, 일본 천리대학교도서관 소장본) 책판목록

『증보탐라지』는 윤시동 제주목사가 영조 41년(1765) 8월에 제주목의 書員들에게 편집하게 한 읍지로 선행연구에서는 누락되었다. 『증보탐라지』는 이원진 목사가 1653년 편찬한 『탐라지』에 항목을 추가·보완한 것으로 책판목록 또한 추가해서 기록했다. 『증보탐라지』 창고조 책판고에 보완한 목록은 <표 6>과 같다.⁴⁰⁾

<표 6> 『增補耽羅誌』(1765)에 나타난 제주지역 책판목록

	구분	책판명	분류		구분	책판명	분류
1	책판	『사략』	史部 別史類	20	책판	『밀산세고』	集部 別集類
2	책판	『통감』	史部 編年類	21	책판	『병학지남』	子部 兵家類
3	책판	『소학』	子部 小學類	22	책판	『병학홀기』	子部 兵家類
4	책판	『대학』	經部 大學類	23	도판	『지도』	史部 地理類
5	책판	『논어』	經部 論語類	24	책판	『삼국지』	史部 正史類
6	책판	『맹자』	經部 孟子類	25	서관	『전천자』	子部 藝術類
7	책판	『중용』	經部 中庸類	26	책판	『전등신화』	集部 小說類
8	책판	『소학언해』	經部 小學類	27	책판	『마의방』	子部 醫家類
9	책판	『대학언해』	經部 大學類	28	책판	『염초신방』	子部 藝術類
10	책판	『논어언해』	經部 論語類	29	서관	『안진경서』	子部 藝術類
11	책판	『맹자언해』	經部 孟子類	30	서관	『경재잠서』	子部 藝術類
12	책판	『중용언해』	經部 中庸類	31	서관	『선묘어필』	子部 藝術類
13	책판	『삼운통고』	經部 小學類	32	서관	『석봉서』	子部 藝術類
14	책판	『의례문해』	經部 禮類	33	서관	『실서집』	子部 藝術類
15	책판	『상례비요』	經部 禮類	34	서관	『춘중서』	子部 藝術類
16	책판	『예기천견록』	經部 禮類	35	서관	『출사표서』	子部 藝術類
17	서관	『천자』	子部 藝術類	36	책판	『격몽요결』	子部 小學類
18	책판	『유합』	經部 小學類	37	책판	『삼략』	子部 兵家類
19	책판	『영해장수록』	集部 總集類	38	책판	『동몽선습』	經部 小學類

40) 『譯註 增補耽羅誌』(일본 천리대학교도서관 소장본), 윤시동, 제주문화원, 2017, 倉庫, ‘… 補 在 舊 鄉 校 甲 辰 聖 廟 火 燹 時 多 被 燒 燼 今 見 存 者 史 略 通 鑑 小 學 大 學 論 語 孟 子 中 庸 小 學 諺 解 大 學 諺 解 通 鑑 諺 解 孟 子 諺 解 中 庸 諺 解 三 韻 通 考 疑 禮 問 解 喪 禮 備 要 禮 記 淺 見 錄 千 字 類 合 嶺 海 唱 酬 錄 密 山 世 稿 兵 學 指 南 兵 學 笏 記 地 圖 三 國 志 篆 千 字 剪 燈 新 話 馬 醫 方 焰 硝 新 方 顏 眞 卿 書 宣 廟 御 筆 石 峰 書 雪 峰 集 大 中 字 草 書 春 種 書 出 師 表 書 擊 蒙 要 訣 補 三 略 兵 學 指 南 乙 亥 牧 使 洪 壽 斗 新 刊 童 蒙 先 習 甲 申 牧 使 李 明 運 新 刊.’

<표 6>의 내용과 같이 『증보탐라지』에 수록된 제주지역 책판목록은 총 38종으로 經部가 총 15종, 史部는 4종, 子部는 16종, 集部는 3종이다. 위 사료들과 마찬가지로 유학관련 책판이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경종 4년(1724)에는 향교가 화재의 번고를 당해 많은 것들이 불에 타서 없어졌다고 증보했는데, 책판 역시 화재로 일부 몇 종이 소실되었다. 때문에 기존 『탐라지』 책판목록에서 몇 종이 삭제되거나 추가되었다.

『탐라지』에서 새로 추가된 책판목록은 『통감』, 『천자』, 『영해창수록』이다. 『병학지남』과 『삼략』은 영조 31년(1755)에 목사 홍태두가 새로 개간했고 『동몽선습』은 영조 40년(1764)에 목사 이명운이 새로 개간했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도판으로 여겨지는 『지도』 역시 책판목록에서 확인된다.

『통감』이나 『천자』와 같이 역사서나 서판 외 주목할만한 책판은 『영해창수록』이다. 『영해창수록』은 중종 35년(1540) 제주목사로 도입한 조사수와 중종 36년(1541) 영월군수로 부임한 박충원 두 사람이 수창한 시를 엮어낸 것이다. 박성석은 박충원의 후손으로 제주목사로 도입하자 선조 박충원의 문집을 제주목에서 간행한 것이다. 『영해창수록』은 제주개간책판 중 현전본으로 자세한 내용은 후술 하겠다.

2) 『古冊板有處攷』(1776년 이전) 책판목록

『고책판유처고』는 영조 52년(1776) 이전에 간행된 책판목록이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 함경도 등 전국 7도를 다시 고을 별로 나누어 다음 책판을 기록한 것으로 편자는 알 수가 없다. 기재사항이 일정하지 않으나 판의 파상 유무와 판의 소장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책판목록은 35종이 수록되어있고 대정현에도 책판 한 종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책판유처고』 책판목록에는 없었던 일본어학습서 『첩해신어』와 『안진경서』, 『경제잠서』, 『석봉서』 등의 서판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 『고책판유처고』에 수록된 책판목록은 아래 <표 7>과 같다.⁴¹⁾

41) 『古冊板有處攷』의 영인본은 ‘정형우, 윤병태, 『한국의 책판목록 下』, 보경문화사, 1995, 769~770쪽’에서 확인함.

<표 7> 『古冊板有處攷』(1776년 이전)에 나타난 제주지역 책판목록

	구분	책판명	분류		구분	책판명	분류
1	책판	『논어언해』	經部 論語類	19	서관	『천자板』	子部 藝術類
2	책판	『맹자언해』	經部 孟子類	20	책판	『신증유합』	經部 小學類
3	책판	『중용언해』	經部 中庸類	21	서관	『춘중』	子部 藝術類
4	책판	『대학언해』	經部 大學類	22	서관	『안진경서』	子部 藝術類
5	책판	『소학언해』	子部 小學類	23	서관	『경재잠서』	子部 藝術類
6	서관	『선묘어필초서板』	子部 藝術類	24	서관	『석봉서』	子部 藝術類
7	책판	『사략』 (*대정현에도 책판 보관)	史部 別史類	25	서관	『설봉서』	子部 藝術類
8	책판	『통감』	史部 編年類	26	서관	『전자板』	子部 藝術類
9	책판	『전등신화』	集部 小說類	27	서관	『태공사필板』	子部 藝術類
10	책판	『동몽선습』	經部 小學類	28	서관	『출사표』	子部 藝術類
11	책판	『격몽요결』	子部 小學類	29	서관	『초서대자중자』	子部 藝術類
12	책판	『상례비요』	經部 禮類	30	도판	『板지도』	史部 地理類
13	책판	『의례문해』	經部 禮類	31	서관	『마의』	子部 醫家類
14	책판	『예기친견록』	經部 禮類	32	서관	『병학지남』	子部 兵家類
15	책판	『삼국지』	史部 正史類	33	서관	『삼략』	子部 兵家類
16	책판	『삼운통고』	經部 小學類	34	책판	『염초신방』	子部 兵家類
17	책판	『영해창수록』	集部 總集類	35	책판	『첩해신어』	子部 譯學類
18	책판	『밀산세고』	集部 別集類				

<표 7>의 내용과 같이 『고책판유처고』에 수록된 제주지역 책판목록은 총 35종으로, 經部가 총 10종, 史部는 4종, 子部은 18종, 集部는 3종이다. 위 사료들과 마찬가지로 유학관련 책판이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우선, 수의학서인 『마의』는 『신편집성마의방』과 동일한 서책으로 보이며 일본어 학습서인 『첩해신어』와 함께 제주의 특성을 보여주는 책판이다. 이 두 책판은 현전본이 남아있고 간기에서 제주목개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도록 하겠다.

이 외 글씨를 판각한 서판종이 다수 보이는데 『안진경서』는 안진경의 글을 판각한 것이다. 중국의 楷書는 唐代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는데 이를 대표하는 사람이 안진경이고 그의 서법은 후세에 큰 영향을 남겼다. 『경재잠서』은 주자가 장경부의 『主一箴』을 보고 ‘敬’에 대하여 편집한 것이나, 그 후 宋의 왕백이 『敬齋箴』을 도식화하였으며 또 퇴계 이황이 『성학십도』 중에서 왕백의 『경재잠도』를 그리고 해설을 붙였다. 『설봉서』는 조선 후기의 문신인 강백년의 글을 판각한 것이고, 『출사표』는 明의 명필인 축운명의 글을 판각한 것이다.

『예기천견록』은 『예기』의 주석서로 태종 5년(1405) 처음 교서관에서 간행되었다. 이후 태종 18년(1418) 제주판관 하담이 권근의 手校本을 구해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이후 숙종 31년(1706) 제주목사 송정규가 향교에 보존되어 있던 간행본을 반각하여 간행하였다. 중간과 개간 모두 제주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현전본이 있어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다.

3) 『濟州邑誌』(1780~1789년 사이) 책판목록

『제주읍지』는 18세기 후반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17세기 사찬 읍지의 성과를 기초로 작성된 관찬 성격의 읍지이다. 『고책판유치고』의 책판목록과 동일하고 마찬가지로 대정현에도 책판 한 종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읍지』에 수록된 책판목록은 <표 8>과 같다.⁴²⁾

<표 8> 『濟州邑誌』(1780~1789년 사이)에 나타난 제주지역 책판목록

	구분	책판명	분류		구분	책판명	분류
1	책판	『논어언해』	經部 論語類	19	서관	『천자板』	子部 藝術類
2	책판	『맹자언해』	經部 孟子類	20	책판	『신증유합』	經部 小學類
3	책판	『중용언해』	經部 中庸類	21	서관	『춘중』	子部 藝術類
4	책판	『대학언해』	經部 大學類	22	서관	『안진경서』	子部 藝術類
5	책판	『소학언해』	子部 小學類	23	서관	『경제잡서』	子部 藝術類
6	서관	『선묘어필초서板』	子部 藝術類	24	서관	『석봉서』	子部 藝術類
7	책판	『사략』 (*대정현에도 책판 보관)	史部 別史類	25	서관	『설봉서』	子部 藝術類
8	책판	『통감』	史部 編年類	26	서관	『전자板』	子部 藝術類
9	책판	『전등신화』	集部 小說類	27	서관	『태공사필板』	子部 藝術類
10	책판	『동몽선습』	經部 小學類	28	서관	『출사표』	子部 藝術類
11	책판	『격몽요결』	子部 小學類	29	서관	『초서대자중자』	子部 藝術類
12	책판	『상례비요』	經部 禮類	30	도판	『板지도』	史部 地理類
13	책판	『의례문해』	經部 禮類	31	서관	『마의』	子部 醫家類
14	책판	『예기천견록』	經部 禮類	32	서관	『병학지남』	子部 兵家類
15	책판	『삼국지』	史部 正史類	33	서관	『삼략』	子部 兵家類
16	책판	『삼운통고』	經部 小學類	34	책판	『염초신방』	子部 兵家類
17	책판	『영해창수록』	集部 總集類	35	책판	『첩해신어』	子部 譯學類
18	책판	밀산세고	集部 別集類				

42) 『한국지리지총서: 읍지6, 제주도』, 제주읍지, 『濟州邑 冊板』, 『論語 孟子 中庸 大學 小學 具諺解板各一秩 宣廟御筆草書板 史略 通鑑 剪燈新話 童蒙先習 擊蒙要訣 喪禮備要 疑禮問解 禮記淺見錄 三國誌 三韻通考 嶺海唱酬錄 密山世稿 千字板 新增類合 春種書 顏真卿書 敬齋歲書 石峯書 雪峯書 篆字板 太公史筆板 出師表 草書大字中字板 地圖 馬醫 兵學指南 三略 焰焯新方 捷解新語板各一秩具』 한국학문헌연구소, 1983.

『제주읍지』는 앞서 살펴 본 『고책관유처고』의 책판목록과 동일하다. 『고책관유처고』에 수록된 제주지역 책판목록과 마찬가지로 총 35종으로, 經部가 총 10종, 史部는 4종, 子部는 18종, 集部는 3종이다. 제주·대정·정의 삼읍의 책판에 대해 각각 기록했는데 『고책관유처고』와 마찬가지로 대정현에도 『사략』 책판 한 종이 수록됐고 정의현에는 책판이 없다고 따로 기록했다.

4) 『濟州大靜旌義邑誌』(1793년 이후) 책판목록

『제주대정정의읍지』는 1793년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며 제주읍지와 마찬가지로 제주·대정·정의 삼읍의 책판에 대해 각각 기록했다. 『제주읍지』와 연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읍지』에 수록된 『병학지남』을 포함한 몇 종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제주대정정의읍지』에 수록된 책판목록은 <표 9>와 같다.⁴³⁾

<표 9> 『濟州大靜旌義邑誌』(1793년)에 나타난 제주지역 책판목록

	구분	책판명	분류		구분	책판명	분류
1	책판	『논어』	經部 論語類	16	책판	『삼국지』	史部 正史類
2	책판	『맹자』	經部 孟子類	17	책판	『삼운통고』	經部 小學類
3	책판	『중용』	經部 中庸類	18	책판	『영해창수록』	集部 總集類
4	책판	『대학』	經部 大學類	19	책판	『밀산세고』	集部 別集類
5	책판	『소학』	子部 小學類	20	책판	『천자문』	經部 小學類
6	서관	『선묘어필초서』	子部 藝術類	21	서관	『춘중첩』	子部 藝術類
7	책판	『사략』	史部 別史類	22	서관	『안진경첩』	子部 藝術類
8	책판	『통감』	史部 編年類	23	서관	『주자필경재잠』	子部 藝術類
9	책판	『전등신화』	集部 小說類	24	서관	『석봉첩』	子部 藝術類
10	책판	『동몽선습』	經部 小學類	25	서관	『설봉첩』	子部 藝術類
11	책판	『격몽요결』	子部 小學類	26	서관	『전천자문』	子部 藝術類
12	책판	『상례비요』	經部 禮類	27	책판	『삼략』	子部 兵家類
13	책판	『의례문해』	經部 禮類	28	책판	『염초신방』	子部 兵家類
14	책판	『예기천건록』	經部 禮類	29	책판	『첩해신어』	子部 譯學類
15	책판	『신증유합』	經部 小學類				

<표 9>의 내용과 같이 『제주대정정의읍지』에 수록된 제주지역 책판목록은 총 29종으로, 經部가 총 13종, 史部는 3종, 子部는 10종, 集部는 3종이다. 『제주대정

43) 『한국지리지총서: 읍지6, 제주도』, 제주대정정의읍지, 冊板, 『濟州邑 冊板(條) : 論語 孟子 中庸 大學 小學 宣廟御筆草書 史略 通鑑 剪燈新話 童蒙先習 擊蒙要訣 喪禮備要 疑禮問解 禮記淺見錄 新增類合 三國誌 三韻通考 嶺海唱酬錄 密山世稿 千字文 春種帖 顏真卿帖 朱子筆敬齋箴 石峯帖 雪峯帖 篆千字文 三略 焔焔新方 捷解新語』, 한국학문헌연구소, 1983.

정의읍지』는 『제주읍지』와 연대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읍지』에 기록되어있는 책판목록인 『태공사필판』, 『출사표』, 『초서대자중자판』, 『지도』, 『마의』, 『병학지남』 총 6종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5) 『林園十六志 京外鏤板』(1796년 이전) 책판목록

『임원십육지 경외누판』은 실학자 서유구가 정조 20년(1796) 이전에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는 백과사전이다. 책판목록 역시 수록되어 있고 『누판고』의 초고본으로 보인다. 서지학분류법에 따라 經史子集으로 구분해서 전국의 책판을 기록했다. 책판명 뒤에는 刊缺의 여부 표시해서 책판상태도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책판에 刊缺표시가 되어있어 제주목 책판소장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의 읍지들과는 다르게 서판류는 한 종도 기록하지 않았다.

『임원십육지 경외누판』에 수록된 책판목록은⁴⁴⁾ 아래 <표 10>과 같다.⁴⁵⁾

<표 10> 『林園十六志 京外鏤板』(1796년 이전)에 나타난 제주지역 책판목록

	구분	책판명	분류	책판상태		구분	책판명	분류	책판상태
1	책판	『대학(대전)』	經部 大學類	刊缺	10	책판	『통감절요』	史部 編年類	刊缺
2	책판	『논어(대전)』	經部 論語類	刊缺	11	책판	『십구사략통고』	史部 別史類	刊缺
3	책판	『맹자(대전)』	經部 孟子類	刊缺	12	책판	『탐라지』(李翊漢)	史部 地理類	刊
4	책판	『중용(대전)』	經部 中庸類	刊缺	13	책판	『소학집설』	子部 儒家類	刊缺
5	책판	『예기천견록』	經部 禮類	刊缺	14	책판	『격몽요결』	子部 儒家類	
6	책판	『상례비요』	經部 禮類	刊缺	15	책판	『삼략직해』	子部 兵家類	
7	책판	『의례문해·속해』	經部 禮類	刊缺	16	책판	『병학지남』	子部 兵家類	
8	책판	『증보삼운통고』	經部 小學類		17	책판	『밀산세고』	集部 別集類	
9	책판	『삼국지』	史部 正史類	刊缺					

<표 10>의 내용과 같이 『임원십육지 경외누판』에 수록된 제주지역 책판목록은 총 17종으로, 經部가 총 8종, 史部는 4종, 子部은 4종, 集部는 1종이다. 앞서 살펴본 읍지류의 책판목록보다 종수가 적는데, 이는 서판과 소설류 등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44) ‘윤봉택,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연구에서는 三經四書大全을 1종으로 봤지만 “<經類> 三經四書大全 九十卷 : 濟州牧藏只刊四書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본고에서는 사서4종으로 산정했다.

45) 『임원십육지 경외누판』의 영인본은 ‘정형우, 윤병태, 『한국의 책판목록 下』, 보경문화사, 1995, 林園十六志 卷百五 怡雲志 卷七 京外鏤板편’에서 확인함.

6) 『鏤板考』(1796년) 책판목록

『누판고』는 정조 2년(1778) 전국 관아를 비롯해 관가, 사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책판의 판본을 중앙에 보고토록 하여 규장각에서 정리한 것이며, 정조 20년(1796) 규장각 관원이었던 서유구에 의하여 종합 분류 목록화한 책이다.

일반적으로 책판목록의 편찬 체제는 소장처별로 책판서명을 나열한 경우도 있고, 책판서명 아래에 소장처를 밝힌 것도 있다. 『누판고』의 경우 御撰書, 御定書, 經部, 史部, 子部, 集部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經史子集의 각 부에서 다시 類와 그 하위개념인 屬으로 세분하여 분류하였다. 각 책판에는 책판서명, 卷數, 저자와 내용의 간단한 해제, 책판의 소장처, 刊缺의 여부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책판의 소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전국 각지의 책판 보유 현황을 정리한 대표적인 책판 목록이다. 전국의 책판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도서를 인출하고 보급하려는 국가적 노력의 일환이다.⁴⁶⁾

선행연구에서는 사서 책판을 누락해서⁴⁷⁾ 추가 정리했다. 『누판고』에 수록된 제주책판목록은 『임원십육지 경외누판』과 대부분 동일하며 추가된 책판목록은 『동몽선습』, 『천자문』, 『영해장수록』 3종이다. 『누판고』에 수록된 책판목록은 <표 11>과 같다.⁴⁸⁾

<표 11> 『鏤板考』(1796년)에 나타난 제주지역 책판목록

구분	책판명	분류	책판상태	구분	책판명	분류	책판상태
1	책판 『대학(대전)』	經部 大學類	刊缺	11	책판 『십구사략통고』	史部 別史類	刊缺
2	책판 『논어(대전)』	經部 論語類	刊缺	12	책판 『탐라지』(李翊漢)	史部 地理類	
3	책판 『맹자(대전)』	經部 孟子類	刊缺	13	책판 『소학집설』	子部 儒家類	刊缺
4	책판 『중용(대전)』	經部 中庸類	刊缺	14	책판 『동몽선습』	經部 小學類	
5	책판 『예기천건록』	經部 禮類	刊缺	15	책판 『격몽요결』	子部 儒家類	
6	책판 『상례비요』	經部 禮類	刊缺	16	책판 『삼략』	子部 兵家類	
7	책판 『의례문해·속해』	經部 禮類		17	책판 『병학지남』	子部 兵家類	
8	책판 『증보삼운통고』	經部 小學類		18	책판 『천자문』	經部 小學類	刊缺
9	책판 『삼국지』	史部 正史類	刊缺	19	책판 『밀산세고』	集部 別集類	
10	책판 『통감절요』	史部 編年類	刊缺	20	책판 『영해장수록』	集部 總集類	

46) 『冊板, 조선의 문화를 새기다』, 2017 규장각 소장 책판 기획전,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7, 85쪽.
 47) ‘윤봉택,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문화재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7.’연구에서는 사서 책판을 누락했는데, “經部 總經類 周易大全二十四卷 · 書傳大全十卷 · 詩傳大全二十卷 · 大學大全一卷 · 論語大二十卷 · 孟子大全十四卷 · 中庸大全一卷 : 濟州牧藏 刊缺 大學 印紙四牒 · 論語印紙 十二牒十四張 · 孟子十六牒十八張 · 中庸印紙 二牒四張”기록으로 보아 제주목에도 사서책판이 소장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48) 『鏤板考』의 영인본은 ‘정형우, 윤병태, 『한국의 책판목록 下』, 보경문화사, 1995, 鏤板考편’에서 확인함.

『누판고』에 수록된 제주지역 책판목록은 총 20종으로, 經部가 총 10종, 史部는 4종, 子部는 4종, 集部는 2종이다. 앞서 살펴 본 읍지류의 책판목록보다 종수가 적은데, 이는 『임원십육지 경외누판』와 마찬가지로 서판과 소설류 등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시 대부분 책판에 “剜缺”표시가 되어있어 제주목 책판소장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7) 『耽羅誌草本』(1841년)

『탐라지초본』은 이원조가 제주목사로 현종 7년(1841) 3월 부임하여 현종 9년(1843) 6월 이임할때까지 제주도의 역사·지리·인물 등에 대하여 이원진의 『탐라지』(1653년)를 저본으로 하여 기록한 초고본이다. 앞서 살펴 본 『누판고』 책판목록에는 없는 『옥호빙』, 『목민심감』이 기록되어 있고 판각이 대부분 찍고 잃어버려 인쇄할 수 있는 것이 적다고 했다. 『임원십육지 경외누판』과 『누판고』의 책판상태표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제주책판소장상태는 열악했음을 알 수 있다.

『탐라지초본』에 수록된 책판목록은 총 36종이며 아래 <표 12>와 같다.⁴⁹⁾

<표 12> 『耽羅誌草本』(1841)에 나타난 제주지역 책판목록

구분	책판명	분류	구분	책판명	분류
1	책판 『논어』	經部 論語類	19	책판 『밀산세고』	集部 別集類
2	책판 『맹자』	經部 孟子類	20	책판 『옥호빙』	集部 總集類
3	책판 『중용』	經部 中庸類	21	책판 『목민심감』	史部 職官類
4	책판 『대학』	經部 大學類	22	책판 『친자문』	經部 小學類
5	책판 『소학』	子部 儒學類	23	서판 『춘중첩』	子部 藝術類
6	서판 『선묘어필초서』	子部 藝術類	24	서판 『안진경첩』	子部 藝術類
7	책판 『사략』	史部 別史類	25	서판 『주자필경재잡』	子部 藝術類
8	책판 『통감』	史部 編年類	26	서판 『석봉첩』	子部 藝術類
9	책판 『전등신화』	集部 小說類	27	서판 『설봉첩』	子部 藝術類
10	책판 『동몽선습』	經部 小學類	28	서판 『전천자문』	子部 藝術類
11	책판 『격몽요결』	子部 儒家類	29	서판 『태사공필』	子部 藝術類
12	책판 『상례비요』	經部 禮類	30	도판 『탐라지도』	史部 地理類
13	책판 『의례문해』	經部 禮類	31	책판 『마의방』	子部 醫家類
14	책판 『예기천견록』	經部 禮類	32	책판 『탐라지』	史部 地理類
15	책판 『신증유합』	經部 小學類	33	책판 『병학지남』	子部 兵家類
16	책판 『삼국지』	史部 正史類	34	책판 『삼략』	子部 兵家類
17	책판 『삼운통고』	經部 小學類	35	책판 『염초신방』	子部 兵家類
18	책판 『영해창수록』	集部 總集類	36	책판 『첩해신어』	子部 譯學類

49) 이원조, 『耽羅誌草本』(영인본), 倉庫, ‘冊板庫：冊板庫 在南城內 論語 孟子 中庸 大學 小學 宣廟御筆草書 史略 通鑑 剪燈新話 童蒙先習 擊蒙要訣 喪禮備要 疑禮問解 禮記淺見錄 新增類合 三國誌 三韻通考 嶺海唱酬錄 密山世稿 玉壺水 牧民心鑑 千字文 春種帖 顏真卿帖 朱子筆敬齋齋 石峰帖 雪峰帖 篆千字文 太史公筆 耽羅地圖 馬醫方 耽羅誌 兵學指南 三略 焰硝新方 捷解新語 諸板大半剜削又多□失可印者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89.

<표 12>의 내용과 같이 『탐라지초본』에 수록된 제주지역 책판목록은 총 36종으로, 經部가 총 11종, 史部는 6종, 子部는 15종, 集部는 4종이다. 위 사료들과 마찬가지로 유학관련 책판이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명나라 문신·학자인 도목이 글 65조목을 발췌해 수록한 산문모음집인 『옥호빙』과 태종때 명나라로부터 전래되어 온 이래 수령들의 지침서인 『목민심감』은 이원진의 『탐라지』(1653년) 책판목록에 있었던 책판들이다. 이후 다른 문헌의 책판목록에는 보이지 않다가 『탐라지초본』(1841년) 책판목록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재개간했거나 책판을 재보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8) 『耽羅誌』(미상) 책판목록

『탐라지』(미상)는 편찬 시기와 저자가 미상이며 일본 동경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데 소장책판목록은 아래 <표 13>과 같다.⁵⁰⁾

<표 13> 『耽羅誌』(미상)에 나타난 제주지역 책판목록

	구분	책판명	분류		구분	책판명	분류	
1	책판	『서전대문』	經部	書類	22	책판	『중암집』	集部 別集類
2	책판	『시전대문』	經部	詩類	23	책판	『동명집』	集部 別集類
3	책판	『논어』	經部	論語類	24	책판	『속청구풍아초』	集部 總集類
4	책판	『맹자』	經部	孟子類	25	책판	『가례』	經部 禮類
5	책판	『중용』	經部	中庸類	26	책판	『동자습』	經部 小學類
6	책판	『대학』	經部	大學類	27	책판	『동몽선습』	經部 小學類
7	책판	『소학』	子部	小學類	28	책판	『유합』	經部 小學類
8	책판	『효경』	經部	孝經類	29	책판	『정속』	子部 小學類
9	책판	『중용언해』	經部	中庸類	30	책판	『격몽요결』	子部 小學類
10	책판	『대학언해』	經部	大學類	31	책판	『구급방』	子部 儒家類
11	책판	『소학언해』	子部	小學類	32	책판	『경험방』	子部 醫家類
12	책판	『십구사략』	史部	別史類	33	책판	『마우방』	子部 醫家類
13	책판	『당시절구』	集部	總集類	34	책판	『탐라지』	史部 地理類
14	책판	『삼운통고』	經部	小學類	35	서관	『춘중』	子部 藝術類
15	책판	『장감박의』	子部	兵家類	36	서관	『적벽부』	子部 藝術類
16	책판	『옥호빙』	集部	總集類	37	서관	『등왕각서』	子部 藝術類
17	책판	『목민심감』	史部	職官類	38	서관	『완화유수』	子部 藝術類
18	책판	『병학지남』	子部	兵家類	39	서관	『초천자』	子部 藝術類
19	책판	『전등신화』	集部	小說類	40	서관	『퇴계서』	子部 藝術類
20	책판	『천자』	經部	小學類	41	서관	『청선서』	子部 藝術類
21	책판	『포은집』	集部	別集類				

50) 『탐라문화총서 5』,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9.'에 영인된 『耽羅誌』(미상, 일본동경대학소장) 참조. '濟州 倉庫, 冊板庫 : 論語, 孟子, 中庸, 大學, 小學, 宣廟御筆草書, 史略, 通鑑, 剪燈新話, 童蒙先習, 擊蒙要訣, 喪禮備要, 疑禮問解, 禮記淺見錄, 新增類合, 三國誌, 三韻通考, 嶺海唱酬錄, 密山世稿, 玉壺冰, 牧民心鑑, 千字文, 春種帖, 顏真卿帖, 朱子筆啟齊箴, 石峯帖, 雪峯帖, 篆 千字文, 太史公筆, 耽羅地圖, 馬醫方, 耽羅誌, 兵學指南, 三畧, 焰硝新方, 捷解新語 諸板大半 朽剝又多闕失可印者少.'

『탐라지』(미상)은 이원진의 『탐라지』(1653)와 책판목록은 동일한데, 정의현 책판이 없다고 따로 기록한 것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책판 태반이 썩고 닳고 많이 잃어버려서 찍을 수 있다고 하여 당시 책판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책판목록의 수량은 『탐라지』(1653)와 마찬가지로, 총 41종인데 經部가 총 15종, 史部는 3종, 子部는 16종, 集部는 7종이다. 이 외 책판에 관한 기록은 『耽羅錄』, 『濟州郡邑誌』, 『耽羅觀風案』, 『耽羅紀年』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선행연구에서 누락되어 추가·정리했다.

9) 『耽羅錄』(1843) 책판목록

『탐라록』은 이원조가 제주목사로 임명되던 헌종 7년(1841) 1월부터 헌종 9년(1843) 7월까지 자신의 생활과 치적을 기록한 시문집이다. 책판목록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하진 않았지만, 책판 8종을 언급하면서 이 외에는 대부분 쓸 수 없는 정도라고 했다.

… 옛 기록에 등재되어 있는 옥호빙, 목민심감 등의 책은 애초에 남은 자취가 없고 남아있는 것 또한 쓸 수가 없다. 그 가운데 선조어필과 주자 경제잡, 석봉첩, 춘중첩, 연천자, 상례비요, 소학, 통감 등의 판본은 인쇄하여 조금이라도 인출할 수 있다.⁵¹⁾

위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옥호빙』, 『목민심감』 등의 책은 기존책판목록에는 있었지만 이원조가 제주목사로 재임했던 헌종 7년(1841)~헌종 9년(1843)에는 최소한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책판 8여종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표 14>와 같다.

<표 14> 『耽羅錄』(1843)에 나타난 제주지역 책판목록

구분	책판명	구분	책판명	구분	책판명	구분	책판명	구분	책판명	구분	책판명
책판	『선조어필』	子部	藝術類	책판	『연천자』	經部	小學類	책판	『상례비요』	經部	禮類
책판	『주자경제잡』	子部	藝術類	책판	『소학』	子部	儒學類	책판	『통감』	史部	編年類
책판	『석봉첩』	子部	藝術類								
책판	『춘중첩』	子部	藝術類								

51) 이원조, 『耽羅錄』 上, 제주문화원, 2017, ‘初二月 晴 : … 舊誌所載玉壺水牧民心鑑等書 初無形迹而存者亦無用 其中宣廟御筆 朱子敬齋箴 石峯帖 春種帖 篆千字 喪禮備要 小學 通鑑等板 可印畧印出’

<표 14>의 내용과 같이 『탐라록』에 수록된 제주지역 책판목록은 총 8종으로 經部가 2종, 史部는 1종, 子部는 5종이다. 『耽羅錄』에서는 8종 외 구체적인 책판목록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탐라지도를 재판하는 과정이 기록되어있고, 서책과 방물을 부탁한 성주군수에게 답하여 보내는 “答吳星州顯相書”에서 제주의 열악한 책판소장환경을 묘사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다.

10) 『濟州郡邑誌·大靜郡邑誌·旌義郡邑誌』(1899) 책판목록

1899년 제주군수 김희위가 조사한 『제주군읍지·대정군읍지·정의군읍지』는 책판목록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주읍 책판고의 위치가 구교동 즉 옛 향교자리에 있고 대정현, 정의현에는 책판이 없다⁵²⁾고 기록했다.

11) 『耽羅觀風案』(1916) 책판목록

『탐라관풍안』은 1916년 김석익이 제주관원을 역임한 사람들에 관해 기록한 것으로 책판간행에 관한기록은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耽羅觀風案』(1916)에 나타난 제주지역 책판목록

일시	책판명	간행자		내용
		관직	성명	
숙종 6년(1680)~ 숙종 7년(1681)	『병학지남』	목사	임홍망	책고를 짓고 『병학지남』을 개간했다. ⁵³⁾
숙종 11년(1685)~ 숙종 14년(1688)	<사서> 『삼국지』	목사	이상전	<사서>와 『삼국지』를 간행했다. ⁵⁴⁾
숙종 20년(1694)~ 숙종 22년(1696)	『선묘어필』	목사	이익태	『선묘어필』을 간행하여 여러 관청문에 현판으로 걸었다. ⁵⁵⁾
순조 21년(1821)	『시전』 『서경』	목사	백영진	『시(경)』 『서(경)』 각 10질을 들여와 삼읍의 학교, 서원, 영목에 나눠주었다. ⁵⁶⁾
헌종 3년(1837)~ 헌종 5년(1839)	『경민편』	목사	이원달	『경민편』을 찍어 각 리에 나눠줬다. ⁵⁷⁾

52) 『한국지리지총서: 읍지6, 제주도』, 濟州郡邑誌·大靜郡邑誌·旌義郡邑誌, 한국학문헌연구소, 1983.
‘倉庫 : 冊板庫 在舊校洞. 大靜君古誌 : … 軍兵 冊板 工匠 奴婢 醫局 佛宇 并皆無, 旌義邑古誌 : … 冊板 無.’

53) 김석익, 『심재집』, 탐라관풍안, ‘任弘望 … 建冊庫開刊兵學指南’

54) 김석익, 『심재집』, 탐라관풍안, ‘李常口 … 開刊四書三國志’

55) 김석익, 『심재집』, 탐라관풍안, ‘李益泰 … 開刊宣廟御筆揭諸之口廡門額’

56) 김석익, 『심재집』, 탐라관풍안, ‘白泳鎮 … 詩書各十帙 分于三邑校院牧’

57) 김석익, 『심재집』, 탐라관풍안, ‘李源達 … 印警民編頒于各里’

목사 임홍망이 숙종 6년(1680)~숙종 7년(1681) 사이에 책판고를 새로 짓고 『병학지남』을 개간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연대차이가 가까운 『지영록』(1696) 책판목록에 『병학지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숙종 3년(1677) 화재 때에 모든 책판이 소실될 때 같이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목사 백영진이 순조 21년(1821) 『시경』, 『서경』 각 10질을 들여와 삼읍의 학교, 서원, 영목에 나눠줬다는 것을 보아 제주목에서 자체판각한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탐라록』(1843) 책판목록에 『시경』, 『서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장한 책판을 모두 기록하지 않거나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중앙정부는 지방감영에 서책을 유학서적 중심으로 보급했고, 제주에서 직접 판각을 하는 경우에는 제주목중심으로 책판을 제작해 정의현, 대정현에 나누어 주는 형식임을 알 수 있다.

12) 『耽羅紀年』(1918) 책판목록

『탐라기년』은 1918년 김석익이 제주의 역사를 고대사에서 근대 해방 직후까지 편년체로 편찬한 것으로 책판간행에 관한기록은 <표 15>와 같다.

<표 16> 『耽羅紀年』(1918)에 나타난 제주지역 책판목록

일시	책판명	간행자		내용
		관직	성명	
숙종 6년 (1680)	<사서삼경>	목사	임홍망	목사 임홍망이 책고를 향교 옆에 세우고 책판을 개간하였다. 전후하여 사서삼경 외 家史선현문집과 주자필첩을 나무판에 새겨 다수를 쌓아 놓았다. ⁵⁸⁾
	<선현문집>			
	『주자필첩』			
숙종 19년 (1693)	『경민편』	목사	이기하	목사 이기하가 경민편을 저술하여 백성을 교화하였다. ⁵⁹⁾

<표 15>의 내용과 같이 숙종 6년(1680)에 목사 임홍망이 책판고 위치를 향교 옆으로 지었고 숙종 19년(1693)에 목사 이기하가 『경민편』을 저술했음을 알 수 있다. 『탐라관풍안』에서 목사 이원달도 『경민편』을 찍어 각 리에 나눠줬다는 것을 보아 당시 목사들이 지방 교화를 위해 『경민편』을 여러 번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58) 김석익, 『탐라기년』, ‘庚申 六年 : 牧吏任弘望 建冊庫于鄉校傍 開刊冊板[前後鈔鏤梓四書三經 外家史 先賢文集 及朱子筆帖 多數堆積]’

59) 김석익, 『탐라기년』, ‘癸西 十九年 : 牧使李基夏 著警民編以教民’

IV. 조선후기 제주지역 서적간행의 특징

조선시대 서적을 간행하는 방법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수입한 서적을 교서관이나 주자소에 내려주고 鑄字로 몇 부 인쇄하게 하여, 정부 기관에 비치하고 고위 관료에게 반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주자소에서 인출한 활자본을 지방에 내려주고 관찰사로 하여금 이 책을 母本으로 삼아 지방 관아에서 판각하도록 하고, 이 책판을 이용해서 서적을 인출하여 頒賜하는 방법이다. 지방에서 판각한 책판은 중앙의 교서관으로 책판을 올려 보내도록 하여 중앙에서 간행하여 보급하는 방법이 있고, 판각한 곳에서 책판을 보관하고 중앙의 요구가 있을 때 인쇄해서 인쇄본을 중앙에 올려 보내면 중앙에서는 이를 반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지방 관아의 서적 간행 역량은 한계가 많아서 성종대까지의 서적 유통 방식은, 하삼도 지역과 같은 한정된 지역에서만 관찰사의 주관 아래 지방에서 직접 유교경전 및 교화서를 간행하여 보급하는 정도였으며, 여전히 중앙 정부가 서적 공급을 주도하였다.⁶⁰⁾ 더욱이 지방 서책간행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엄격하여 지방출판문화가 더디게 발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각 도의 감사들이 제 마음대로 서책을 간행하고, 혹은 다른 도에서 이미 간행한 글을 간행하기도 하고, 혹은 긴요하지 않은 글을 간행하면서 한갓 재력만 허비하게 되니 실로 불편한 일이다. 지금부터 반드시 계문하고 간행하라.⁶¹⁾

위 기록은 세종 14년(1432)의 기사인데 각 지역에서 간행한 서책들이 타 지역과 중복되어 낭비를 우려했고, 지방관에서 책판의 관리가 소홀하자 간행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에 지방관아에서는 책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각 도의 책판목록을 갖추게 하였다. 즉 각 도의 관찰사는 해당 도의 고을에서 간

60) 우정임, 「조선전기 性理書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사학과, 2009. 참조.
61) 『세종실록』 권57, 세종 14년 8월 3일 기축조, ‘傳旨禮曹 : 各道監司擅刊書冊, 或刊他道已刊之書, 或刊不緊之書, 徒費財力, 實爲未便 自今必令啓聞刊行’

행된 책판의 장부를 만들어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중앙에 보고하여 타도에서 알 수 있도록 전국 소장 책판목록을 공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⁶²⁾ 그러나 이렇게 책판을 관리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책판의 소재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조사하기 쉽지 않았고 책판목록에는 다수의 책판종수가 누락되기도 했다.

본 장에서는 앞서 III장에서 살펴본 조선후기 제주의 시기별 책판목록을 주제별로 분류해 특징을 분석하고, 제주출판관련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제주지역 출판서적의 유형별 특징

앞서 살펴 본 제주의 시기별 책판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주는 16~19세기에 걸쳐 결코 적지 않은 여러 유형의 책판을 소장했었고, 대부분이 유학관련 책판이다. 16~19세기 제주지역 책판목록을 기록한 문헌 10종을 분석하는데, 일본동경대학소장의 저자·시기 미상 『耽羅志』는 제외했다. 대부분 문헌이 책판목록을 나열하는 정도여서 그 책판에 대한 출판경위는 알 수 없지만, 현전하는 간행본간기와 서문을 통해 간행주체와 간행시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장에서는 유형을 유학관련, 역사관련, 문집관련, 예술관련, 기타책판관련으로 나누어 분류했다.⁶³⁾ 조선후기 책판목록을 중심으로 하고 중앙에서 보급했던 조선 전기의 서책을 포함해 제주에서 간행한 서적을 분석하였다.

1) 유학관련

고려후기 성리학이 도입된 후 일찍부터 經書와 性理書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지만 조선초기에는 아직 성리학이 발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고 성리학을 연구할 수 있는 서적도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15세기 서적정책은 성리학을 연구하기 위한 토대를 조성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유학 서적을 수

62) 옥영정, 「조선시대 完營의 문집간행과 그 배경 연구」, 『조선시대 지방감영의 인쇄출판 활동』, 청주고 인쇄박물관, 2009, 187쪽.

63) 앞서 III장에서 책판의 내용분류를 經史子集의 四部分으로 표기했다. 본장에서는 四部分의 기본 도서분류체제를 따르되, 經史子集의 세부분류인 儒家類, 兵家類, 醫家類 등 특정 몇 항목을 따로 유형으로 분류했다. 한 예로, 經部의 易類, 禮類, 四書類 등과 子部의 儒家類를 “유학관련” 한 유형으로 묶어서 분류했다.

입하여, 간행하는데 주력하였다.⁶⁴⁾ 즉 중국으로부터 유학 서적을 수입하여 교서관과 주자소 등 중앙의 서적 간행 기관을 통해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서적을 간행하여 유교 이데올로기를 보급하였다. 이런 서적간행을 통한 유교보급은 중앙정부의 서적반사의 형식이 주였는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방 서책간행에 대한 중앙의 통제 때문으로 보인다.

제주 역시 세종 17년(1435) 사서와 같은 유학서적을 보급받은 이후 유학관련 책관이 17~19세기 거쳐 꾸준히 소장되어왔고, 제주책판목록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조선왕조실록』에서의 제주에 서적을 보급한 기록과 10종의 책판목록에서 유학관련책판을 정리하면 <표 17>과 같다.

<표 17> 조선시대 제주지역 유학관련 서적·책판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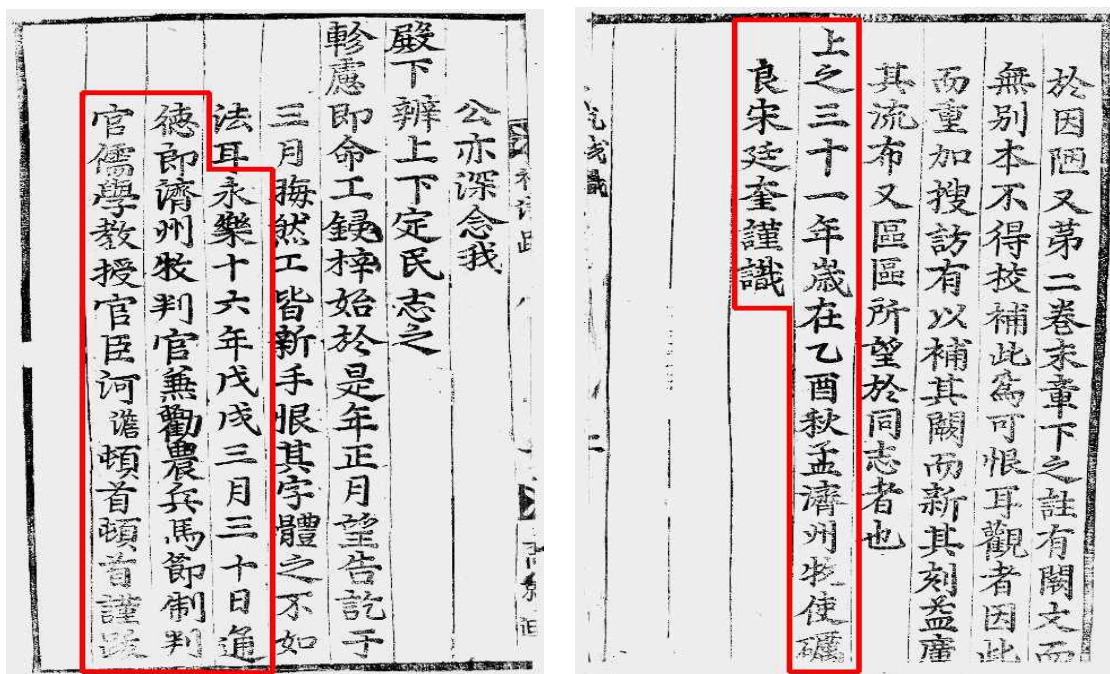
문헌명	*세종실록	*성종실록	*중종실록	고사촬요	탐라지	*현종실록	지영록	증보탐라지	고책판유취고	제주읍지	제주대정정의읍지	임원삽육지	누판고	탐라지초본
시기	1435년	1493년	1517년	1585년	1653년	1672년	1696년	1765~1766년	1776년 이전	1780~1789년	1793년	1796년	1796년	1841년
서적·책판명	서경				서전대문	경서								
	시경	모시			서전대문									
	논어	논어	논어		논어			논어			논어	논어대전	논어대전	논어
	맹자	맹자	맹자		맹자			맹자			맹자	맹자대전	맹자대전	맹자
	중용	중용	중용		중용			중용			중용	중용대전	중용대전	대학
	대학	대학	대학		대학			대학			대학	대학대전	대학대전	중용
	소학	소학	소학		소학			소학			소학	소학집설	소학집설	소학
	역경		효경		효경									
	춘추				중용언해	중용언해	중용언해	중용언해	중용언해	중용언해				
	성리대전				대학언해	대학언해	대학언해	대학언해	대학언해	대학언해				
					소학언해	소학언해	소학언해	소학언해	소학언해	소학언해				
						논어언해	논어언해	논어언해	논어언해	논어언해				
						맹자언해	맹자언해	맹자언해	맹자언해	맹자언해				
					가례									
						상례비요	상례비요	상례비요	상례비요	상례비요		상례비요	상례비요	상례비요
							예기 친견록							
						의례문해	의례문해	의례문해	의례문해					
					삼운통고		삼운통고	삼운통고	삼운통고	삼운통고	삼운통고	증보 삼운통고	증보 삼운통고	삼운통고
				천자						의례문해	의례문해 ·속해	의례문해 ·속해		
				동자습				예기 친견록	예기 친견록	예기 친견록	예기 친견록	예기 친견록	예기 친견록	
				동몽선습				동몽선습	동몽선습	동몽선습	동몽선습	동몽선습	동몽선습	
				유합				유합	신증유합	신증유합	신증유합		신증유합	
				정속										
				격몽요결					격몽요결	격몽요결	격몽요결	격몽요결	격몽요결	

* 『조선왕조실록』에서 제주에 서적을 보급한 기록

64) 김향수, 「조선전기 성리서 해석의 추이」, 『同大論叢』 25집, 1995, 217쪽.

15세기 제주에는 세종 17년(1435)과 성종 24년(1493) 기사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서>, 『소학』, 『예기』 등을 중앙정부로부터 보급받았다. 16~17세기에도 중종 12년(1517)과 현종 13년(1672)에 『모시』, <경서>와 같은 유학서적을 보급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찬과 읍지류의 사료를 통해서는 16~19세기에 걸쳐 다수의 유학관련책판을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책판들을 직접 제주에서 인쇄했는지, 중앙정부에서 보급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제주에서 간행된 유학관련 서적들이 현전해, 이 서적들의 간기 등을 통해 제주에서 직접 판각한 책판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 책판목록 중 현전하는 제주간행 유학관련서적은 『예기천견록』 등 9종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기천견록』은 元나라 陳澹의 『禮記集說』을 底本으로 하여 권근이 자기의 說을 덧붙인 『禮記』의 주석서이다. 『예기천견록』은 제주간행 현전본으로 <그림 1>과 같이 발문과 後識·補刻記의 기록으로 제주에서 간행됐음을 알 수 있다. 발문에 “永樂十六年戊戌三月三十日 … 濟州牧判官 … 河澹頓首頓首謹跋”로 보아, 태종 5년(1405) 처음 교서관에서 간행된 이후 태종 18년(1418) 제주판관 하담이 권근의 手校本을 구해 목판으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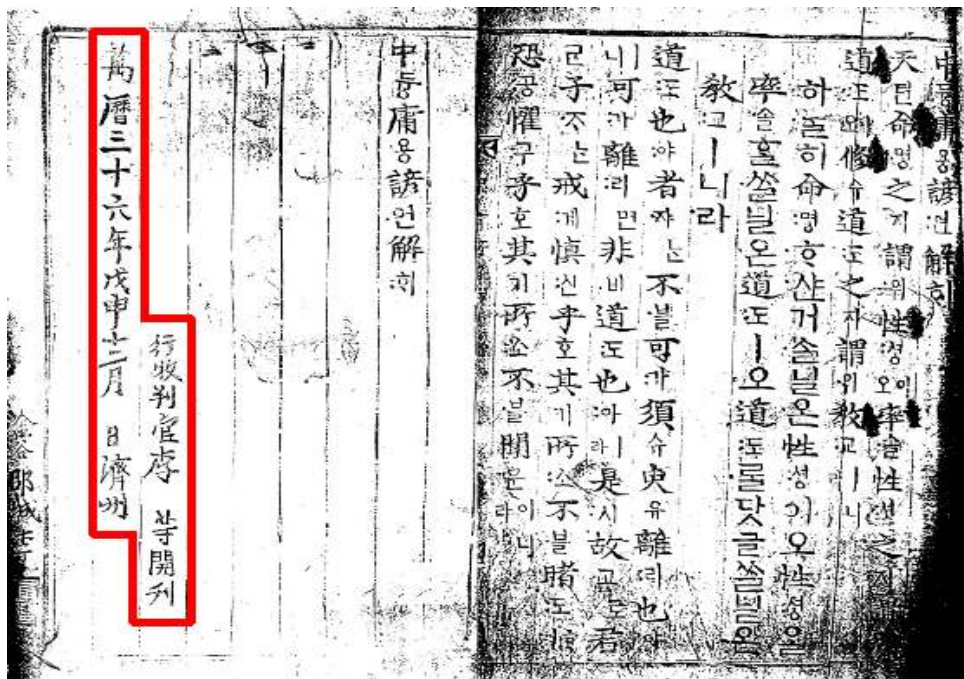


<그림 1> 태종 18년(1418), 숙종 31년(1706) 제주에서 간행한 『예기천견록』(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또한 後識·補刻記에 “上之三十一一年歲在乙酉秋孟 濟州牧使 礪良宋廷奎 謹識”로 보아, 이후 다시 간행된 것은 190여 년이 지난 숙종 31년(1706) 제주목사 송정규가 목판들이 훼손된 상태임을 발견하고, 향교에 보존되어 있던 간행본을 반각하여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重刊과 改刊이 모두 제주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기천전록』은 조선초 성리학의 구체적인 행위 규범을 마련하고, 17세기 禮學의 전성시대의 문을 열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제주에서 개간이 두 번이나 된 사실에서도 그 중요도를 알 수 있다.

『중용언해』는 선조의 명에 따라 교정청에서 행한 사서삼경의 언해사업 일환으로 행한 『중용』의 한글풀이로 역시 제주간행현전본이다. 권말에 “中庸諺解 行牧判官李等開刊 萬曆三十六年戊申十二月 日 濟州”라 하여, 선조 41년(1608) 李等이 개간했음을 알 수 있고, 간행자는 당시 제주목사인 이용해로 짐작된다.

『성리대전서』는 明의 학자 胡廣 등이 영락제의 명을 받아 송원대 성리학자들의 저술과 학설을 집대성하여 편찬한 『성리대전서』를 조선에서 다시 간행한 책이다. 『성리대전서』는 <太極圖>를 비롯한 성리학의 주요 저술들을 모아 놓고, 여러 학자들의 학설을 주제별로 분류·정리한 것으로 역시 제주간행현전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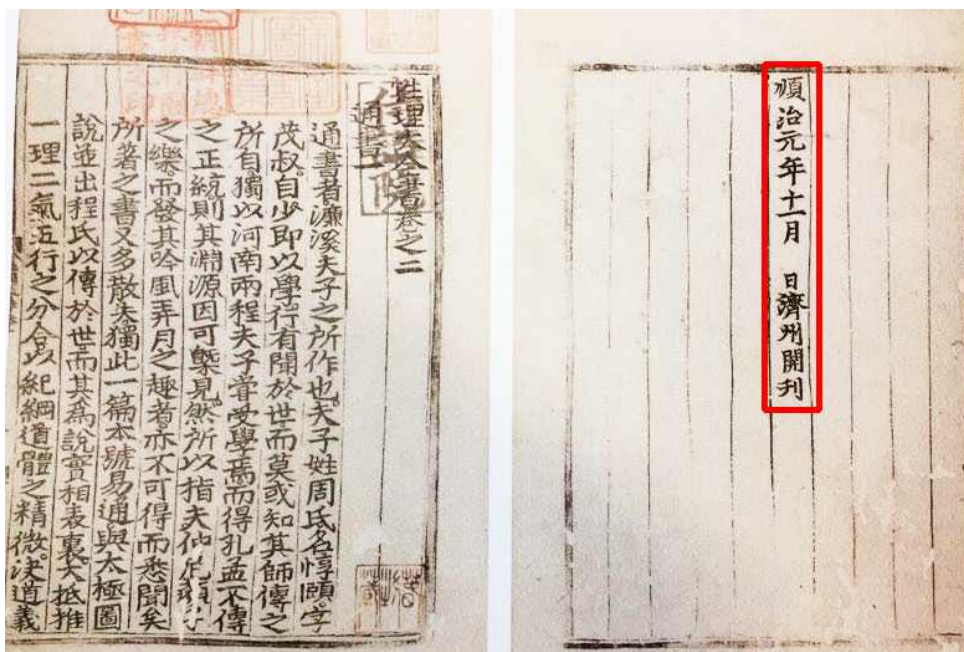


<그림 2> 선조 41년(1608) 제주에서 간행한 『중용언해』(개인 소장)

마지막장 간기의 “順治元年十月日 濟州開刊”으로 보아 본서가 인조 22년(1664) 제주에서 제작한 목판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간기 앞에서 본서의 편찬을 주관한 제주목사 원숙, 제주목판관 변급, 감교관 강정원의 관직과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각 책의 첫 면에 ‘侍講院’과 ‘春坊藏’의 장서인이 찍혀 있어서, 본서가 시강원에 소장되었던 책임을 알 수 있다.⁶⁵⁾ 중앙조정 of 수요를 위해 지방 관아의 책판이 활용되기도 하였음이 드러나는 사례이다.

성종대에 이르면 『소학』과 『삼강행실』 등을 각 도 관찰사로 하여금 직접 간행하여 鄉民들에게 학습하도록 하게 했는데, 제주 역시 『소학언해』를 직접 간행했다. 『소학언해』 역시 제주간행현전본으로 권말 간기부분의 기록으로 간행지와 간행시기를 알 수 있다. 간기의 “康熙二十四年歲在己亥冬濟州鄉校開刊”기록으로 보아 숙종 11년(1685)에 제주향교에서 개간했음을 알 수 있고, 간행자는 당시 목사 강세귀로 추측된다.

『상례비요』 역시 제주간행현전본으로, 앞서 살펴본 『지영록』(1696)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향교 교생들의 요청으로 판각했다. 『상례비요』는 예학의 급속한 전파를 보여주는데 권말간기의 “康熙三十四年歲在乙亥冬濟州鄉校開刊”기록으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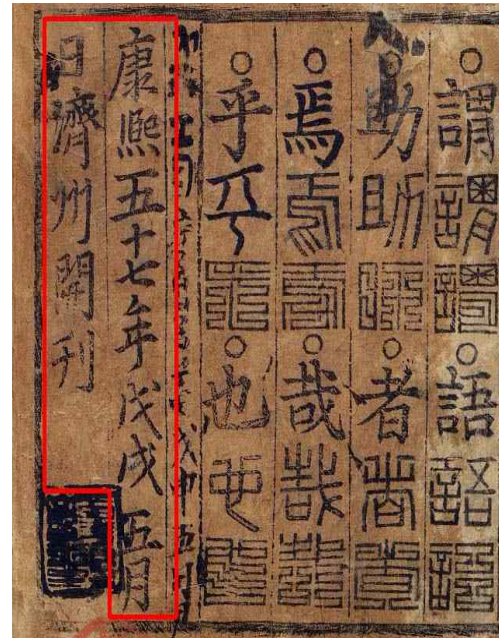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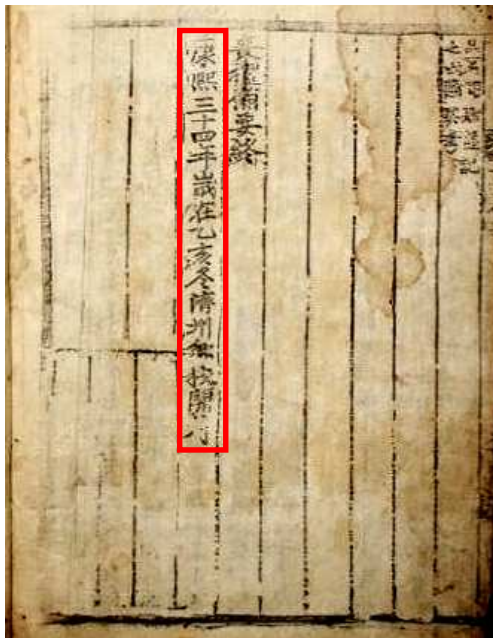


<그림 3> 인조 22년(1664) 제주에서 간행한 『성리대전서』(규장각 소장)

65) 『冊板, 조선의 문화를 새기다』, 2017 규장각 소장 책판 기획전,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7, 101쪽.



<그림 4> 숙종 11년(1685) 제주에서 간행한 『소학언해』(장서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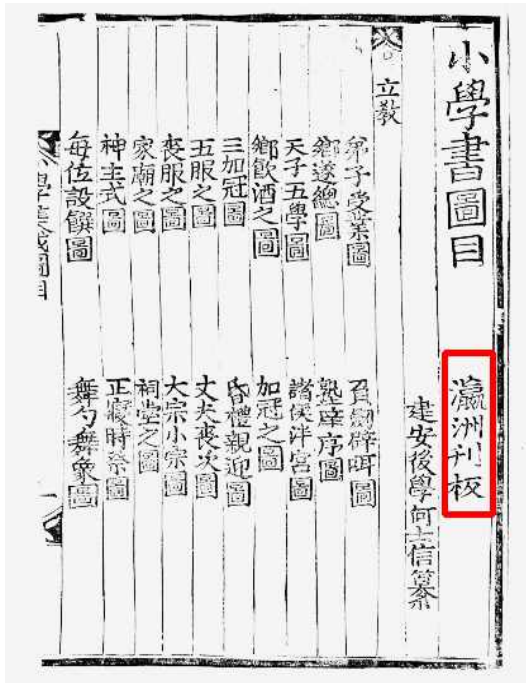


<그림 5> 숙종 21년(1695)에 제주에서 간행한 『상례비요』(원각사성보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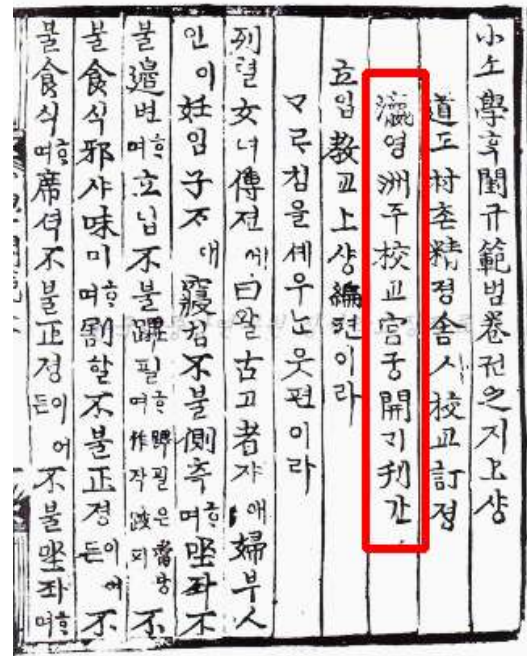
<그림 6> 숙종 44년(1718) 제주에서 간행한 『옥당리정자의운률해편심경』(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아 숙종 21년(1695) 제주향교에서 목사 이익태가 개간했음을 알 수 있다.

『玉堂釐正字義韻律海篇心鏡』은 옥편과 운서를 함께 엮은 字學書로 제주간행현 전본이다. 간기의 “康熙五十七年戊戌五月日濟州開刊”기록으로 보아 숙종 44년



<그림 7> (연대미상) 제주에서 간행한 『소학서도』(경북대도서관 소장)



<그림 8> 현종 11년(1845) 제주에서 간행한 『소학규범』(규장각 소장)

(1718) 5월 제주에서 개간했음을 알 수 있고 간행자는 당시 목사 정석빈으로 짐작된다.

『소학서도』는 명의 何士信이 집록한 『소학집성』 가운데 「小學書圖」 부분만을 뽑아 1책으로 엮은 것으로 제주간행현전본이다. 연대는 미상이나 간기의 “瀛洲刊板”기록으로 보아 제주에서 개간했음을 알 수 있다. 『소학규범』은 19세기에 장인식이 주희의 『소학』 가운데 여자의 교육에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엮은 책으로 제주간행현전본이다. 권두에는 을사년(1845)에 쓴 서문이 있고 간기의 “瀛洲校宮開刊”기록으로 보아, 제주향교에서 당시 목사인 권직이 개간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혼례홀기』는 혼례절차를 다룬 책으로 제주간행현전본이다. 서문의 “... 歲丙辰五月 裕軒書”기록으로 보아, 철종 7년(1856)에 유현이 제주도의 혼례가 너무 번잡하여 혼속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마을에 배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현전하는 제주간행 유학서적은 9종이며 <표 18>과 같다.

<표 18> 현전하는 제주간행 유학서적

	간행본명	간행연도	간행형태	간행주체	
				간행처/관직	성명
1	『禮記淺見錄』	대종 18년(1418)	重刊	제주관관	하담
		숙종 31년(1705)	改刊	제주목사	송정규
2	『中庸諺解』	선조 41년(1608)	重刊	제주관관	(이용해)
3	『性理大全書』	인조 22년(1644)		제주목사	원숙
				제주관관	변급
				감교관	강정원
4	『小學諺解』	숙종 11년(1685)		제주향교(제주목사)	(강세귀)
5	『喪禮備要』	숙종 21년(1695)		제주향교(제주목사)	이익태
6	『玉堂釐正字義韻律海篇心鏡』	숙종 44년(1718)		(제주목사)	(정석빈)
7	『小學書圖』	미상		瀛洲	
8	『小學閨範』	헌종 11년(1845)		瀛洲校宮(제주목사)	(권직)
9	『婚禮笏記』	철종 7년(1856)		유현이 배포	

<표 18>의 내용과 같이 현전하는 제주간행본 유학관련서적은, 대부분 제주향교에서 제주목사가 주관하여 개간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주는 세종 17년(1435)에 중앙정부로부터 유학서적을 보급받은 이후 16~17세기에 도 서적을 보급받기도 했으나, <표 18>의 내용처럼 제주에서 자체적으로 유학서적을 15~19세기에 걸쳐 개간해왔다.

이러한 유학서적 중 『소학』은 중앙정부에서 보급받을 시 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제주간행 현전본 중 『소학언해』, 『소학서도』, 『소학규범』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사서오경이나 『성리대전』은 성리학의 정비과정에서 학적근거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시되었지만 성리학의 실천윤리로서는 『소학』이 새로운 덕목으로서 보다 중요시 되었다. 특히 지방교육에서 『소학』이야말로 성리학 이해의 기초교재로서 유학교육의 차례를 세우는 필독서였으며 서민교화를 위한 윤리서였기 때문에 유교적 이상실현에 가장 적합한 교과목이었다.⁶⁶⁾ 이와 같은 이유로 제주에서도 다른 유교서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량의 『소학』을 보급받았다.⁶⁷⁾ 또한 <표 17>의 책판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학』관련책판은 꾸준히 소장되어왔고, <표 18>에서

66) 이수건, 『이조시대 『소학』 교육에 대하여』, 『영남대논문집』 2집, 영남대학교, 1969, 252쪽.

67) 『세종실록』 권69, 17년 9월 21일 기축조, ‘賜大學中庸論語孟子詩書禮記易春秋性理大全各二件 小學十件, 于濟州鄉校’

확인되듯이 제주개간 유학서적 현전본 9종 중 3종이 『소학』관련 서적이라는 점은 당시 『소학』이 상대적으로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중앙정부가 유교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교화정책의 일부였다.

한편, 제주에서 『예기천견록』이 15세기, 18세기에 두 번 개간되었다는 사실은 17세기 예학의 발전흐름과 관련있어 보인다. 더욱이 『소학』의 내용 중 상당부분이 『예기』에서 인용된 것으로 17세기 이후로도, 『소학』은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고 제주의 책판목록에서도 다수 확인된다. 숙종 21년(1695)에 제주에서 개간된 『상례비요』와 철종 7년(1856)에 제주에서 개간된 『혼례홀기』 또한 당시 예학발전 흐름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언해사업 역시 활발해 『탐라지』(1653)의 책판목록에서 언해류 3종이 확인된 이후 『제주읍지』(1780~1789)의 책판목록에까지 언해류는 꾸준히 확인되고, 제주간행본도 몇 종이 전해져 당시 언해사업이 체계적으로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유학관련책판은 제주책판목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15~17세기에 비해 18~19세기에 책판종수가 늘어나고 간행현전본도 다수 확인됨을 알 수 있다. 간행 주체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학서적은 제주유생과 유배인들과 같은 일부 지식인들만이 향유 가능했는데, 이들의 서적수요와 당시 성리학질서가 유학서적개간의 증대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즉 18~19세기에 유교관련책판과 서적종수가 늘어난 점은, 중앙정부의 유교보급정책과 당시 제주의 유배인들에 의해 18~19세기 제주에 성리학질서가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2) 역사관련

조선은 유교 입국을 지향하며 고려시대의 불교적 사회를 유교적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한 끝에 조선후기는 성리학 또는 주자학이 주류인 나라가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 초기 60여 년의 전대사 정리 작업의 결과 『동국사략』, 『고려사』의 편찬이 이루어졌다. 전시대를 아우르는 통사가 없으므로 세조는 『자치통감』을 모방한 『동국통감』의 편찬을 시도하기에 이르는데 그 과정에서 『삼국사절요』가 편찬되기도 하였다.⁶⁸⁾ 관찬사서 역시 유교이념에 맞춰 각 도에 보급하거나 판각을 명했는데 제주 역시 관찬사서 책판을 다수 소장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책판목록 이전에 서적을 직접적으로 보급받은 몇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숙종 26년(1700)에는 법전인 『대전속록』과 법의학서인 『무원록』을 제주목사가 중앙정부에 요청하자, 책판이 있는 지역에 시켜 인쇄해 보내도록 명했다. 이 기록에서 제주목사가 서책을 요청하자, 책판이 있는 지역에서 인쇄를 하도록 명한 것을 봐서 당시 중앙정부와 지방과의 서적간행 관계체제를 확인할 수 있다.

영조 24년(1748)에는 『무원록』을 重刊하여 팔도에 반포하도록 했는데 법의학서인 『무원록』은 여러번 개정되고 각 도에 반포된 것이다. 당시 전라도 소속이었던 제주 지역도 『무원록』을 보급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각 도 각 고을에 있었다는 점과 숙종 26년(1700)에 제주목사가 『무원록』을 청한 점으로 보아 필수서적이었을 것이다. 또한 정조 5년(1781)에는 『明義錄』의 속편인 『續明義錄』을 제주목에 반포했는데 이는 서적반포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위한 정치적인 목적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왕조실록』에서의 제주에 서적을 보급한 기록과 10종의 책판목록에서 역사관련 책판을 정리하면 <표 19>와 같다.

<표 19> 역사관련 책판목록

문헌명	고사철요	탐라지	지명록	*숙종 실록	증보 탐라지	고책판 유처고	제주읍지	*정조 실록	제주대정 정의읍지	임원 십육지	누판고	탐라지 초본
시기	1585년	1653년	1696년	1700년	1765~ 1766년	1776년 이전	1780~ 1789년	1781년	1793년	1796년	1796년	1841년
서적· 책판명	동국사략			대전속록 무원록				속명의로록				
		십구사략	사략		사략	사략	사략	속명의로록 언해	사략	십구사략 통고	십구사략 통고	사략
			통감			통감	통감	원명의로록 ·언해	통감	통감절요	통감절요	통감
					삼국지	삼국지	삼국지		삼국지	삼국지	삼국지	삼국지
		목민심감										목민심감
		탐라지								탐라지 (李翊漢)	탐라지 (李翊漢)	탐라지
					지도	板지도	板지도					

* 『조선왕조실록』에서 제주에 서적을 보급한 기록

<표 19>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서는 유학서적과 마찬가지로 제주유생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다. 향교의 교과서는 때에 따라 비중의 차이는 있었으나 『소학』,

68) 김남일, 「조선 초기 관찬 역사서에 있어서 『자치통감강목』 書法의 영향」, 『한국사학사학보』 제 29권, 한국사학사학회, 2014, 163쪽.

『효경』, 사서·삼경 등의 初學교과서와 『가례』, 『성리대전』 등의 朱子書와 『통감』 등의 사서 등이 사용되었다.⁶⁹⁾ 때문에 사서 역시 유학서적과 마찬가지로, 16~19 세기에 걸쳐 꾸준히 책판목록에 기록되고 있다. 이 책판들을 직접 제주에서 인쇄했는지, 중앙정부에서 보급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제주에서 간행된 역사관련 서적 중 『목민심감』이 현전하고, 간기를 통해 제주에서 직접 판각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민심감』은 태종때 명나라로부터 전래되어 온 수령들의 지침서로 명종 10년(1555)에 제주에서 개간했다. 권말 간기의 “嘉靖三十四年乙卯四月日 耽羅開刊 牧民心鑑卷之下, 正兵 李仁番 正兵 高淳漢 金埃 永健 副手 高勳 書寫迪順副尉 高永明 校正朝散大夫行濟州教授 漢繼徵 奉直郎濟州牧判官節制都尉兼監牧李善源 嘉善大夫行濟州牧使兼兵馬水軍節制使金秀文”⁷⁰⁾ 기록으로 보아,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은 正兵 이인번, 副手 고훈, 書寫迪順副尉 고영명, 濟州教授 한계징, 濟州牧判官 이선원, 濟州牧使 김수문 등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간행을 주도한 사람은 제주목사 김수문으로 보인다. 『목민심감』은 태종 12년(1412), 명종 10년(1555) 두 차례에 걸쳐 간행된 것은 확인되지만 이후에도 개간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목민심감』은 제주에서 중간되었는데 이 책이 어떻게 하여 제주에서 중간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초간본이 나온 지 143년이 지난 때였는데 아직도 수령지침서로 그 가치를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⁷¹⁾ 하지만 제주에서만 중간이 되었던 점이 특이사항이다. 『탐라지』와 『탐라지도』는 지방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간행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다.

3) 병학관련

군사서적은 속성상 전국적 단위의 통일적 군사체계와 훈련을 위해 반드시 지방의 여러 곳까지 전파되어야 하므로 한 번에 많은 부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중앙의 경우 일반 서적 간행이 교서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병서는 훈련도감 등 중앙의 여러 군영이나 지방의 군사 거점에서도 이루어졌기

69) 김영철, 「조선조 향교의 도서정책 연구-조선초기부터 중기까지」, 『도서관학』 제4집, 강남대학교, 1987, 65쪽.

70) 김성준, 『목민심감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0, 152쪽.

71) 김성준, 『목민심감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0, 59쪽.

때문에 인쇄술 발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⁷²⁾

<표 20> 병학관련 책판목록

문헌명	고사찰요	탐라지	지영록	증보 탐라지	고책판 유체고	제주읍지	제주대정 정의읍지	임원 십육지	누판고	탐라지 초본
시기	1585년	1653년	1696년	1765 ~ 1766년	1776년 이전	1780 ~ 1789년	1793년	1796년	1796년	1841년
서적· 책판명		장감박의								
		병학지남			병학지남	병학지남		병학지남	병학지남	병학지남
					삼략	삼략	삼략직해		삼략	삼략
					염초신방	염초신방	염초신방			염초신방

조선시대 제주 역시 지리적 특성상 병서가 중요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책판목록과 현전간행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학관련 제주책판목록 중 『장감박의』와 『병학지남』, 『삼략』은 군대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병법서적이고, 『염초신방』은 화약의 원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서적이다. 10종의 책판목록에서 병학관련책판을 정리하면 위의 <표 20>과 같다. 유학관련책판이나 역사관련 책판들과 마찬가지로, 위의 병학관련 책판들을 직접 제주에서 인쇄했는지, 중앙정부에서 보급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제주에서 간행된 병학관련 서적 몇 종이 현전한다. 이 서적들의 간기 등을 통해 제주에서 직접 판각한 책판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 책판목록 중 현전하는 제주간행 병학관련서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석공소서』는 황석공이란 사람이 유방을 도운 한나라 개국공신 장량에게 전수했다는 병서이다. 현전하는 판본은 후대에 누군가가 만들어낸 위서라는 견해가 있지만, 손자 등과 더불어 武經七書에 포함되어 兵家에서는 매우 중시되는 책이다. 이러한 『황석공소서』는 현전하는 국내 最古 병서이다. 권말 간기의 “(年)十一月日濟州…刻手僧性”, “兼勸農兵馬團練判官儒學教授官 韓彝, 兼勸農管學兵馬使濟州道按撫使 李原恒” 기록으로 보아 제주목사 이원항, 제주판관 한이가 판각했음을 알 수 있다. 개간시기는 이들이 제주에 부임했던 태종 4년(1404)~태종 6년(1406)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현전하는 국내 最古 병서이자 현전하는 最古 제주

72) 노영구, 「조선시대 兵書 출판의 인쇄사적 성격」, 『조선의 인쇄출판 정책과 역사 발전』, 청주고인쇄박물관, 2007, 70~7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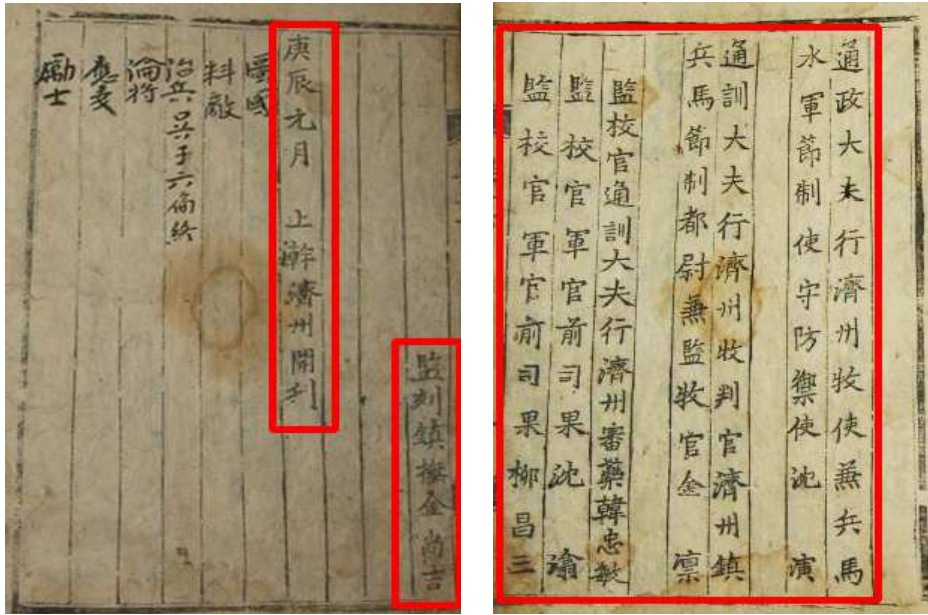
<그림 9> 태종 4년(1404)~태종 6년(1406) 제주에서 간행한 『황석공소서』(개인 소장)

도 간행서적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10종의 책판목록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장감박의』는 책판목록에서도 확인되고, 간행본도 전해진다. 인조 3년(1625)과 효종 4년(1653) 사이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⁷³⁾ 무과 복시의 한 과목이다.

『오자직해』는 전국시대 兵家의 대표학자 오기가 지은 병법서 『오자』를 명나라 유인이 주석한 책이다. 『오자』는 武經七書라 하여 조선에서도 무과를 볼 때 참고해야 할 중요한 책이었다. 『오자직해』는 최초 1577년 을해자로 간행되었으며, 1586년 목판본으로 번각되기도 하였다. 『오자직해』 제주간행본 권말 간기의 “通政大夫行濟州牧使兼兵馬水軍節制使守防禦使沈演 通訓大夫行濟州牧判官濟州鎭兵馬節制都尉兼監牧官金凜 監校官通訓大夫行濟州審藥韓忠敏 監校官軍官前司果沈滄 監校官軍官前司果柳昌三 監刻鎭撫金尙吉 庚辰六月上幹濟州開刊” 기록으로 보아, 인조 18년(1640) 상한에 제주에서 개간했음을 알 수 있다. 목사, 심약, 감교관 등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있는데 제주목사 심연이 가장 상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간행주체자는 심연으로 보인다.

73) ‘남권희, 『제주도 간행의 서적과 기록류』, 『고인쇄문화』 8집, 청주고인쇄박물관, 2001, 231쪽.’ 연구에서는 마적기록(馬籍記錄 : 萬曆肆拾捌年伍月日 旌義縣馬籍 天啓伍年拾月日大靜縣馬籍)을 통해 『장감박의』 간행시기를 인조 3년(1625) 이후부터 『장감박의』가 책판목록으로 기재되어 있는 『탐라지』의 간행시기인 효종 4년(1653) 사이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림 10> 인조 18년(1640)에 제주에서 간행한 『오자직해』(원각사성보박물관 소장)

이상으로 현전하는 제주간행 병학서적은 3종이며 <표 21>과 같다.

<표 21> 현전하는 제주간행 병학서적

	간행본명	간행연도	간행주체		
			관직	성명	업무
1	『黃石公素書』	태종 4년(1404)~태종 6년(1406)	제주목사	이원항	
			제주관관	한이	
2	『將鑑博議』	인조 3년(1625)~ 효종 4년(1653)			
3	『吳子直解』	인조 18년(1640)	제주목사	심연	
			제주관관	金凜	
			審藥	韓忠敏	監校
			司果	沈滄	監校
			司果	유창삼	監校
		鎮撫	김상길	監刻	

이렇게 제주에서 태종 4년(1404)~태종 6년(1406)에 제주에서 개간된 『黃石公素書』와 같이 最古병서가 남아있다는 점과 병서관련 책판 및 간행본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제주에서 병서가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제주에서 군사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조선시대 들어와 제주지역은 방어상 매우 중요한 곳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제주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수성과 더불어 일본과 중국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늘

주변국의 침입에 대비해야 했고, 조선후기 당시 표류선과 이양선의 출몰이 많아 지역 방어에 힘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13~16세기에 걸쳐 일어난 왜구의 빈번한 침입은 제주지역 방어에 있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이에 조정에서는 그 대비책으로 제주목사로 하여금 防禦使兼兵馬水軍節制使를 겸하게 하여 節制都尉인 대정·정의 현감을 지휘 감독하며 제주지역 전체를 하나의 독립적인 방어체제로 구축하였다. 즉, 조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제주지역이 국방상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조선정부가 이러한 제주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전라도관찰사가 가지고 있던 군현에 대한 통치행정 권한을 상당부분 위임하였고, 제주목사로 하여금 이러한 외적에 대한 대비 또는 천재지변 등의 처리가 시급한 사안들을 처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⁷⁴⁾ 이러한 당시 제주의 군사적인 문제로 인해 병서가 중요시된 것으로 보이고 15세기초 제주에서 개간된 『黃石公素書』로 인해 조선초기부터 제주가 출판기술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의학관련

조선은 성종 때부터 의학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인 의서습독관의 교육방법을 『경국대전』에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의서의 편찬, 언해서의 간행, 중국 의서의 번각과 함께 기존 의서들을 간행하여 민간에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醫書類聚』, 『鄉藥集成方』의 축약 언해본, 『救急方』, 『食料撰要』, 『醫方要錄』 등을 간행하였다.⁷⁵⁾ 이미 태조 2년(1393)에 『향약혜민경험방』을 각 도에서 익히게 했고⁷⁶⁾ 이후 『탐라지』(1653) 책판목록에서도 『경험방』책판이 확인된다. 세종 13년(1431)에는 제주의술을 지적하며 『馬醫方』을 별도로 가르칠 것을 명하기도 했다.

① 제주 사람은 醫術이 정밀하지 못하여 3읍의 병든 사람을 구료하기 어렵고,

74) 김상옥, 「조선후기 제주지방의 군사제도 -牙兵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16호, 1996, 275쪽.

75) 신양선, 『조선초기 서지사연구』, 해안, 2012, 109쪽.

76)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1월 29일 을해조, ‘全羅道按廉使金希善報都評議使司曰: 外方無通曉醫藥者, 乞於各道遣醫學教授一員. 每於界首官, 置一醫院, 選聚兩班子弟, 以爲生徒, 擇其識字謹厚者, 定爲教導, 令習《鄉藥惠民經驗方》, 教授官周行講勸, 定屬採藥丁夫, 以時採取藥材, 依方劑造, 有得病者, 隨即救療.’

… 『馬醫方』도 역시 별도로 가르치고, 檢律의 체임 기한과 律文의 教誨도 교유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소서.⁷⁷⁾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종 21년(1439)에 검시의 보고서를 쓰는 서식인 「검시장식」을 제주에서 직접 간행하게 한 사례에서는 「검시장식」의 중요성과 당시 제주지역이 출판기술을 보유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조선은 馬政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후 말을 어떻게 사육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이에 따라 말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말의 관리를 위해 수의서의 편찬을 시도했다.

- ② 중추부동지사 서거정에게 명하여 『馬醫書』를 편집하게 하였다. 임금이 馬政에 마음을 두어 말을 먹여 기르고 다스리는 법을 여러 신하와 衛士에게 물으니, 각각 보고 듣고 경험한 일로써 진술해 아뢰었는데, 이에 이르러 서거정에게 명하여 편찬하게 하였다.⁷⁸⁾
- ③ 사간원 대사간 손비장 등이 劄子를 올리기를, “신은 그웁이 생각하건대, 司僕寺는 馬政을 관장하니, 그 임무가 진실로 중합니다. 그러나 調養하는 자로는 養馬가 있고, 병을 다스리는 자로는 馬醫가 있으며, 그 수효를 징험하자면 馬籍이 있으니, 관리로 말하면 다만 그 직분에 부지런할 따름입니다. …”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⁷⁹⁾

위의 기록들은 세조 12년(1466) 세조가 말을 기르고 다스리는 법을 모아 서거정에게 『마의서』를 편찬케 하고, 성종 8년(1477) 대사간 손비장 등이 올린 차자의 내용 중에 ‘調養하는 자로는 養馬가 있고, 병을 다스리는 자로는 馬醫가 있다’라고 하면서 말의 병을 다스리는 馬醫를 언급하고 있다. 즉 조선은 말의 사육과 관리를 위해 『마의서』의 편찬과 마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⁰⁾ 특

77) 『세종실록』 권52, 세종 13년 4월 11일 을사조, ‘… 濟州人醫業不精, 三邑病人, 未易救療. … < 馬醫方 >, 亦別教誨, 檢律遞期及律文教誨, 亦依教諭例施行.’

78) 『세조실록』 권38, 세조 12년 4월 14일 갑인조, ‘命中樞府同知事徐居正, 編輯馬醫書. 上留心馬政, 訪問喂養理治之法於諸臣及衛士, 各以所見聞經驗之事陳啓. 至是, 命居正撰次.’

79) 『성종실록』 권81, 성종 8년 6월 17일 임자조, ‘司諫院大司諫孫比長等上劄子曰: 臣竊惟司僕寺掌馬政, 其任固爲重矣. 然調養則有養馬, 治病則有馬醫, 驗其數則有馬籍, 若官吏則但勤於其職而已… 不聽.’

80) 이종봉, 『조선전기 경상도의 목장 연구』, 『지역과 역사』 24호, 부경역사연구소, 2009, 52쪽.

히 제주는 牛馬사육에 지리적, 환경적으로 육지에 비해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수의서가 중요시 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와 관련해 『조선왕조실록』에서 제주에 서적을 보급하거나 판각을 명한 기록과 10종 책판목록에서 의학 관련 책판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의학관련 책판목록

문헌명	*세종실록	*세조실록	고사 촬요	탐라지	지영록	증보 탐라지	고책판 유취고	제주읍지	제주대정 정의읍지	임원 십육지	누판고	탐라지 초본
시기	1439년	1466년	1585년	1653년	1696년	1765~ 1766년	1776년 이전	1780~ 1789년	1793년	1796년	1796년	1841년
서적· 책판명	검시장식	구급방		구급방 경험방 마우방			마의 마의	마의				마의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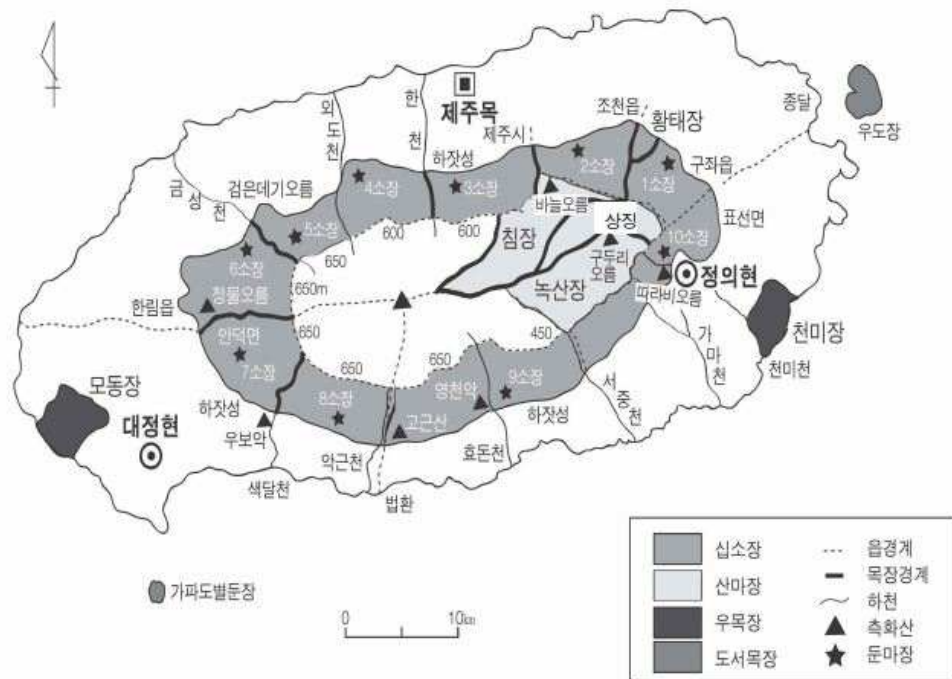
* 『조선왕조실록』에서 제주에 서적을 보급한 기록

앞서 본 책판들과 마찬가지로 <표 22>의 의학 관련 책판들을 직접 제주에서 인쇄했는지, 중앙정부에서 보급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실록의 기사를 통해 「검시장식」은 직접 제주에서 인쇄하게 했고 나머지 서책은 중앙에서 보급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현전하는 제주간행 의학 관련 서적으로 『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이 있어 이 서적 역시 제주에서 자체적으로 인쇄했음을 알 수 있다. 『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은 소와 말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수의학서로 정종 원년(1399) 강원도에서 초간된 뒤 전주·의주·제주 등 각 지역에서 중간되었다. 이 책은 고려시대 수의학전통을 이어 온 전문의방서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 책의 간행 목적에서 본다면 군사적으로 牛馬의 중요성과 더불어 고려부터 이 지역에 내려온 목장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책이었다.⁸¹⁾ 권말 간기의 “崇禎六年正月日濟州開刊” 기록을 통해 인조 11년(1633)에 제주에서 개간했음을 알 수 있고 <표 22> 책판목록에서 확인되는 『마우방』, 『마의』, 『마의방』과 동일서책으로 보인다.

조선전기에 말은 대내적으로 驛馬 및 戰馬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명나라와의 외교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았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조선초기부터 조정에서는 고려시대의 목장을 재정비하거나 신설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제주에서는 해안지대와 중산간 지대에 산재하고 있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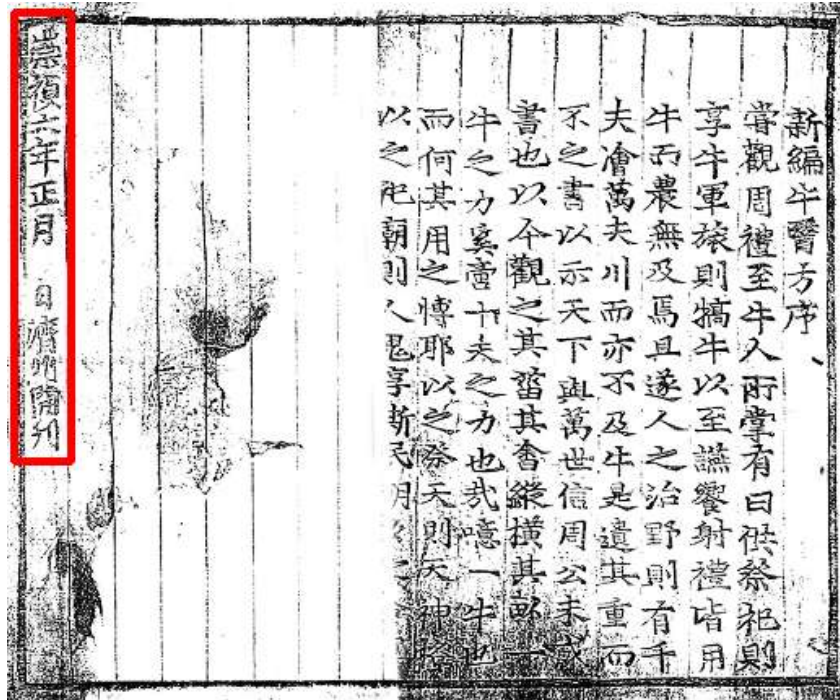
81) 남권희, 「제주도 간행의 서적과 기록류」, 『고인쇄문화』 8집, 청주고인쇄박물관, 2001, 224쪽.

목장들을 재정비하여 해안지역에 산재했던 목장들을 중산간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이 지대를 목장지대로 전문화하였다. 또한 1430년경부터는 이 지대에 165리 규모의 잣성이 주민들에게 할당되어 수평적으로 축조되면서 대표적인 관영목장인 十所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⁸²⁾ <그림 11>과 같이 해안과 부속 도서에도 목장이 설치되어 해안 취락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방목지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당시 제주는 우마사육의 중요도가 강조됐으며 이로 인해 『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과 같은 수의서의 자체간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은 의학연구를 위한 전문서적이 아닌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목적에 충실한 서적인 것도 주목할만하다.



<그림 11> 조선 후기 제주도 목장분포도(강만익,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2쪽.)

82) 송성대·강만익, 『조선시대 제주도 관영목장의 범위와 경관』, 『문화역사지리』,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1, 145쪽.



<그림 12> 인조 11년(1633) 제주에서 간행한 『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고려대학교 소장)

5) 문집관련

여말선초의 문집은 극소수의 名賢 중 일부만이 후손 또는 왕명에 의해 간행되었고, 조선을 대표하는 名人의 저술이라도 간행의 인식이 부족하여 유고가 유실되거나 불완전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조정에서는 역대 명현들의 문장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집 간행을 권장하였다.

중앙에서 이루어지던 문집 간행과 배포는 그 한계로 인해 지방의 물적 자원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는 지방관아에서 문집 간행이 성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명현의 문장을 보존하려는 공적 대의와 개인으로서의 지방관이 선조 유고를 보존하려는 사적 목적이 부합되면서 지방관 주도의 문집 간행은 州府郡縣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되어 갔던 것이다. 문집 간행은 경제적 부담이 뒤따랐기 때문에 일반 私家 또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선조의 문집 간행을 계획하였던 후손들은 유고를 수집·편찬하여 外職으로 제수되기를 기다렸고, 지방관에 제수되면 바로 간행사업에 착수하는 형태를 띠기도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봉급 및 지방관아의 물적 자원과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16세기부터 18세기 초반에 지방관이 주도하는 지방관아의 문집 간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방관이 주도한 문집 간행에 있어 주목해야 할 점은 부임 지역 인물의 문집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기보다는 지방관과 사적인 관계로 얽혀있던 인물을 중심으로 문집 간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⁸³⁾ 제주 역시 지방관에 의한 문집간행을 3건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10종의 책판목록에서 문집관련책판을 정리하면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문집관련 책판목록

문헌명	고사촬요	탐라지	지영록	증보 탐라지	고책판 유처고	제주읍지	제주대정 정의읍지	임원 십육지	누판고	탐라지 초본
시기	1585년	1653년	1696년	1765 ~ 1766년	1776년 이전	1780 ~ 1789년	1793년	1796년	1796년	1841년
서적· 책판명		당시절구								
		옥호빙								옥호빙
		속청구 풍아초								
				영해창 수록	영해창 수록	영해창 수록	영해창 수록		영해창 수록	영해창 수록
		포은집								
		충암집								
		동명집								
				밀산세고	밀산세고	밀산세고	밀산세고	밀산세고	밀산세고	

제주소장책판목록에 수록된 문집류는 총 8종이고 이 중 3종은 중국문집이다. 『탐라지』 책판목록의 『당시절구』, 『옥호빙』, 『속청구풍아초』, 『포은집』, 『충암집』, 『동명집』은 숙종 3년(1677) 화재로 모두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탐라지』(1653)에 『옥호빙』 책판이 기록된 이후 계속 기록에 없다가 『탐라지초본』(1841)에 기록됐는데 이는 1677년 화재 이후 1841년에 새로 개간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 간행했고 현전하는 문집류는 『석천선생시집』, 『초암집』, 『영해창수록』, 『근재선생집』 총 4종이다. 이 문집류 4종도 본문 및 간기를 통해 간행자와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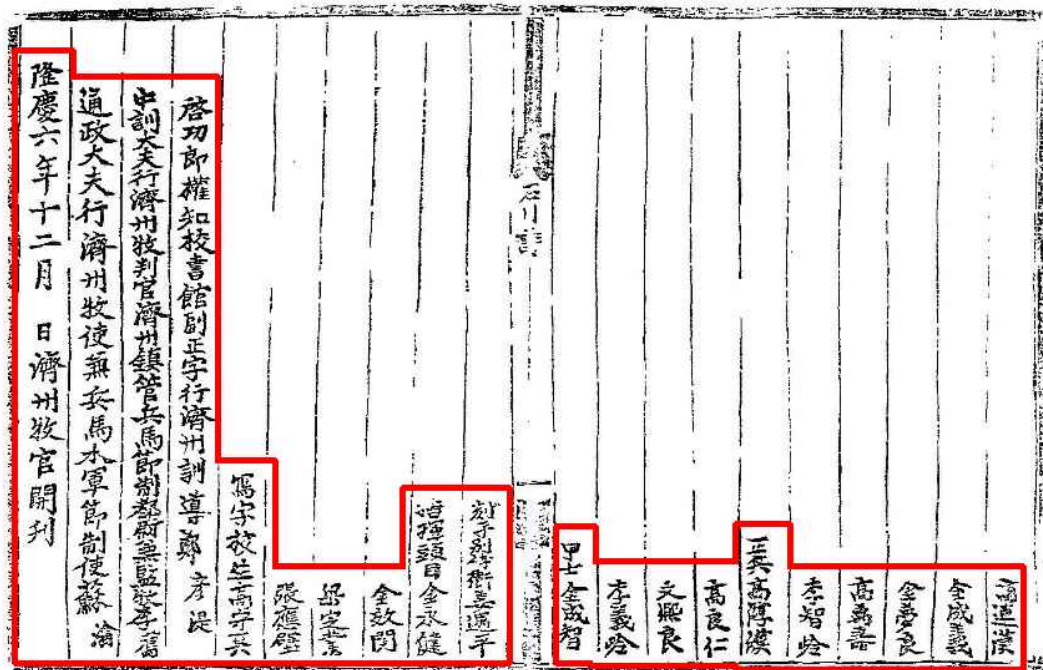
83) 손계영, 「지방관과 선조문집간행」, 『영남학』 제15호, 2009, 233쪽.

(1) 석천선생시집

석천 임억령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고 제주도와의 인연은 없지만 그의 초간 문집은 선조 5년(1572) 12월 제주목관에서 개간됐다. 『석천선생시집』은 서문이나 발문이 없으며 마지막장 간기에 의하면 간행연대가 융경 6년 즉 선조 5년(1572)이고 석천 사후 4년째 되던 해이다. <그림 13>과 사료 ①과 같이 문집간행에 참여한 인물 19명의 직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11명은 성명만 기재되어 있다.

① 『石川先生詩集』 刊記 : 隆慶六年十二月日濟州牧官開刊 通政大夫行濟州牧使兼兵馬水軍節制使蘇滄 中訓大夫行濟州牧判官濟州鎮管兵馬節制都尉兼監牧李薦 啓功郎權知校書館副正字行濟州訓導鄭彥湜 寫字校生高守眞 張應壁 梁定業 金效閔 指揮頭目金永健 刻字別侍衛姜遇平 甲士金成智 李義齡 文熙良 高良仁 正兵高淳漢 李智齡 高禹壽 金夢良 金成義 高連漢.

위에 표기된 직책 중에 정병, 갑사, 각수별시위, 지휘두목, 사자교생은 중인 이하의 신분이 담당하는 하위직이다. 실질적인 간행자로 보이는 인물은 제주훈도 정



<그림 13> 선조 5년(1572) 제주에서 간행한 『석천선생시집』(고려대학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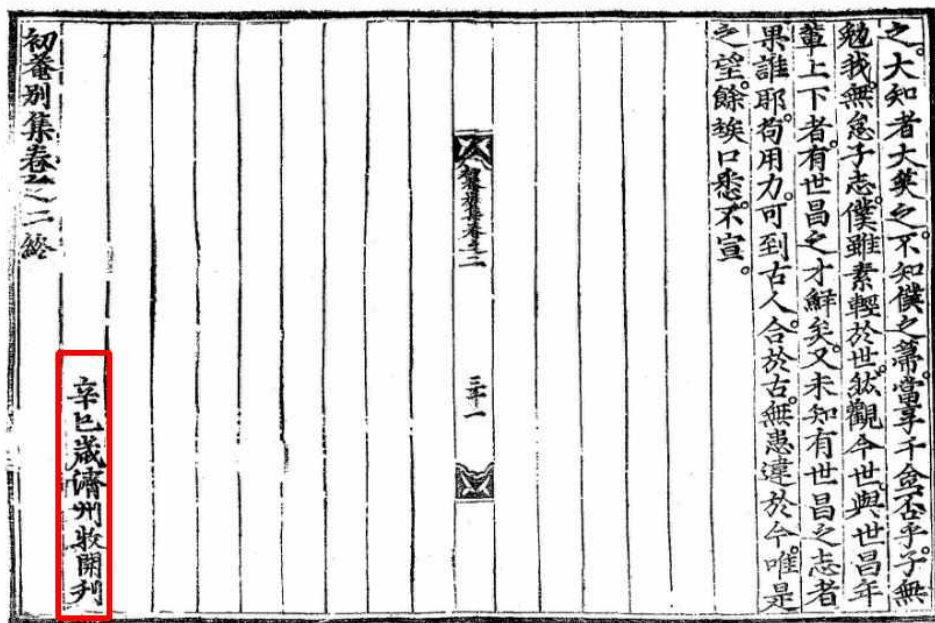
언식, 제주 감사 이천, 제주목사 소흙으로 그 중 소흙은 석천 만년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를 지낸 인물이고 정언식은 석천의 제자이며 족질이다. 그러므로 소흙이 간행을 주관하고 정언식이 간행실무를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록된 작품 중에는 정언식과 관련된 작품이 두 편이나 있는데 이것은 정언식이 보관하고 있던 시고를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⁸⁴⁾ 석천 임억령이 정언식에 대해 지어준 시가 석천선생시집에 여러 편 남아 있어 그 친분관계를 알 수 있다. 석천이 별세하자 유교집 간행을 결심하고 호상이었던 수사 소흙이 제주 목사로 전입하자 훈도를 따라 4년 후인 선조 5년(1572)에 『석천선생시집』을 목판으로 간행했다.

(2) 초암집

『초암집』은 조선 후기학자 신흠의 시문집으로 숙종 27년(1701) 제주목에서 개간했는데 권말 간기내용은 아래와 같다.

② 『初庵集』 刊記 : 辛巳歲濟州牧開刊(歲黑馬李亞使周卿印送 板自耽羅移置海南縣)



<그림 14> 숙종 27년(1701)제주에서 간행한 『초암집』(국민대학교 소장)

84) 박은숙, 『석천집의 판본』, 『민족문화』 제 16집, 1993, 1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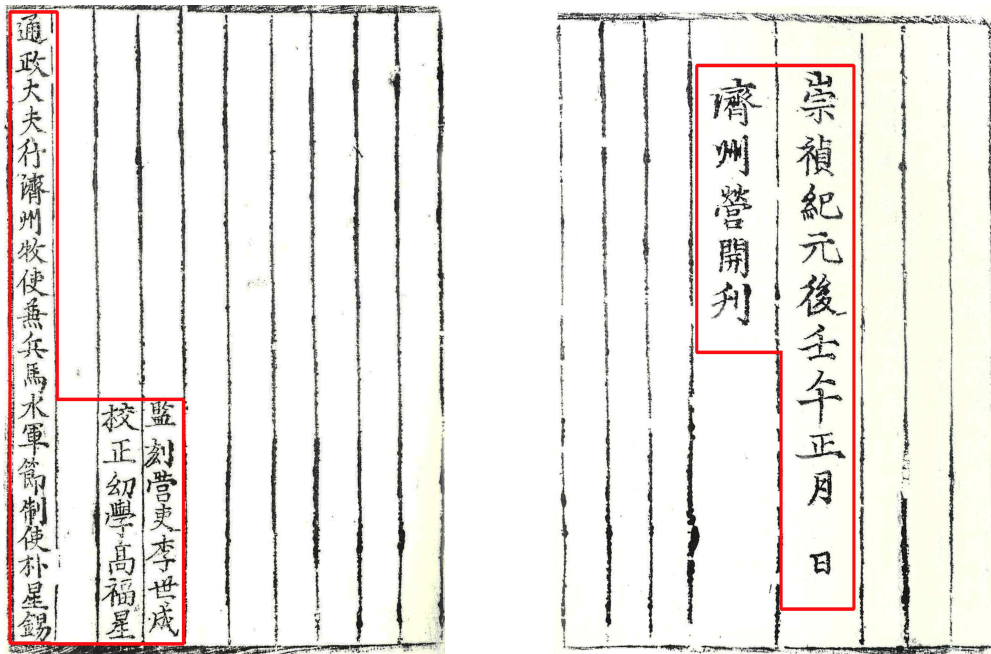
“歲黑馬李亞使周卿印送 板自耽羅移置海南縣” 부분은 소장자의 필사기록으로 보이는데, 판목을 제주에서 해남현으로 옮겨놓았다는 내용이다. 제주에서 간행한 바로 다음해에 판목을 옮겨와 해남현에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간행주체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제주목사 박성석이 간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3) 영해창수록

『영해창수록』은 중종 35년(1540) 제주목사로 도입한 조사수와 중종 36년(1541) 영월군수로 부임한 박충원 두 사람이 수창한 시를 엮어낸 것이다. 박성석은 박충원의 후손으로 제주목사로 도입하자 선조 박충원의 문집을 숙종 28년(1702)에 제주목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 간행경위를 알 수 있는 『영해창수록』의 간기부분과 남구만서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嶺海唱酬錄』刊記 : 崇禎紀元後壬午正月日 濟州營開刊 監刻營吏李世成 校正幼學高福星 通政大夫行濟州牧使兼兵馬水軍節制使朴星錫.’

④ 제주목사 박성석군이 장차 부임할 즈음 나에게 지난 과거의 일에 대해 말을 하기를 … **저의 5대조 선조께서는 휘가 충원이요**, 자가 중초, 호가 낙촌이시운데, 벼슬은 이조판서와 문형인 대제학을 역임하셨습니다. 공께서는 일찍이 조정에서 미움을 받길 아관 임백령의 시기로 말미암아 영월군수로 출척되었던바 … 한편 공이 조정에서 함께 놀았던 **가까운 친구 분 중에, 조사수 공이 계셨는데 그분 또한 조정에서 미움을 사서 제주목사로 좌천되었던 바** 우리 선조 공보다 먼저 부임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때 공과 더불어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 두 사람의 임지가 비록 산과 바다인 곳이라서 서로 떨어져 있을지언정 우편왕래는 가능할 것이기에, **신문장을 창수하며 우정의 희포를 풀면서 위로토록** 합시다.” 그래서 수년간에 걸쳐서 마침내 한편의 책을 이루게 되었으니 … **마침 저의 부임지인 제주가, 한 때 조공이 머물면서 저의 선조와 수창했던 곳이기도 해서** 제 마음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제 이 책을 출간해서 두 집안의 자손들에게 나눠 갖도록 하여 보전시키고자** 할 참이옵니다.⁸⁵⁾



<그림 15> 숙종 28년(1702) 제주에서 간행한 『영해창수록』(개인 소장)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편찬일시는 숙종 28년(1702) 1월, 편찬처는 제주영, 監刻은 營吏 이세성, 校正은 幼學 고복성, 간행주체자는 제주목사 박성석으로 관직을 이용해 사적인 선조문집을 간행한 사례이다.

(4) 근재선생집

『근재선생집』은 고려 말기의 문인 안축의 문집이다. 후손들에 의한 몇 번의 간행을 거쳤고, 14대손 안경운이 제주목사로 도입하자 영조 16년(1740)에 제주에서도 증보하여 목판으로 간행했다. 근재선생집의 안경운 발문과 간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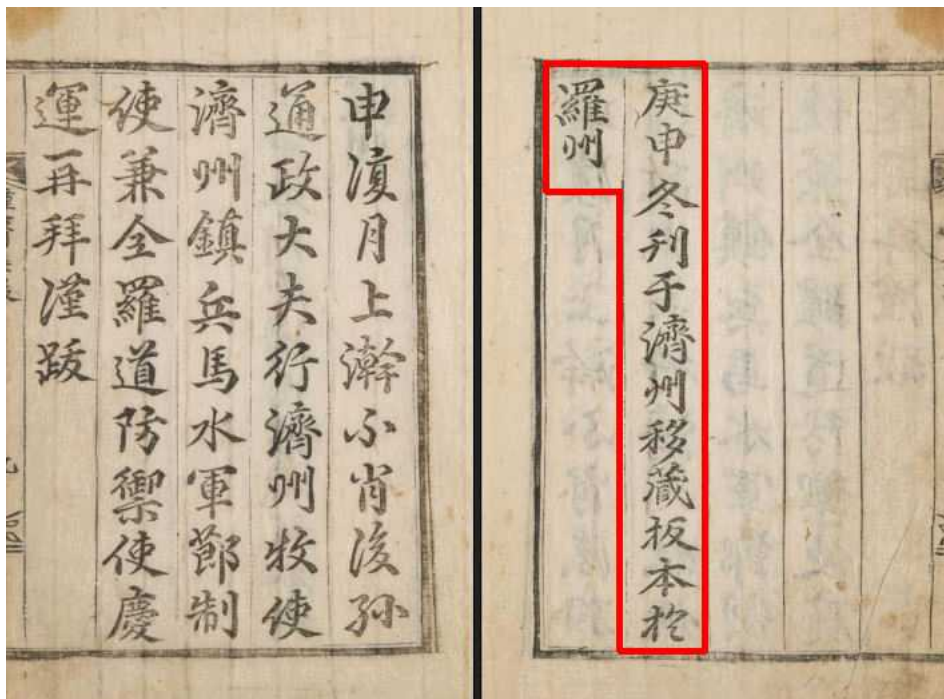
- ⑤ 우리선조 근재선생께서는 ... 이제 내가 임금님의 고마운 명령을 받아 제주의 수령으로 오니 고을의 모양이 비록 쇠잔했으나 장인이 있으니 곧 새기는 일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착수하여 드디어 재목을 모으고 역사를

85) 조사수 박충원 공저, 『(역주)영해창수록』, 제주시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2011, 45쪽, ‘남구만 序文：濟州牧使朴君星錫將赴官過辭余曰’

시작하여 수개월이 지난 다음 완성하였다. 아! 백수년 겨를을 내지 못했던 일이 또한 오늘을 기다린 바가 있었던 것일까. 또 그 사선생의 덕행과 사업은 본전과 비문에 가히 증거 되어 있어 이제 어찌 번거러움을 더하랴마는 진실로 사선생의 관직, 위계와 집의 호는 세과 같림의 하나가 되어 책을 펼 때 바로 분명하게 하고자 생각하니 살펴보면데 편리하게 하려면 역시 부득불 그 전말을 대략 적지 않을 수 없다.⁸⁶⁾

⑥ 『齋先生集刊記』 刊記 : 庚申冬刊于濟州移藏板本於羅州

『근재선생집』 역시 관직을 이용해 선조문집을 간행한 경우인데 간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주에서 간행 후 판본을 나주로 옮겨갔다. 옮긴 경위는 확인되지 않지만 후쇄의 편의를 위해서일지 모르겠다.



<그림 16> 영조 16년(1740) 제주에서 간행한 『근재선생집』(규장각 소장)

86) 안축, 『근재선생집』, 跋文 : 嗚乎. … 吾先祖謹齋先生…今余承恩命. 來守耽羅. 邑樣雖殘. 匠手既存. 則剗劂之舉. 不可少緩. 遂乃鳩材創役. 閱數月而成. 噫. 百數年未遑之事. 其亦有所待於今日耶. 崇禎紀元後庚申復月上澣. 不肖後孫通政大夫. 行濟州牧使. 濟州鎮兵馬水軍節制使兼全羅道防禦使慶運. 再拜謹跋.

이상으로 현전하는 제주간행 문집은 총 4종으로 <표 24>와 같다.

<표 24> 현전하는 제주간행 문집

	문집명	저자	간행연도	간행 형태	간행주체			저자와 간행주체 관계	판본이동
					관직	성명	업무		
1	『석천선생시집』	임억령	선조 5년 (1572)	初刊	제주목사	소흡		호상	
					제주훈도	정언식		제자 겸 친족	
2	『초암집』	신혼	숙종 27년 (1701)	初刊	(제주목사)	(박성석)		제주→ 해남현	
3	『영해창수록』	박충원, 조사수	숙종 28년 (1702)	初刊	제주목사	박성석		박충원의 6대손	
					營吏	이세성	監刻		
					幼學	고복성	校正		
4	『근재선생집』	안축	영조 16년 (1740)	重刊	제주목사	안경운		14대손 제주→ 나주	

<표 24>의 내용과 같이 문집 4종 중 3종이 저자의 본관이나 출생지와는 관련이 없는 제주에, 후손이나 문인이 목사로 부임하면서 목관으로 간행되었다. 관직을 이용해 선조문집을 간행한 경우이다. 이 중 『영해창수록』만 책판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책판은 책판목록에서 확인할 수 없다. 『초암집』과 『근재선생집』은 간행 후 타 지역으로 판본을 옮겨진 탓에 소장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 여겨진다. 『석천선생시집』은 선조 5년(1572) 제주에서 간행됐는데 이후 『고사촬요』 제주소장책판목록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앞에 언급한 문집책판들처럼 타 지역으로 판본이 옮겨가지 않았나 생각된다. 혹은 앞선 다른 유형의 책판들처럼 기록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제주목사는 외관이면서 동시에 3읍 수령을 포괄하는 임무까지 부여받게 됨에 따라 관찰사와 유사한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처럼 국왕의 특명을 받는 사신과 외관이라는 모순되는 두 가지 성격이 제주목사의 失政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제주목사의 위상이 높아지고 권한이 강화되면서 제주목사의 자질과 자격 조건이 제고되는 등 순기능이 있었지만 반면에 수령위에 군림하고 실적을 등한시하는 역기능도 생겨나고 있었다.⁸⁷⁾

이와 같은 선조문집간행은 18세기에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간행주체

87) 김진영, 「조선초기 '濟州島'에 대한 인식과 정책」, 『韓國史論』,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2, 92쪽.

자는 대부분 목사이다. 서적간행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요구하는 작업으로 물산과 인력이 부족한 제주에서는 더욱 힘든 작업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목사가 선조문집을 간행한 사례가 3건 확인되는 점은, 관직을 이용해 사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서적간행을 강행한 사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6) 예술관련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간행되거나 보급된 책판과는 달리 명필을 과시하기 위해 새긴 글씨를 새긴 서판도 다수 확인된다. 제주책판목록에서도 16~19세기 걸쳐 꾸준히 서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적벽부』는 현전간행본으로, 간기의 “萬曆二年八月初七日濟州開刊”기록으로 보아, 선조 7년(1574) 제주에서 개간했을 수 있다. 예술로 분류한 서판만을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표 25> 예술관련 책판목록

문헌명	고사찰요	탐라지	지영록	증보 탐라지	고책판 유처고	제주읍지	제주대정 정의읍지	임원 실육지	누판고	탐라지 초본	
시기	1585년	1653년	1696년	1765 ~ 1766년	1776년 이전	1780 ~ 1789년	1793년	1796년	1796년	1841년	
책판 · 서적명	완화유수	완화유수	완화유수								
			춘중		춘중서류	춘중서류	춘중첩			춘중첩	
			적벽부								
			등왕각서								
			퇴계서								
			청선서								
						안진경서	안진경서	안진경첩			안진경첩
						경제잠서	경제잠서	주자필경 재잠			주자필 경제잠
						석봉서	석봉서	석봉첩			석봉첩
						출사표	출사표				
				선묘어필대 자초서	선묘어필초 서판	선묘어필초 서판	선묘어필 초서				선묘어필 초서
			초천자	천자	천자판	천자판	천자문		천자문	천자문	
					전자판	전자판	전천자문				전천자문
					태공사필판	태공사필판					태사공필
				초서대자 중자	초서대자중 자판						

7) 기타책판 관련(소설, 역학)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조선은 유학서적 외에도 병학, 의학, 문집 등 다양한 성격의 책판을 특정목적에 의해서 간행하기도 했다. 제주지역 책판목록에도 다수는 아니지만 『전등신화』와 같은 소설과 『첩해신어』와 같은 역학 등의 책판 목록도 확인할 수 있다.

『첩해신어』는 현전하는 간행본으로 일본어 학습서이면서 역학시험교재이다. 권말 간기의 “康熙三十八年己卯孟春濟州譯學朴世英監董開” 기록으로 보아, 숙종 25년(1699)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개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제주 관직에 한역학⁸⁸⁾, 왜학, 역학⁸⁹⁾이 배치된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왜학 역관은 일본과 외교적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몇 지방에만 파견됐는데 그 중 한 지역인 제주에서 제일 먼저 『첩해신어』가 간행된 점은, 제주에서 왜학의 중요도가 높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첩해신어』는 선행연구에서 간행연대와 현존여부를 모호하게 밝혔는데, 『첩해신어』와 『통문관지』에서의 제주간개시기⁹⁰⁾가 1년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 같다. 책판목록에 기록되지 않고 현전본도 남아있지 않지만, 사료에서 간행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역학류 서책으로 『노걸대』가 있다. 『노걸대』는 중국어 회화 교과서로 『탐라지초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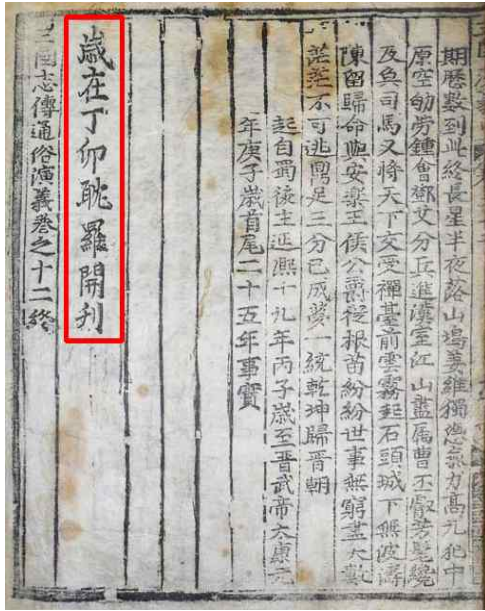
- ⑦ 倭訓導를 설치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으나 한학훈도는 없었다. 제주 사람 李德山이 7살때 중국에 표류되었는데 나이가 들어 비로소 돌아왔으니 능히 그 말을 해득하였다. 그래서 중국에서 표류해 온 배가 있으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통역을 하게하였다. 덕산이 죽은 뒤에 다시 전수할 도리가 없었다. 목사尹堦가 부임할 때 데리고 온 역학이 토박이 가운데 총명한 자를 택하여 『노걸대』와 『첩해신어』 등을 가르쳤다. 왜학생과 더불어 부서를 병설하였다. 숙종 13년(1687)에 제주사람 高尚永이 표류하여 安南에 이르렀는데 5년이 지나서 돌아와 그 말을 전하였다. 그 후에 또 안남통사가 있었다.⁹¹⁾

88) 윤시동, 『增補耽羅誌』, 官員 : 增. … 漢譯學. 一人顯廟壬子 牧使尹堦時設立.

89) 『濟州邑誌』, 官職 … 譯生五十二名 倭生五十三名 … 審樂 倭學 譯學 : 有京差出三十朝爲限.

90) 『通文館志』 券八, 什物, 捷解新語板 : 安同樞愼徽書 康熙丙辰陽坡鄭相國啓 令芸閣鑄字印行 庚辰濟州(兼)軍官朴世英刊板于濟州.

91) 『耽羅誌草本』, 舊例 譯學生 : 倭訓導設置已久而無漢州人李德山七歲漂往中國年長始還能解其語故差有中漂船使此人爲通事德山死沒更口傳後牧使尹堦時帶口學譯土人中聽敏者教老乞大捷解新語等書



<그림 17> 인조 5년(1627) 제주에서 간행한 『삼국지연의』(국립제주박물관 소장)

『첩해신어』와 함께 『노걸대』를 가르쳤다는 것은 제주에 당시 『노걸대』가 있었고, 책판간행도 추측할 수 있다. 책판목록에는 없지만 소설 『삼국지연의』도 권말 간기의 “歲在丁卯耽羅開刊”의 기록으로 보아, 인조 5년(1627)에 제주에서 개간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제주지역은 유학서적 외에도 병학, 의학, 문집, 역학, 소설 등 다양한 성격의 서적을 중앙정부로부터 보급 받거나, 특정목적에 의해 서적을 자체 간행하기도 했음이 확인된다.

2. 책판고의 운영과 출판관련 활동

1) 책판고의 운영

책판고는 책을 소장하는 창고로 책판고의 책판목록은 현존 고서의 간행지와 간행년도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더욱이 조선은 성리학체제이해를 위한 도서보급 정책의 하나로 지역마다 책판고를 유지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했다. 책판고는 책고·서적고·경적고·장서각·존경각 등의 이름으로 독립된 공간에 설치되었다. 물론 독립된 건물로 설치되지 못한 경우에는 향교 동재의 벽장에 서적을 보관하기도 하였다. 대출의 절차는 까다로워 교생들 외 대부분 열람이 불가능했고, 책판고의 서적 관리는 실질적으로 校任이 담당하였으나, 최종 책임자는 결국 수령이었다.

책판고를 운영하고 책판고에 책판이 소장되어 있다는 것은 인쇄가 가능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인쇄된 책들을 보관, 보급할 수 있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도서보

□倭學生並廳 肅朝丁卯州人高尚永剽到安南五年而極傳其語奇□又有南通事.

급정책의 면모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⁹²⁾

① “성균관은 풍화의 근원이요, 인재의 연수인데, 지금 藏書가 얼마되지 아니 하여, 배우는 이들이 불편해 합니다. 청컨대 文武樓의 예에 의하여 모든 經史는 印出함에 따라서 이를 소장하게 하소서. 그리고 州·府·郡·縣의 학교가 영성하며, 교수하는 자가 熏회를 일삼지 않고, 구차스럽게 세월만 보내며, 수령 또한 여사로 보아, 龔舍에 이르러서도 또한 修葺을 하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향교의 건물과 서적을 아울러 解由에 기록하도록 하고, 또 학교의 습을 거듭 밝혀서 문풍을 떨치게 하소서.”하니, 임금의 이를 받아 들었다.⁹³⁾

하지만 위의 기록을 살펴보면, 성균관조차 소장도서가 부족하여 유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고, 향교 역시 교수와 수령의 태만함으로 교육은 물론 향교 건물과 서적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지방 책판고의 관리 역시 대체적으로 소홀해 책판상태도 훼손이 심한 편이었다. 제주 또한 여러번의 화재와 책판고의 관리소홀로 당시 소장책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표 26> 제주 책판고 위치

	문헌명	위치	내용
1	『탐라지』(1653)	향교	倉庫: 冊板庫 在 鄉校 ….
		명륜당 西夾	學校: 明倫堂 : 堂之東夾爲齋室 西夾藏書冊.
2	『지영록』(1696)	향교 東齋	增減 十事: … 無藏閣權置於 鄉校東齋 ….
3	『증보탐라지』 (1765~1766)	옛향교	倉庫: 補. 冊板庫 在 舊鄉校.
4	『제주읍지』 (1780~1789년)	관덕정 동쪽	倉庫: 冊板庫 在 觀德亭東.
5	『탐라지초본』(1841)	남성 안	倉庫: 冊板庫 在 南城內.
6	『제주군읍지』(1899)	구교동	倉庫: 冊板庫 在 舊校洞.
7	『탐라기년』(1918)	향교 옆	庚申 肅宗六年(1680): 牧使任弘望 建冊庫于 鄉校傍 開刊冊板.

92) 양진건, 「세종조 도서보급 정책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교육사상연구』 제16집,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05, 55쪽.

93) 『성종실록』 권50, 성종 5년 12월 2일 계미조, ‘御經筵. 講訖, 領事韓明澮啓曰: "成均館, 風化之源, 人才淵藪, 今藏書鮮少, 學者病焉. 請依文武樓例, 凡經史隨所印藏之. 州, 府, 郡, 縣學校疏闊, 爲教授者, 不事訓誨, 苟度日月, 守令亦視爲餘事, 至於龔舍, 亦不修葺. 請自今鄉校室宇, 書冊並錄解由, 又申明學校之令, 以振文風." 上納之. 明澮又啓曰: "臣嘗請築諸鎮之城. 國家昇平日久, 須及此時預爲之備. 若有變故而築之晚矣, 請遣大臣, 定期築之." 上曰: "雖不遣大臣, 使監司定期築之, 則庶可成矣.”

우선, 문헌상에서의 제주 책판고 위치를 살펴보면 대부분 향교 안이나 향교 옆이었는데 그 내용은 위 <표 26>과 같다. 책판고 위치를 『탐라지』, 『지영록』, 『증보탐라지』, 『제주군읍지』에서는 향교안이라고 기록했고, 『제주읍지』에서는 관덕정 동쪽, 그리고 『탐라기년』에서는 향교옆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당시 제주의 책판고는 대부분 향교안에 있었다. 또한 『탐라지』에서는 제주향교의 명륜당 서쪽작은방에 서책을 보관했다고 기록했고, 『지영록』에서는 책판을 보관할 장각이 없어서 제주향교 내에 있는 東齋에 보관했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당시 제주지역 책판과 서적은 독립적인 공간에서 보관되지 못하고 제주향교 내 명륜당의 일부공간에서 보관되거나 기숙사인 東齋에 보관됐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제주의 책판고는 여러 번의 대화재로 소실되고 재설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소장되어 있던 책판들도 소실되서 재개간하거나 중앙에서 다시 보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주의 책판과 서적의 보관환경은 다소 좋아보이지 않는데 당시 책판 상태에 대한 기록은 앞서 III장에서 살펴 본 『임원십육지 경외누판』과 『누판고』의 책판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임원십육지 경외누판』과 『누판고』에서는 책판상태를 따로 기재해 당시 보관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각 책판명 뒤에 “刵缺”의 여부를 표시해 글자가 닳아 없어짐을 나타냈는데 『임원십육지 경외누판』의 17종 중 12종 책판이 “刵缺”표시⁹⁴⁾이고, 『鏤板考』의 20종 중 11종이 “刵缺”표시⁹⁵⁾이다. 이렇게 대부분 책판에 “刵缺”표시가 되어있어 제주목 책판소장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외 당시 제주지역 책판과 서적관리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 ② 탐라지도는 예전에 판각이 있었지만 여러 해가 지나 오래되어 닳고 이지러졌으며, 또한 크기가 커서 병자나 죽자로 만들기에 불편했다 ... 들으니, 제주인 중에 선비 고경욱이란 자가 영주십경을 그리는 데에 능한데, 예전 것을 그대로 본떠 새기면서 지도의 크기를 예전과 비교하여 3분의 1로 줄였다 한다. 마을의 이름과 오름, 하천 중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은 생략하여 번거로운 것을 버리고 간략한 것으로 나아갔고, 먹을 채색으로 바꾸어 눈을

94) 본고 26쪽 “<표 10> 『林園十六志 京外鏤板』(1796년 이전)에 나타난 제주지역 책판목록” 참고.

95) 본고 27쪽 “<표 11> 『鏤板考』(1796년)에 나타난 제주지역 책판목록” 참고.

즐겁게 하여 편히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죽자로 꾸며 벽에 걸어두니 구름 덮인 바다가 아득하게 펼쳐졌고, 한라산이 빼어나게 우뚝하며 망루와 성곽의 배치, 백성들이 사는 마을과 집들의 분포, 포구와 방어소, 초하루 진헌의 수, 바다 밖 먼 여러 나라의 방향과 멀고 가까움이 한 눈에 모두 다 들어왔다. 이에 와유의 자료로 삼을 수 있고, 이에 다스림에 도움이 될 만하였다.⁹⁶⁾

③ 工禪에게 장관각에 가서 판각을 검열하게 했다. 본주는 예전에 사서관본이 있었고 사기, 잡서, 서첩의 모각은 그 수가 심히 많았는데 **오래도록 인쇄하지 않고 줄곧 판각을 버려두어 백개 중에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옛 기록에 등재되어 있는 옥호빙, 목민심감 등의 책은 애초에 남은 자취가 없고 남아있는 것 또한 쓸 수가 없다.** 그 가운데 선조어필과 주자 경제잠, 석봉첩, 춘종첩, 연천자, 상례비요, 소학, 통감 등의 판본은 인쇄하여 조금이라도 인출할 수 있다.⁹⁷⁾

④ 성주군수 오현상에게 답함

… 편지에 부탁한 것은 학식이 넓고 성품이 단아한 이가 옛 것을 즐기는 각별한 취향임을 알겠습니다. 감히 지체할 뜻은 없지만 무엇보다도 **책을 사달라는 부탁은 뽕에서 유생을 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방의 풍속은 거칠고 어리석으며 유생이라는 자는 집에 책 한 권도 쌓아두지 않고 다만 학교에 간직해 둔 것에서 빌려 읽습니다. 백년 이전은 곧 끈으로 매듭을 지어서 일을 기록했던 시대였으니 어디에서 감춰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서북이 다녀갔을 때 책을 불살라버린 것은 아니겠습니까? 고을에 부임해 왔던 이들 또한 **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감춰뒀던 판본이 모두 썩어버려 옥호와 심감같은 책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개 땅이 습하여 잘 썩고 종이가 귀하여 드물게 찍어내었기에 적고의 저화와 함께 어찌 오래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어떠한 희귀한 문적이라도 오히려 그러하니 이와 같은 것을 이루다 개탄할 수가 없습니다. 와서 얼마 안 되었을 때 문원의 제공이 나에게

96) 이원조, 『耽羅錄』, ‘耽羅地圖 小識 : 耽羅地圖 舊有板刻 而年久剝缺 且體樣大 不便於屏簇 聞 州人高生敬旭者 能畫瀛州十景 仍舊刻模 地圖間架 比舊減三分之一 坊里村名及培塿 溪澗 無名者畧之 刪架就簡 換墨以彩 取悅眼而便覽 粧爲簇 掛之壁上 雲海浩渺 瀛岳挺峙 樓櫓城郭之布置 人物閭井之周匝 浦津防守之所 月朔進獻之數 外洋諸國之方向遠近 一寓目而盡得之 斯可以助出治 …’

97) 이원조, 『耽羅錄』, ‘初二月 晴 : 使工禪往藏板閣 檢閱板刻 本州 舊有四書板 及史記雜書書帖模刻 其數甚夥 而久模印 一直拋閣 腐朽破傷百不存一 舊誌所載玉壺氷牧民心鑑等書 初無形迹而存者亦無用 其中宣廟御筆 朱子敬齋箴 石峯帖 春種帖 篆千字 喪禮備要 小學 通鑑等板 可印畧印出’

읍지를 중수하도록 하기에 고을의 인사를 만나 문득 옛 사적을 찾아 물으면 모두가 들은 것을 모아서 입을 벌리기는 하는데 그 무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⁹⁸⁾

사료 ②는 『탐라지도』의 제작경위에 대한 기록인데, 당시 제주목사 이원조의 명으로 고경욱이 새로 제작했다. 『탐라지도』 내 ‘康熙己丑正月李等開刊’의 기록으로 보아 기존의 『탐라지도』의 간행시기는 숙종 35년(1709)李 등이 개간했음이 확인되는데 당시 제주목사인 이규성으로 추정된다. 위 기록을 보면 『탐라지도』는 예전에 판각이 있었지만 낡고 닳아 활용하기 힘들었음을 알 수 있다.

사료 ③에서는 이원조가 제주목사로 재임하던 현종 7년(1841)~현종 9년(1843) 당시 남아있던 책판에 대해 기록했는데, 工裨에게 장관각에 가서 판각을 검열하게 했고, 예전에는 판본이 많았으나 당시는 판각을 할 수 있는 책판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유학책판 및 서판 등 8종이 남아있어 조금이나마 인쇄는 가능했음이 확인된다.

사료 ④는 목사 이원조가 서책을 요청한 성주군수 오현상에게 답신한 내용이다. 제주는 풍속이 거칠어 유생들의 집에도 책이 없으며 관에도 책이 남아있지 않음을 지적했고, 더욱이 땅이 습하여 잘 썩고 종이가 귀해 드물게 찍어내 희귀한 문적이라도 보관상태가 좋지 않다고 한탄하고 있다. 이렇게 당시 제주목의 책판보관상태는 좋지 않은 편이며, 서책 역시 구하기 힘든 환경이었다.

<표 27> 대정현·정의현 책판에 대한 기록

	사료명	책판명	지역	내용
1	『탐라지』(1653)		정의현	旌義縣 冊板: 冊板 無.
2	『고책판유치고』(1776년 이전)	사략	대정현	全羅道 濟州島: ... 大靜縣: 史略 初板一件.
3	『제주읍지』(1780~1789)		대정현	大靜縣 冊板: 冊板 史略初卷板一件.
			정의현	旌義縣 冊板: 冊板 無.
4	『제주대정정의읍지』(1793)	사략	대정현	大靜縣 冊板: 冊板 史略.
			정의현	旌義縣 冊板: 冊板 無.
5	『제주군읍지』(1899)		대정군	大靜君古誌: 軍兵冊板工匠奴婢醫局佛宇 并皆無.
			정의군	旌義邑古誌: 冊板 無.

98) 이원조, 『耽羅錄』, ‘答吳星州顯相書 : … 向書所托 可見博雅好古之癖 敢不留意 而最是購書之令 無異求章甫於粵 土俗荒陋 爲儒者 家不蓄一編 祇借讀於校儲 百年以前 便同結繩之世 何處藏得 徐福行時 未焚書耶 莅州者 又不善典守 所弄板本 俱已腐棄 如玉壺心鑑等書 無一存者 盖以地濕善朽 紙貴罕印 并與藉庫楮貨而烏有已久 此何等希貴之蹟而尙爾 如此不勝慨惋 來時一二 文苑諸公 俾余重修邑誌 逢州人士 輒蒐問古事 而皆耳呿口 其質實可知 … ’

한편, 제주목 외 대정현과 정의현 소장 책판에 대한 기록은 위 <표 27>과 같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목 외 대정현과 정의현 소장 책판목록에 대한 기록은 없고, 다만 책판고의 유무정도만 확인된다. 하지만 『고책판유처고』, 『제주읍지』, 『제주대정정의읍지』의 대정현 창고조에 『사략』 책판 한 종이 소장되어 있음은 확인된다. 『탐라지』 정의현 창고조, 『제주읍지』 정의현 창고조, 『제주대정정의읍지』 정의현 창고조, 『제주군읍지』 정의군 창고조에는 “冊板 無”라고 명시한 것으로 보아 삼읍 모두 책판고를 확보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통 제주목에서 책판을 간행하고 대정현과 정의현에 나누어 주거나, 중앙에서 서적을 보급받아 삼읍의 향교에 나누어 썼기⁹⁹⁾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조선시대 제주지역은 제주목중심으로 책판고를 운영하고 있었고, 책판고의 위치와 책판상태를 보아 책판보관환경은 그리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책판고의 운영은 곧 출판이 가능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시 제주 역시 출판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2) 출판관련 활동

『탐라지』와 『지영록』은 간행경위와 책판간행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편으로 당시 제주지역 출판활동 일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탐라지』는 효종 4년(1653) 제주목사 이원진이 간행했는데 간행경위를 신찬의 발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 지금 이태호 어은공이 제주목에 부임한 이래 民風을 상고하고 俗情을 살핀 다음 圖籍을 보니 황당무계함을 개탄하고 고을 백성들의 무지몽매함을 근심하였다. 이에 『동국여지승람』을 참고하여 고을의 자취를 살피고 또한 본 기록에 누락된 것을 모아 한편의 책으로 엮어 내었다. 그러면서 충암의 『풍토록』에서는 중요한 것을 취하였다. 使客의 樓觀에 대한 題詠은 그 화려한 것은 수집하되, 번잡한 것은 추스리고 간명한 것은 헤아려 이것을 길이 전하고자 匠人들을 모아 판각하였다 그리고 나서 士人 고흥진에게 명하여 감독과 교정을 맞게 하였다.

99) 김석익, 『심재집』, 탐라관풍안, ‘白泳鎮 … 詩書各十帙 分于三邑校院牧’

그 후 한달이 지나서 목판이 완성되었다. 목판이 완성되자 初印한 후 책판은 校宮에 비치하여 고을 사람들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였다. 이후로부터 이 고을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이 『耽羅志』를 살펴보면 될 것이다. 고금의 사실을 널리 수집하여 가려낸 후 미미한 것 까지 살폈으니, 이 고을의 인물과 정의현·대정현의 산천을 비롯하여 명승까지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다. … 癸巳季秋 上澣에 平城 後人 신찬이 삼가 跋을 쓰다.¹⁰⁰⁾

위 기록을 살펴보면, 『탐라지』는 조선전기 전국 지리지인 『동국여지승람』과 김정어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 기록한 『제주풍토록』을 참고로 하여 제주제반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간행과정에 대해서는 도내 장인을 모아 책판을 판각하게 하고 감독 및 교정은 제주목교수인 고흥진이 맡게 했다. 목판의 판각은 한달이 걸렸고 이 책판은 제주향교 내에 보관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열람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지영록』은 이익태가 숙종 20년(1694) 제주목사에 제수받고 숙종 22년(1696)에 체거될 때까지 기록한 것으로, 여기서도 책판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② 본주에 있는 책판은 일찍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어 남은 것이 없다. 그 후에 <사서언해>, 『의례문해』, 『전등신화』, 『사략』 등의 책판을 구비하였다. 그러나 책판을 보관할 장각이 없어서 제주향교 내에 있는 동재에 보관하고 있다. 봄 가을 재를 모실 때, 여러 유생들이 齋에 머무르면 그 유생들로 하여금 책판을 마당으로 꺼내어 살펴보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매우 구차하기 때문에 入番하는 하인으로 하여금 番을 면제하는 대신 藏閣의 재목을 구해 오도록 했다. 그래서 大木은 5~6명, 中木은 3~4명, 小木은 매 사람마다 나누어 모은 것을 가지고 책판을 보관할 5칸의 장각을 지어 그곳에 보관하도록 했다. 그리고 책을 인출할 때에는 齋任이 책판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도록 했다.

100) 이원진, 『耽羅志』, 終, 跋文, ‘… 今者李太湖漁隱公 刺州以來考民風察俗情慨圖籍之無稽愍鄉珉之 嘗識於是取輿地勝覽究其往蹟又采本記之闕遺 者述爲一編之書而冲庵風土之錄撮其要者 使客 樓觀之詠掇其華者刪煩就簡謀壽其傳鳩工鉅梓 而受命士 高弘進監校其役閱旬月而告訖頒印 之後置板於學宮以爲鄉人之傳覽自茲以後欲知 是州之事者觀此志足矣蒐羅今古剔抉眇微一州 人物之衆二 縣山川之勝無不備述不惟爲士者得 稽往古之事跡抑亦爲後來觀風之一助然則公之 … 癸巳季秋上澣平城後人申續謹跋’

또한 교생들이 각각 책판 제작에 필요한 판재를 하나씩 준비하여와 『소학』, 『연해상례비요』 등의 책판을 만들고 싶다하였다.

이에 영목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각수 70여명을 뽑아 각각 당번을 세워 판목을 정리하도록 하였고, 또한 그 가운데서 **판각을 잘하는 善手 10여명에게는 별도로 급료를 주고, 校正**토록 하였는데, 3개월 후 판각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 또한 선묘어필인 『대자초서』 팔첩을 판각하였다. 그리고 새로 판각한 『소학』 및 『상례』는 3질을 찍어 내어 제본한 후, 제주목 · 정의현 · 대정현에 있는 향교에 나누어 줬다.¹⁰¹⁾

위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익태가 제주목사에 재임하고 있던 17세기 후반 제주는 화재로 인하여 남아있는 책판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여러 종의 책판을 판각하여 새로 지은 장각에 보관하였다. 판각에 필요한 책판은 향교의 교생들에 의하여 판재가 공급이 되었고 판각은 제주목에 거주하는 刻手들이 담당했다. 일부의 善手들에게는 별도의 급료를 더 주고 교정의 책임도 주었다. 이러한 간행경위에 대한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책판의 간행주체자는 제주목사이다. 이 외 제주에서 간행한 서적 중 간기와 본문을 통해 비교적 간행주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거나 짐작할 수 있는 서적을 정리하면 아래 <표 28>과 같다.

아래 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시대 제주지역 책판간행주체자는 대부분 제주목사이다. 권말 간기에는 간행자와 간행지만이 간단하게 기록된 것이 보통이지만, 『목민심감』, 『예기천견록』, 『석천선생시집』, 『오자직해』, 『성리대전서』의 간기에는 간행주체자인 제주목사 외 간행에 참여했던 판관, 교수, 감교관, 진무 등도 기록되어있다. 이 외 간행주체자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제주간행책판 및 서적 역시 제주목사가 주관했으리라 생각되는데, 서적간행은 막대한 물적 자원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으로 일반 私家 또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18세기 선조문집을 제주목사라는 관직을 이용해 사적으로 간행한 사례도 3건이 확인된다.

101) 이익태, 『知瀛錄』, 增減 十事, ‘本州冊板曾因回祿之災蕩然無餘 其後所備四書俱謬解疑禮間解剪燈新話史略等板而無藏閣權置於鄉校東齋 春秋釋采諸生齋宿時出板外庭罷齋後還入置 非但苟艱多有風雨致傷之弊 故令入番下人除番鳩村而 大木則五六名 中木則三四名 小木則每名分收聚造成五間屋於校中以爲藏置冊板而印出時 則齋任主管開閉且校生輩各備板材 一立欲刊小學及謬解喪禮備要等冊者抄文云出故營牧下人中可合刻手者七十餘名 各其當番使之刻牧又擇其善手數十名給料校正三閱月 而畢功又得宣廟御筆大字草書八帖入梓而新刊小學及喪禮印出三件粧冊分上三邑鄉校.’

<표 28> 제주에서 간행한 현전본

	간행본명	간행연도	간행주체자	
			관직	성명
1	『황석공소서』	태종 4년(1404)~ 태종 6년(1406)	제주목사	이원항
			제주판관	한이
2	『목민심감』	태종 12년(1412), 명종 10년(1555)	제주목사	김수문
			제주목판관	이선원
			제주교수	한계징
			書寫迪順副尉	고영명
			副手	고훈
			正兵	이인번
3	『예기천전록』	태종 18년(1418)	제주판관	하담
		숙종 31년(1705)	제주목사	송정규
4	『석천선생시집』	선조 5년(1572)	제주목사	소흡
			제주훈도	정언식
5	『중용언해』	선조 41년(1608)	제주판관	(이우해)
6	『오자직해』	인조 18년(1640)	제주목사	심연
			제주판관	金凜
			審藥	한충민
			司果	심흡
			司果	유창삼
			鎭撫	김상길
7	『성리대전서』	인조 22년(1644)	제주목사	원숙
			제주판관	변급
			감교관	강정원
8	『탐라지』	효종 4년(1653)	제주목사	이원진
9	『소학언해』	숙종 11년(1685)	(제주목사)	(강세귀)
10	『상례비요』	숙종 21년(1695)	(제주목사)	이익태
11	『초암집』	숙종 27년(1701)	(제주목사)	(박성석)
12	『영해창수록』	숙종 28년(1702)	제주목사	박성석
13	『탐라지도』	숙종 35년(1709)	제주목사	이규성
14	『근재선생집』	영조 16년(1740)	제주목사	안경운
15	『소학규범』	헌종 11년(1845)	瀛洲校宮(제주목사)	(권직)
16	『옥당리정자의운률해편심경』	철종 7년(1856)	(제주목사)	(정석빈)

<표 28>의 내용처럼 서적 간행 주체자는 제주목사를 중심으로 판관, 교수 등이지만 이외 기록되지 않은 冊匠 및 紙匠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당시 제주지역의 紙匠과 종이생산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표 29> 『경국대전』 京·外紙匠의 지역별 분포

지역	京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황해도	계
주군현 수 (紙匠數)	조지서(81) 교서관(4)	54 (131)	67 (265)	54 (237)	25 (33)	24 (39)	305 (790)
기타				대정, 정의	정선		
※ 기타는 각 도 주군현 가운데 所屬紙匠이 없는 곳임.							

<표 29>의 내용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중앙 정부는 활용할 수 있는 지장의 수를 전국적인 단위에서 파악하고 이를 『경국대전』에 반영함으로써 군현의 운영을 통한 종이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직접 지배를 실현했다. 전라도 지역의 지장 수는 제주목으로 파견되는 장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정현과 정의현도 전라도 항목에 편성하였다는 것은 전라도 지역의 지장을 파견하여 양질의 원료를 가공한 종이 생산이 가능하였음을 의미한다.¹⁰²⁾

또한 앞서 살펴 본 사료 ①의 책판간행경위에 대한 기록을 봤을 때 판각 후 교정을 보게 한 내용이 있었다. 통상적으로 목판본을 판각하여 교정할 때에는 반드시 먹과 종이를 구비하여 인출하고 그것을 원본과 대조하여 잘못을 가려내고, 다시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인출된 서적은 지극히 소량이지만 종이 공급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¹⁰³⁾ 제주의 종이자체제작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증보탐라지』 공장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 제주인쇄와 관련한 장인¹⁰⁴⁾을 살펴보면, <표 30>와 같다.

<표 30> 『증보탐라지』 장인 中 인쇄관련 장인기록

지역		장인
1	제주	冊匠
		黃染匠
		紙匠
	牧官所屬匠人	刻手匠
2	정의	紙匠
3	대정	紙匠

102) 전영준, 「조선전기 제주지역의 제지수공업」, 『제주문화』 22, 제주문화원, 2016, 87쪽.

103) 전영준, 「조선전기 제주지역의 제지수공업」, 『제주문화』 22, 제주문화원, 2016, 96쪽.

104) 『譯註 增補耽羅誌』(일본 천리대학교도서관 소장본), 윤시동, 제주문화원, 2017, 工匠, ‘濟州 工匠 增 : 匠人 : 工房匠人 冊匠 … 黃染匠 … 紙匠 合二百九十七名’, ‘濟州 匠人 : 牧官所屬匠人 … 刻手匠 … 合一百五十名’, ‘旌義縣 工匠 增 : 匠人 : … 工房匠人 … 紙匠 … 合 六十七名’, ‘大靜縣 工匠 增 : 匠人 : 工房匠人 紙匠 … 合 四十三名.’

『증보탐라지』의 제주 장인조를 보면, 공방소속장인 冊匠, 黃染匠, 紙匠과 목관소속장인인 刻手匠이 확인된다. 그리고 정의현, 대정현 장인조에서는 인쇄관련 장인은 紙匠만 확인된다. 3읍 모두 紙匠이 있는 것을 보아 종이를 자체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고 특히 제주목에서는 책 만드는 冊匠과 종이 염색하는 黃染匠이 있어 인쇄활동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정의현과 대정현이 紙匠만 있고 冊匠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두 현에서의 자체인쇄활동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책판유척고』, 『제주읍지』, 『제주대정정의읍지』의 대정현 참고조 책판목록에 『사략』 책판이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종의 책판소장으로 인쇄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표 29> 『경국대전』 京·外紙匠의 지역별 분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정현과 정의현도 전라도 지장파견 항목에 편성되어있다. 이는 전라도 지역의 지장을 파견하거나 제주자체종이생산을 의미할 수도 있다. 자체종이생산이 가능했음은 당시 출판인쇄술확보와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체종이생산기술과 紙匠, 冊匠의 존재와 더불어 제주지역 출판활동을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III장, IV장 1절에서 살펴 본 책판목록과 현전간행본의 간기 등이다. 앞서 살펴본 책판목록과 현전간행본의 간기 등을 종합해서, 제주에서 개간한 책판을 시기별로 전부 정리하면 아래 <표 31>과 같다.

<표 31> 제주에서 간행한 책판 목록

	책판명	개간시기	유형	현전여부		책판명	개간시기	유형	현전여부
1	황석공소서	1405년	兵家類	○	48	효경	1653년 이전	孝經類	
2	예기천견록	1418년	禮類	○	49	삼국지연의	1687년 추정	小說類	○
3	검시장식	1439년	刑獄詞訟類		50	상례비요	1695년	禮類	○
4	목민심감	1555년	職官類	○	51	선묘어필대자초서	1696년	藝術類	
5	석천선생시집	1572년	別集類	○	52	언해상례비요	1696년	禮類	
6	적벽부	1574년	藝術類	○	53	사략	1696년 이전	別史類	
7	완화유수	1585년 이전	藝術類		54	언해의례문해	1696년 이전	禮類	
8	동국사략	1585년 이전	編年類		55	첩해신어	1700년	譯學類	○
9	중용언해	1608년	中庸類	○	56	초암집	1701년	別集類	○
10	신편집성마의방	1633년	醫家類	○	57	영해창수록	1702년	總集類	○
11	오자직해	1640년	兵家類	○	58	탐라지도	1709년	地理類	○
12	성리대전서	1644년	儒家類	○	59	옥당리정자의 운율해편심경	1718년	小學類	○
13	탐라지	1653년	地理類	○	60	근재선생집	1740년	總集類	○

	책판명	개간시기	유형	현전 여부		책판명	개간시기	유형	현전 여부
14	가례	1653년 이전	禮 類		61	경제잠서	1776년 이전	儒家類	
15	격몽요결	1653년 이전	儒家類		62	논어언해	1776년 이전	論語類	
16	경험방	1653년 이전	醫家類		63	맹자언해	1776년 이전	孟子類	
17	구급방	1653년 이전	醫家類		64	밀산세고	1776년 이전	別集類	
18	논어	1653년 이전	論語類		65	삼국지	1776년 이전	正史類	
19	당시절구	1653년 이전	總集類		66	삼략	1776년 이전	兵家類	
20	대학	1653년 이전	大學類		67	석봉서	1776년 이전	藝術類	
21	대학언해	1653년 이전	大學類		68	설봉서	1776년 이전	藝術類	
22	동명집	1653년 이전	別集類		69	신증유합	1776년 이전	小學類	
23	동몽선습	1653년 이전	小學類		70	안진경서	1776년 이전	藝術類	
24	동자습	1653년 이전	小學類		71	염초신방	1776년 이전	兵家類	
25	등왕각서	1653년 이전	藝術類		72	의례문해	1776년 이전	禮 類	
26	맹자	1653년 이전	孟子類		73	전자관	1776년 이전	藝術類	
27	병학지남	1653년 이전	兵家類		74	천자관	1776년 이전	小學類	
28	삼운통고	1653년 이전	小學類		76	초서대자증자	1776년 이전	藝術類	
29	서전대문	1653년 이전	書 類		77	출사표	1776년 이전	藝術類	
30	소학	1653년 이전	儒家類		78	태공사필관	1776년 이전	藝術類	
31	소학언해	1653년 이전	儒家類	○	79	통감	1776년 이전	編年類	
32	속칭구풍아초	1653년 이전	總集類		80	삼경사서대전	1796년 이전	禮 類	
33	시전대문	1653년 이전	詩 類		81	삼략직해	1796년 이전	兵家類	
34	십구사략	1653년 이전	別史類		82	소학집설	1796년 이전	儒家類	
35	옥호빙	1653년 이전	總集類		83	의례문해속해	1796년 이전	禮 類	
36	유합	1653년 이전	小學類		84	증보삼운통고	1796년 이전	小學類	
37	장감박의	1653년 이전	兵家類	○	85	천자문	1796년 이전	小學類	
38	전등신화	1653년 이전	小說類		86	통감절요	1796년 이전	編年類	
39	정속	1653년 이전	儒家類		87	십구사략통고	1796년 이전	別史類	
40	중용	1653년 이전	中庸類		88	답라지(李翊漢)	1796년 이전	地理類	
41	천자	1653년 이전	小學類		89	경민편	1837~39년	禮 類	
42	청선서	1653년 이전	藝術類		89	전천자문	1841년 이전	藝術類	
43	초천자	1653년 이전	藝術類		90	주자필경제잡	1841년 이전	藝術類	
44	춘중	1653년 이전	藝術類		91	소학규범	1845년	小學類	○
45	충암집	1653년 이전	別集類		92	혼례홀기	1856년	禮 類	○
46	퇴계서	1653년 이전	藝術類		93	소학서도	미상	小學類	○
47	포은집	1653년 이전	別集類						

* 여러 번 개간된 서책은 최초개간시기 기준. 동일책명으로 보이는 책판 제외.

표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에서 간행한 책판은 총 93종이다. 이중 제주에서 개간한 서적 중 현전본은 23종으로 본문과 간기 등으로 비교적 정확한 개간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외 책판은 문헌상에 목록이 나열만 되어있는 것이 보

통으로 간행연대는 책판목록을 기록한 해당 문헌의 개간시기를 기준으로 했다.

전체 책판 93종 중 『예기』 및 『소학』을 포함한 유학관련 책판이 가장 많고 총 42종이다. 예술 관련으로 분류한 글귀를 새긴 서판은 17종, 형옥과 직관류를 포함한 역사관련 책판은 12종, 문집관련 책판은 11종, 병학관련 책판은 7종, 의학관련 책판은 3종이다. 역학관련 책판도 1종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기별로는, 15세기에 3종, 16세기에 5종, 17세기에 46종, 18세기에 33종, 19세기에 5종이 개간됐는데, 17~18세기에 들어서며 급격히 책판종수가 늘어남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집류와 유학관련 책판이 증대됐는데, 문집관련책판이 증대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18세기에 사적인 목적으로 수령들의 선조문집편찬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유학관련 책판증대에 관해서는 당시 유학교육흐름과 관련이 있는데 즉, 조선초 향교의 기능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던데 비하여 17세기의 유학교육은 유배인을 통한 유학의 보급으로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와 관련하여 17~18세기에는 제주에 유학이 정착되면서 유학관련책판의 수요가 더 증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제주지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학관련 책판 외에도 군방목적에 의한 병학·의학관련책판, 왜학에 의한 역학관련책판 등 다양한 성격의 책판을 특정 목적에 의해 15~19세기에 걸쳐 꾸준히 개간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학관련책판·서적 외에는 제주의 실생활과 직접적 관련있는 책판·서적이 개간되었고 간행연대도 높아 조선초기부터 제주는 필요에 의해 자체인쇄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15~19세기에 걸쳐 기록된 책판목록과 제주간행현전본의 간기와 본문, 책판고의 운영, 자체종이생산과 紙匠, 冊匠의 존재 등을 살펴본 결과, 다소 열악한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제주에서도 당시 시대흐름에 맞는 출판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V. 결론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시기별 책판목록과 제주 출판서적의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고 책판고의 운영과 출판관련활동을 통해 제주의 서적간행특징을 살펴보고자 했다. 책판목록만을 나열하는 단선적 실태분석이 아니라, 제주의 출판환경이 다소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출판능력과 당시 서적간행 흐름에 뒤쳐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특정서적 간행과 제주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지방관서의 목판인쇄는 세종 이후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며, 중앙관서가 요구하는 책판과 지방관서 자체에서 필요한 책판을 판각했다. 특히 유교국가의 건설에 필수적인 성리학 서적의 편찬과 생산·보급 및 교육이 당면한 문제로 대두되어 유교정치와 유학의 진흥을 위해 사서오경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였고, 지방에서도 유학서적을 간행하였다.

하지만 지방 관아의 서적 간행 역량은 한계가 많아서 성종대까지의 서적 유통 방식은, 하삼도 지역과 같은 한정된 지역에서만 관찰사의 주관 아래 지방에서 직접 유교경전 및 교화서를 간행하여 보급하는 정도였으며, 여전히 중앙 정부가 서적 공급을 주도하였다. 더욱이 지방 서책간행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엄격하여 지방출판문화가 더디게 발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역시 중앙정부의 서책간행에 대한 통제와 물산의 부족으로 출판기술이 눈에 띄게 발전하진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책판 종수는 총 93종이고 제주간행 현전본은 23종이다. 이는 결코 작은 종수가 아니며 출판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조선시대 제주지역 책판목록을 분석함으로써 제주지역 서적간행의 특징과 출판활동을 역사적 관점에서 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조선왕조실록』과 읍지류를 중심으로 제주에 서적을 보급하거나 판각을 명한 기록을 시기별로 정리했다. 제주는 서적부족의 이유로 중앙정부에 서적을 요청했고 대부분이 經部인 유학서적이었다. 또한 서적요청과 수령대상은 대부분 제주목사였다. 현종 13년(1672)에 호남감사에게 명하여 <경서>를 인쇄해서

제주에 들여보내게 하거나, 숙종 26년(1700)에 책판이 있는곳에 명해 『대전속록』과 『무원록』을 인쇄해 제주에 보내도록 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는 다른 지역 감영에 인쇄를 명해 제주에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세종 21년(1439)에 제주에 직접 판을 새겨 「검시장식」을 인쇄하도록 한 사례가 있어 당시 제주가 출판기술을 보유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조선후기 제주지역 책판목록의 내용을 시기별로 분석했다. 책판목록은 각 지방의 출판활동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대부분 조선후기의 지지류에 수록되어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주 역시 조선후기의 읍지류에 대부분 책판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제주의 책판목록을 분석하기 위해, 8도 책판목록이 수록된 『攷事撮要』, 『古冊板有處攷』, 『林園十六志 京外鏤板』, 『鏤板考』, 『耽羅志』, 『耽羅誌』, 『濟州邑誌』, 『濟州大靜旌義邑誌』, 『耽羅誌草本』을 활용했다. 이 외 책판목록이 수록되어있진 않지만 책판간행에 관한 기록은 『南槎日錄』, 『知瀛錄』, 『濟州郡邑誌·大靜郡邑誌·旌義郡邑誌』를 참고했다. 이와 같은 책판목록의 내용을 시기별로 정리한 후 세 번째로, 제주지역 출판서적의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였다.

당시 책판목록을 통해 조선시대 제주는 16~19세기에 걸쳐 결코 적지 않은 여러 유형의 책판을 소장했었고, 대부분이 유학관련 책판임을 알 수 있었다. 16~19세기 제주지역 책판목록을 기록한 문헌 대부분이 책판목록을 나열하는 정도여서 그 책판에 대한 출판경위는 알 수 없지만, 현전하는 간행본간기와 서문을 통해 간행주체와 간행시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15세기 제주는 세종 17년(1435)에 사서와 같은 유학서적을 중앙정부로부터 보급받은 이후 16~17세기에 유학서적을 꾸준히 보급받았다. 관찬과 읍지류의 사료를 통해서는 16~19세기에 걸쳐 다수의 유학관련책판을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5~17세기에 비해 18~19세기에 책판종수가 늘어나고 간행현전본도 다수 확인됨을 알 수 있다. 이는 18~19세기에 중앙정부의 유교보급정책과 당시 제주의 유배인들에 의해 제주에 성리학질서가 고착화되는 과정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사서 역시 제주유생들의 교육을 위한 것으로 향교의 교과서는 때에 따라 비중의 차이는 있었으나 『소학』, 『효경』, 사서·삼경 등의 初學교과서와 『가례』, 『성리대전』 등의 朱子書와 『통감』 등의 사서 등이 사용되었다. 때문에 사서 역시 유학

서적과 마찬가지로, 16~19세기에 걸쳐 꾸준히 책판목록에 기록되고 있다.

병학관련 제주책판목록은 10종이 전해지는데 이중 『황석공소서』, 『장감박의』, 『오자직해』 3종이 현전간행본이고 『황석공소서』는 조선最古병서이다. 이렇게 제주에서 最古병서가 남아있다는 점과 병서관련 책판 및 간행본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제주에서 병서가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제주에서 군사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조선시대 들어와 제주지역은 방어상 매우 중요한 곳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제주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수성과 더불어 일본과 중국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늘 주변국의 침입에 대비해야 했고, 조선후기 당시 표류선과 이양선의 출몰이 많아 지역 방어에 힘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당시 제주의 군사적인 문제로 인해 병서가 중요시되었다고 여겨진다.

의학관련 책판으로는 현전본으로 『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이 있어 이 서적 역시 제주에서 자체적으로 인쇄했음을 알 수 있다. 『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은 소와 말을 치료하는 수의학서로 정종 원년(1399) 강원도에서 초간된 뒤 전주·의주·제주 등 각 지역에서 중간되었다. 이책은 고려시대의 수의학의 전통을 이어 온 전문의방서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 책의 간행 목적에서 본다면 군사적으로 제주牛馬의 중요성과 더불어 고려부터 이 지역에 내려온 목장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집관련 책판에 관해서 주목할 점은 부임 지역 인물의 문집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기보다는 지방관과 사적인 관계로 얽혀있던 인물을 중심으로 문집 간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제주는 문집관련책판이 10종이 있고 지방관에 의한 문집 간행은 3건 확인할 수 있어 당시 시대흐름에 맞는 책판성격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전등신화』와 같은 소설과 『첩해신어』와 같은 역학 등의 책판목록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네 번째로 책판고의 운영과 출판관련 활동을 통해 조선후기 제주지역 서적간행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 책판고를 운영하고 책판고에 책판이 소장되어 있다는 것은 인쇄가 가능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인쇄된 책들을 보관, 보급할 수 있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도서보급정책의 면모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하지만 당시 제주의 책판고의 책판과 서적은 독립적인 공간에서 보관되지 못하

고 제주향교 내 명륜당의 일부공간에서 보관되거나 기숙사인 東齋에 보관되었다. 더욱이 제주의 책판고는 여러 번의 대화재로 소실되고 재설되는 과정을 여러번 거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소장되어 있던 책판들도 소실되서 재개간하거나 중앙에서 다시 보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시대 제주지역은 제주목 중심으로 책판고를 운영하고 있었고, 책판고의 위치와 책판상태를 보아 책판보관환경은 그리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책판의 간행 주체자는 주로 제주목사였는데 서적간행은 막대한 물적 자원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으로 일반 私家 또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적간행 주체자는 제주목사를 중심으로 판관, 교수 등이지만 제주지역의 紙匠과 종이생산에 대한 기록으로 보아 이 외 기록되지 않은 책판관련 장인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제주의 종이자체제작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증보탐라지』 공장편의 장인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읍 모두 紙匠이 있는 것을 보아 종이를 자체 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고 특히 제주목에서는 책 만드는 冊匠과 종이 염색하는 黃染匠이 있어 인쇄활동을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책판목록과 현전간행본의 간기 등을 종합해서, 제주에서 개간한 책판을 시기별로 전부 정리하면, 제주에서 간행한 책판은 총 93종이다. 이중 제주에서 개간한 서적 중 현전본은 23종이다. 전체 책판 93종 중 『예기』 및 『소학』을 포함한 유학관련 책판이 가장 많고 총 42종이다. 예술관련으로 분류한 글귀를 새긴 서판은 17종, 형옥과 직관류를 포함한 역사관련 책판은 12종, 문집관련 책판은 11종, 병학관련 책판은 7종, 의학관련 책판은 3종이다. 역학관련 책판도 1종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기별로는, 15세기에 3종, 16세기에 5종, 17세기에 46종, 18세기에 33종, 19세기에 5종이 개간됐는데, 17~18세기에 들어서며 급격히 책판종수가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제주지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학관련 책판 외에도 병학, 의학, 역학 등 다양한 성격의 책판을 특정 목적에 의해 15~19세기에 걸쳐 꾸준히 개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15~19세기에 걸쳐 기록된 책판목록과 제주간행현전본의 간기와 본문, 책판고의 운영, 자체종이생산과 紙匠, 冊匠의 존재 등을 살펴본 결과, 다소 열악한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제주에서도 당시 시대흐름에 맞는 출판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책판목록과 간행현전본의 본문과 간기

등을 통해 제주지역 서적간행실태를 살펴보는데 있어 한계가 많았다. 이에 향후 자료를 보강하여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서적간행에 대해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조선시대 제주지역 출판문화까지 연구를 확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문헌사료

- 『朝鮮王朝實錄』
이원진, 『耽羅志』
미상, 『耽羅志』(일본동경대학 소장)
이증, 『南槎日錄』
이익태, 『知瀛錄』
윤시동, 『增補耽羅誌』
『濟州邑誌』
『濟州大靜旌義邑誌』
이원조, 『耽羅誌草本』
이원조, 『耽羅錄』
김석익, 『心齋集』
김석익, 『耽羅紀年』

2. 연구논저

1) 단행본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耽羅誌』 탐라문화총서 제5집,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9.
김성준, 『목민심감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0.
정형우, 윤병태, 『한국의 책판목록』, 보경문화사, 1995.
천혜봉, 『韓國 書誌學』, 민음사, 1999.
이중연, 『책의 운명』, 혜안, 2001.
옥영정, 「조선시대 후기 책판에 대한 공식기록 -서유구 외, 누판고-」,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2006.

조사수 박충원 공저, 『영해창수록』, 제주시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2011.
 신양선, 『조선초기 서지사연구』, 혜안, 2012.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冊板, 조선의 문화를 새기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7.

2) 논문

탐라문화연구원, 「조사보고: 제주도 典籍類 종합조사보고」, 『탐라문화』 3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84.
 김영철, 「조선조 향교의 도서정책 연구-조선초기부터 중기까지」, 『도서관학』 제4집, 강남대학교, 1987.
 박은숙, 「석천집의 판본」, 『민족문화』 제 16집, 1993.
 김항수, 「조선전기 성리서 해석의 추이」, 『同大論叢』 25집, 1995.
 남권희, 「제주도 간행의 서적과 기록류」, 『고인쇄문화』 8집, 청주고인쇄박물관, 2001.
 송성대·강만익, 「조선시대 제주도 관영목장의 범위와 경관」, 『문화역사지리』,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1.
 강만익,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김진영, 「조선초기 ‘濟州島’에 대한 인식과 정책」, 『韓國史論』,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2.
 김 호, 「『新註無冤錄』과 조선전기의 檢屍」, 『법사학연구』 제27호, 한국법사학회, 2003.
 양진건, 「세종조 도서보급 정책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교육사상연구』 제16집,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05.
 윤봉택, 노기춘, 「제주목에서 개간된 17세기 책판 연구」, 『서지학연구』 제34집, 서지학회, 2006.
 윤봉택,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노영구, 「조선시대 兵書 출판의 인쇄사적 성격」, 『조선의 인쇄출판 정책과 역사발전』, 청주고인쇄박물관, 2007.

- 손계영, 「지방관과 선조문집간행」, 『영남학』 제15호, 2009.
- 옥영정, 「조선시대 完營의 문집간행과 그 배경 연구」, 조선시대 지방감영의 인쇄 출판 활동, 『청주고 인쇄박물관』, 2009.
- 손계영, 「지방관과 선조문집간행」, 『영남학』 제15호, 2009.
- 우정임, 「조선전기 性理書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사학과 2009.
- 원미경, 「조선시대 강원지역의 서적간행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권희, 「조선전기 목판인쇄술과 출판문화」, 『조선전기 기록문화 연구』, 청주고인쇄 박물관, 2013.
- 김남일, 「조선 초기 관찬 역사서에 있어서 『자치통감강목』 書法의 영향」, 『한국사학사학보』 제29권, 한국사학사학회, 2014.
- 최형국, 「조선초기 軍事 戰術체계와 제주 戰馬」, 『군사지』 제93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 김소희, 「조선전기 전라도의 출판문화 연구」 『서지학연구』 제62집, 한국서지학회, 2015.
- 육수화, 「조선시대 서적의 보급과 교육기관의 장서관리」, 『교육사학연구』 제25권, 2015.
- 전영준, 「조선전기 제주지역의 제지수공업」, 『제주문화』 22, 제주문화원, 2016.

3. 기타자료

- 고려대학교 도서관(<http://www.library.korea.ac.kr>)
-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db.itkc.or.kr>)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전자도서관(<http://lib.ask.ac.kr>)